

- 이 冊은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拠한 特殊課題 및 個別 研究論文을 編輯한 것임.
-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듯이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 및 北韓 研究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金日成以後 北韓體制研究



刊行責任

李

啓

熙 (調查研究室 補佐官)

3월 21일 2011  
 11월 21일 2011  
 11월 21일 2011  
 6월 21일 2011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內 容

北韓의 体制的 變數가 權力構造變化에 미치는 影響 ..... 3

許 景 九

北韓의 体制管理方式과 統制能力的 限界 ..... 71

朴 昌 魯

北韓政治文化的 形成과 그 特徵 ..... 111

李 文 雄

金日成政權의 後繼問題와 北韓政治의 方向 ..... 159

李 啓 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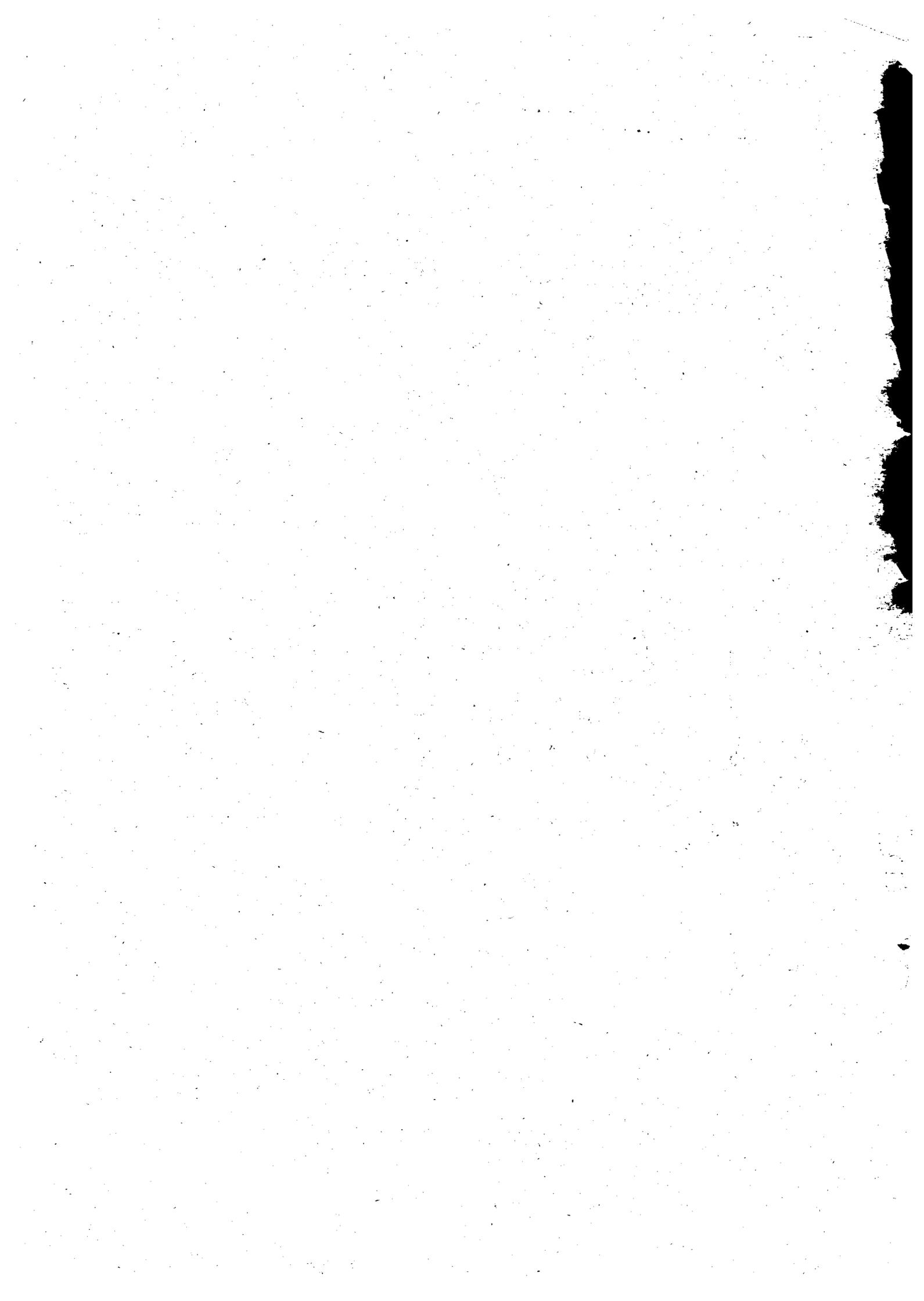
# 北韓의 体制的變數가 權力構造變化에 미치는 影響

— 中共과의 比較視角에서 —

許 景 九

## 目 次

I. 共產國家에서의 權力承繼의 몇가지 패턴 .....	5
II. 中共 權力承繼作業의 試行錯誤 .....	21
III. 毛沢東承繼体制의 特徵 .....	35
IV. 北韓의 動員体制로서의 危機와 承繼危機 .....	56



## I. 共産國家에서의 權力承繼의 몇가지 패턴

共産國家에서의 權力承繼란 後嗣的인 성격을 強하게 띠고 있다.

「後嗣」란 王朝時代의 權力移讓을 표현한 말이지만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無誤謬의 權威는 王朝의 社稷이나 다름없고 權威의 主体인 공산당의 法統의 持續性이 보장된다는 뜻에서 보면, 공산국가에서의 後繼者란 王朝時代의 後嗣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엄밀히

말해서 공개적인 경쟁과 挑戰이 排除된 複數主義와 多元主義가 용인되지 않는 마치 密閉된 宮庭에서 이뤄지는 權力의 「讓位」와 다름없다는 말이다. 「讓位」란 權威의 水平的인 관계보다는 位階

的인 垂直的關係를 나타내는 말이고 또 權力委任者와 被委任者 사이의 관계가 당연히 從屬的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權力委任者의 恣意와 獨斷이 被委任者를 가려내고 選拔하는데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정치학자들은 흔히 공산국가에서의 權力移讓을 承繼 (Succession) 라는 用語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역시 後嗣란 말이 풍기는 뉴앙스와 비슷하다. (hein)

交替되고 更新되는 프로세스이기 보다는 물려주고 물려받고, 다시 물려주는 (Succession Process) 다분히 의도적이고 作為的인 프로세스인 것이다.

그런데 공산당의 權威의 法統性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教條的當爲性의 次元을 떠나 공산국가에서의 承繼過程은 그 자체로서 허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王權의 任意的인 獨斷에 의해서

움직이는 王朝에서조차 王權의 篡奪과 後繼者의 背信이 恒茶飯事로 일어나듯 보다 複合的인 國家통치의 메카니즘과 利益集團, 그리고 훨씬 開明된 國民과 多樣한 국제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의 공산국가에서 권력승계작업이 반드시 쉽게만은 이루어질질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民主國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병폐 즉 社会利益集團의 지나친 集團利益追求나 정치적 후진국에서 頻發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季節的인 交替와 견주어 볼때 公산국가에서의 承繼過程이 民主國家나 政治的 後進國에서의 그것보다 반드시 不安定한 것이냐 하는 데는 論難이 있을 수 있겠으나 公산국에서의 권력승계란 源泉的인 脆弱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公산주의 국가에서는 政治過程에서 일어나고 있는 自然發生的인 政治의 代謝作用에 의해서 權力의 交替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硬直된 官僚體制 政治메카니즘을 요구하고 있는 公산국가에서 오히려 承繼過程이 制度的으로 定着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一系不亂한 統治體系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統治體系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반대로 亂調를免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逆說的인 矛盾이다. 그러나 公산체제의 속성으로 보아 이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公산국가의 統治體系가 一系不亂한 것은 統治메카니즘의 能率性이나 웨버가 이르는 官僚制의 合理性에 基因한다기 보다는 이른바 權力의 個人化 또는

人格化 ( Personalization )<sup>1)</sup> 에 따른 權力의 劃一化나 一元化에서 연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權力的 人格化란 권력 또는 統治메카니즘에 內在한 屬性의 작용에 따라 體制가 運用되는 것이 아니고 統治權者의 心性, 意志, 心氣의 變化, 또는 感情의 起伏에 따라 지배를 받기 때문에 후계자를 결정하는 데도 이들 요소가 주요 變數가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恣意的인 統治에서 생기는 後患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人格화된 權力的 성격 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후계자는 必要한 것이다. 이를테면 王朝時代의 世子책봉과 똑같은 동기와 과정을 밟게 된다. 레닌이즘, 스탈린이즘 또는 毛澤東思想은 그 人格화된 政治權力的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것이다. 後嗣의 성격을 갖는 權力承繼란 權力委任者 (the ruler or incumbent) 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물려주는 과정이지만 被委任者로서는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물려줄 것을 다시 創造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물려받은 것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否定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갖게 된다. 공산국가의 권력승계가 복잡하고 不安定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레닌이즘과 스탈린이즘이 반드시 相互補完 관계에 설 수 없듯이 또는 후르시쇼프의 스탈린 格下運動에서 볼 수 있듯이 前任者와 後任者는 서로 相剋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常例이다. 이것은 前任者의 權威의 否定없이 後任者가 진실로 独立的인 權威

註 1, 李啓熙, " 共產圈의 政權承繼에 관한 研究 " 北韓, 1977.4 月号 p. 193.

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산국가에서 後繼者로 指名 또는 內定되었던 사람은 다음 11 명이다.

불가리아의 Vulko Chervenkov, 소련의 Georgi Malenkov, Leonid Brezhnev, 폴란드의 Edward Ochab, 유고의 Aleksander Rankovic, 소련의 Evol Kozlov, 루마니아의 Nicholae Ceausescu, 東獨의 Erich Honecker, 越盟의 Le Duan, 中共의 劉少奇, 林彪.

이상 11 名中 2 名이 前任者를 背信하여 그들로부터 權力을 奪取했고 (브레즈네프와 호네커), 3 名이 篡奪누명을 쓰고 逐出되었고 (랑코빅, 劉少奇, 林彪), 2 名이 前任者의 生存中에 이미 그들의 信任을 잃어버렸다. (말렌코프, 코즐로브) 아마 金日成의 後계로 內定된 金英柱가 다시 그의 아들인 金正으로 바뀐 것은 마지막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른다. 承繼過程을 成功的으로 마친 것으로 생각되는 나머지 4 名 (체르벤코브, 오차브, 초우세스쿠, 레·두안) 도 레·두안을 빼고 前任者들을 死後背信한 것으로 보아 前任者와 後任者는 相剋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必然的인 相剋관계가 공산국가에서의 承繼過程을 不透明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로 볼수 있다.

또 이와 같은 承繼展望에 對한 不安은 現役의 獨재 자들로 하여금 아예 後계자를 暗默的으로든 明明的으로든 定하지 않게 만들거나 (체코의 Klement Gottwald 와 Antonin Novotny, 불가리아의 Chervenkov, 헝가리의 Matyas Rakosi, 폴란드의 Wladyslaw Gomulka ) 또는 후루시초프같이 코즐로브에서 브레즈네프로 後계자

를 변경 하든지 또는 毛沢東처럼 3 번이나 후계자를 바꿔치우는 異變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후계자를 定하지 않았다는 것이 共產統治者의 死前이나 死後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정치적 利得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上記 5名中 체코의 고트발트만 제외하고는 다 逐出의 悲運을 맛보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으며 후계자를 바꾸는 것 역시 후루시초프의 例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 오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레닌이나 스탈린도 그 臨終의 狀況에 대해서 異論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毛沢東조차 후계자에 의한 反逆을 겪은 것으로 보아 또는 承繼의 가장 성공적인 例로 꼽히는 루마니아의 Gheorghie Gheorghiu-Dej 와 초우세스쿠의 관제조차 Dej 의 死後 초우세스쿠가 비난의 칼을 매든 것으로 보아 前任者들이 의도했던 대로 승계란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산국가에서 어떤 狀況과 條件에서 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승계를 가져 오느냐 하는 승계패턴에 대한 一般論은 그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따라서 그 理論的인 규명도 어렵게 되어 있다. 다만 承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피델·카스트로의 쿠바와 北韓에서 라울·카스트로와 金正一에 의한 親族後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자못 궁금한 일이다. 그러나 승계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 승계의 과정, 승계자체의 패턴에

註 2,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說明은 Myron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대해서는 몇가지 理論的인 推定을 내려 볼수 있다.

첫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똑같은 공산政權의 歷史와 공산주의 理念과 政治制度를 共有하고 있으면서 하나의 國際的圈域을 形成하고 있는 共產圈의 국제환경이 승계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두가지 측면 즉, 공산국가들 사이의 橫的인 連帶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소련의 衛星國들간의 關係와 衛星國과 宗主國인 蘇聯의 縱的인 關係가 各個의 公산국가들의 승계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이것은 承繼에 영향을 주는 外因的 變數다. 정치·경제적으로 거의 엇비슷한 發展段階를 거치고 있는 衛星國들은 좋은 싫든 相互 避할 수 없는 영향關係를 유지하고 있고 衛星國의 한 번두리에서 일어나는 國內事態는 그 外延的波及으로서 當然히 다른 위성국들에 擴散效果를 갖게 된다. 이를테면 1956 年의 匈牙利 사태나 1968 年체코의 두부체코政權이 몰고온 危機狀況은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軍事的으로는 바르샤바條約, 經濟的으로는 코메콘, 그리고 政治的으로는 공산주의 理念이란 하나의 고리로서 連結되어 있는 東歐의 公산권은 그 자체로서 相互交互的인 規制關係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橫的關係보다는 衛星國들과 宗主國인 소련사이에서 벌어지는 영향關係가 위성국들 사이의 水平的關係보다는 그 역할의 深度를 追跡하고 측정하는데 훨씬 용이하다. 北韓은 이들 東歐衛星國들과는 일단 地理的으로 떨어져 있고 또 文化的으로 다른 처지에 있기 때문에 위성국들간의 水平的關係에서 보다는 北韓-소련의 직접적인 垂直關係에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을 것이다. 따라서 後者の 관계에 대한 理論的照明이 우리에게 더 時急히 요청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例컨대 1956年 朝鮮의 20次 全党大會에서 후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演說後 東歐諸國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고 北韓도 여기서 例外일 수는 없었다.

불가리아의 체르벤코브, 헝가리아의 라코시, 폴랜드의 오차브는 그 餘波로서 失脚되는 悲運을 맞게 되었고 北韓의 金日成의 主体路線도 이때 衛星國—宗主國間의 關係 再設定의 好機를 맞아 統治合理化의 한 수단으로서 강구되었다는 사실을 주의할 必要가 있다.

(둘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承繼를 결정짓는 內因的變數다. 이를테면 共產政權이 그나라 固有의 정치·경제적인 必要와 必然性에 의해서 外勢의 영향없이 土着化의 길을 밟은 나라와 국제공산주의 운동이나 朝鮮의 직접적인 介入에 의해서 공산국가를 수립한 나라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承繼문제만을 놓고 보면 前者가 後者보다 반드시 承繼過程이 制度化되어 있다든지 安定되어 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위성국들은 朝鮮에서 承繼의 典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성국들이 한들 例外를 내놓고는 거개가 承繼危機를 겪어왔고 朝鮮의 承繼를 지배하고 있는 료이란 특별히 어떤 제도적 속성보다는 지도자의 改進黨이나 統治方式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土着化나 非土着化나에 따라 承繼의 危機와 安全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土着化된 國家는 非土着化된 國家보다 統治者의 執權期間이 훨씬 長期化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뿐이다.

(스탈린, 毛沢東, 티토처럼)

반면 헝가리 같은 나라는 라코시, 나치 게로 (Gero) 같은 지도자들의 집권기간이 극히 짧았다. 이것은 土着화된 국가의 지도자가 革命의 長期化에서 비롯된 統治正統性을 가질 수 있었고 위성국의 지도자들은 革命의 日淺性으로 통치의 正統性을 굳힐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 연유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점에서도 革命의 正統性이 없는 金日成은 例外的인 存在다.

또하나 發展論에서 흔히 論議되는 대로 경제와 정치의 관계 즉 경제적으로 先進인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相對的으로 安定되어 있다는 妥當性을 인정한다면 經濟的인 발전단계의 차이점이 承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점에서도 兩者間에는 큰 차이가 없다. 東歐圈의 先進國인 체코, 東獨 또는 폴란드가 相對的으로 後進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보다 承繼過程이 安定돼 있다고 할 수 없다. 루마니아는 오히려 체코나 폴란드 보다는 承繼危懼를 훨씬 덜 겪은 나라다. 정치적으로 共產制度를 먼저 導入하고 定着시킨 국가들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공산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 보다 承繼에 관한한 더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 있다.

(세째는 承繼危懼의 深度나 그 危懼의 期間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때 후계자를 독재자의 死前 (Premortem) 에 지명하는 것이 좋으나 또는 死後 (postmortem) 에 지명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후계자를 일찍 지명하는 것이 좋으나 또는 독재자의 죽음에 임박해서 지명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문제다. 이

것은 후계자의 指名時期와 독재자의 臨終사이의 기간의 長・短이 承繼過程의 安定与否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다. 후계자를 언제 지명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흔히 후계지명은 독재자의 權威의 弱화와 관련되어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또 새로운 權力的 中心部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死後承繼보다는 死前指名에 의한 承繼가 많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나 후계를 지명했던 11개의 事例와 후계를 지명하지 않았던 5개의 事例를 비교해 볼때 兩者間에는 各各 招來되는 危機狀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후계를 지명하지 않았던 노보트니와 라코시 死後의 เช็ค와 헝가리는 「러쉬」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危機」를 맞보았고 고트발트와 체르벤코브 死後의 เช็ค와 불가리아는 「輕微한 危機」를 겪은 것으로 되어 있다.<sup>3)</sup> 후계를 지명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潛在的인 또는 顯在的인 競争者들에 의한 陰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言及한대로 後繼指名을 하지 않은 5名中 (고트발트, 노보트니, 체르벤코브, 라코시, 고물카) 고물카를 제외한 4名이 強制로 逐出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逐出劇의 경우 대개 政敵들의 聯合戰線에 의한 利害의 暫定的인 野合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이 權力的 分配에 合意하기에는 상당기간이 걸리게 되고 또 多數의 競争者에 의한 競争은 事態의 推移를 不透明하게 함으로써 危機를 延長시키는 것이다.

註 3, Rush, ibid, p. 28.

반면 독재자들의 死前에 이뤄지는 후계지명은 흔히 독재자의 基盤잡식을 가져오고 후계자의 挑戰野心을 促發하는 기회를 주게 된다. 그러나 독재자 生前에 기반구축을 소홀히한 후계자는 역시 그의 死後 競争者들로부터 挾攻에 물리는 경우가 許多하므로 공산 국가의 承繼의 딜레마가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산 국가의 독재자가 스스로 좋아서 후계자를 지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強力한 競争者( 또는 장차의 후계자 )의 登場을 念慮한 나머지 自意半·他意半으로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健康의 惡化같은 身体的인 衰退에 따라 또는 스스로의 권력기반이 弱화되었을 경우 마치 못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탈린은 健康의 惡化로, 毛沢東은 한때 권력기반의 弱화로 후계지명을 강요 당했다. 후계자가 名實相符한 第二人者로서 充分한 經驗과 權威를 쌓는 것이 그 령지 못한 경우보다 有利할 것만은 틀림없다. 쇼우세스쿠는 1965年 Dej가 죽기 10年前부터 후계자로서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말렌코프와 같이 經驗과 기반을 쌓기도 전에 스탈린이 死去함으로써 후계자의 權威를 쉽게 喪失한 경우도 있다.

요컨대 推定後繼者( Heir-presumptive )에서 確定後繼者( Heir-apparent )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권위가 必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후계자의 「訓練期間」은 절대 필요한 조건이다.

네째로 독재자는 언제나 權威( Authority )와 權力( Power )을 同時에 具有하고 行使하는 것이 通例다. 그러나 權威와 權力은 相互補完的이면서 그 屬性은 서로 다른 것이다. 權威는 그 자체가 權力을 前提로 하고 있지만 權力이 반드시 權威를 前提로 하

지는 않는다. 前者는 보다 自發的이고 노마타브한 制裁와 服從을 前提로 한다면 後者는 그 자체가 強制力을 隨伴한 것이다.

前者가 概念이나 實際에 있어서 보다 추상적·理念的인 領域이라면 後者는 日常的·具體的인 領域이다. 強力한 독재자는 대개의 경우 이 兩者를 兼全하고 있으며 兩者中 그 어느 것도 없기를 싫어한다. 이와 같은 독재자를 가졌던 공산국가는 필연적으로 承繼危機를 겪게 된다. 왜냐하면 權威와 權力의 空白이 同時에 생기게 되고 그것은 어떤 기관이나 인물로서 쉽게 代替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章에서 자세히 後述하겠지만 毛沢東은 權威와 權力의 두 領域을 独占하지 않고 權威만을 独占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의 承繼危機를 쉽게 넘긴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후계자 또는 後繼者群이 權力이라는 領域에서 독재자 死後 權威의 領域으로 昇格되는 것은 權威와 權力을 同時에 만들어 내야 하는 후계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공산권의 후계자 문제를 생각하는데는 극히 複雜하고 多様な 變數群이 作用하고 있고 또 그 變數群은 各個 나라들의 狀況과 條件과 相乘作用을 하여 더 複雜하고 多様な 樣相을 보이면서 발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後繼委任者와 被委任者의 개인적인 능력, 性向, 氣質 등의 요소가 큰 變數로서 作用하고 있다는 점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例컨대, 後繼委任者의 性向이나 氣質이 「카리스마」的이나 또는 理念的이나 아니면 非「카리스마」的이나 또는 非理念的이나에 따라 承繼過程의 危機의 深度 또는 後繼의 定着過程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的이라는 것은 독재자의 統治의 기반 또는 權威나 權力的 質이 이미 하나의 「既存의 正統性」으로 認定되는 경우 또는 日常的인 規範이나 組織이나 技業的 政策문제에는 超然해 있으면서도 統治의 能率性を 확보할 수 있는 資質을 말한다. 이는 정치적 제네럴리스트로서의 자질이 정치의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자질이 아니다. 非「카리스마」的이라고 할 때는 조직과 보다 具體的인 政策에 沒頭함으로써 統治의 能率性を 확보하는 정치적 스페셜리스트로서의 資質을 말한다. 分析의 軸점을 共產圈의 承繼過程이 어느 경우에 安定된 패턴을 보이고 어느 경우에 不安定한 패턴을 보이느냐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行列關係를 만들어 볼 수 있다.

後繼委任者

[表 1]

카리스마型      非카리스마型

後繼被委任者  
 카리스마型  
 非카리스마型

[ I ]	[ II ]
[ III ]	[ IV ]

[表 2]

理念型      非理念型

理念型  
 非理念型

[ V ]	[ VI ]
[ VII ]	[ VIII ]

上記의 行列관계를 다시 풀어 설명하면 - .

- [ I ] 後繼委任者, 被委任者 양쪽이 모두 카리스마형일 때.
- [ II ] 後繼委任者는 非카리스마형이고, 被委任者는 카리스마형일 때.
- [ III ] 後繼委任者는 카리스마형이고 被委任者는 非카리스마형일 때.
- [ IV ] 兩쪽이 모두 非카리스마형일 때.
- [ V ] 兩쪽이 모두 理念型일 때.
- [ VI ] 後繼委任者는 非理念型, 被委任者는 理念型일 때.
- [ VII ] 後繼委任者는 理念型, 被委任者는 非理念型일 때.
- [ VIII ] 兩쪽이 모두 非理念型일 때.

以上 8개의 類型은 하나의 典範 ( Ideal Type ) 으로 만들어  
본 것이고 어떤 獨재자 또는 후계자도 백퍼센트 카리스마的・理念  
的이거나 또는 그 반대일 수 없다.

아마 양쪽이 다같이 섞여진 類型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러나  
分析의 틀로서는 有用할 수 있다.

上記 8개의 類型을 더 축소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 I, V ] 後繼委任者, 被委任者가 똑같이 카리스마형, 理念型일 때.
- [ II, VI ] 後繼委任者는 非카리스마형, 非理念型이지만, 被委任者는  
 카리스마형, 理念型일 경우.
- [ III, VII ] 後繼委任者는 카리스마형, 理念型이지만, 被委任者는 非카  
 리스마형, 非理念型일 경우.
- [ IV, VIII ] 兩쪽이 모두 非카리스마형, 非理念型일 경우.
- [ I, V ] 처럼 양쪽이 카리스마형, 理念型일 경우는 실제로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도자의 카리스마的 屬性은 지도자 개인의 資質에도 크게 연유하지만 革命이나 執權의 長期化에서 서서히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被委任者의 경우 資質面에서 아무리 카리스마的 屬性이 농후하다 하더라도 執權期間이 짧고 많은 競争者와의 競合過程에서 이런 資質은 빛을 보지 못하게 마련이다. 카리스마的 後見人은 가질 수는 있으나 카리스마的 後繼人을 갖는 경우는 실제로 드물다.

카리스마는 그 자체가 獨尊的 屬性이요 存在지 그것을 누구와 나눠 갖는다는 것은 이미 그것으로 카리스마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後見人—後繼人은 兩者가 相互補完的일 때에만 그 관계가 성립되지만 양쪽이 카리스마일 경우 그것은 곧 경쟁과 相衝관계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면에서 II, VI이나 III, VII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훨씬 安定된 承繼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類型이다. 또 後繼過程에서 생기는 危機도 덜할 것으로 본다. 서로 相異한 資質은 排他的일 수 있지만 相互 補完·補充關係를 이루는 例가 더 많다.

III, VII의 경우는 毛沢東, 劉少奇의 例에 해당될 것이다. 실제로 中共에서 毛·劉라인으로 承繼作業이 굳어졌을 경우 中共은 훨씬 安定된 포스트·마오時代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毛沢東·華国鋒라인도 이 類型에 속한다.

IV, VIII의 경우 거의 모든 東歐圈의 승계패턴이 이 類型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 代表的인 例가 루마니아의 Dej-Ceausescu, 東獨의 Ulbricht-Honecker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承繼過程이 制度化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實務的 傾向, 理念보다는 (구체적인 政策 또는 組織定向 (Organization-oriented)) 으로 기울어져 있을 경우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制度化 以前에는 初期 東歐國家의 例에서 보듯 後繼競爭의 領域이 넓어짐으로 해서 陰謀와 聯合戰線의 形成 또는 外部勢力 (主로는 朝鮮) 의 介入에 의해서 結末을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서 言及했지만 사실 衛星國의 承繼過程에는 宗主國인 朝鮮의 立場이 절대적이었던 때도 있었다. 스탈린은 그의 生存時 金日成을 포함, 거의 모든 위성國의 統治者들을 스스로 選定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朝鮮의 영향력은 미칠 것으로 본다. 朝鮮에 스탈린 같은 強力한 리더십이 있을 경우 그리고 위성國에도 똑같이 이 強力한 리더십이 있을 경우 (티토처럼) 둘의 관계는 유고의 例에 보듯 斷絶되는 사태에까지 이른다. 이것은 中·蘇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朝鮮의 경우 無制限에 가까운 強力한 리더십이 있을 경우, 緩和된 또는 制限된 類型의 리더십이 있을 경우 (브레즈네프처럼), 또는 弱화된 集團指導體制가 있을 경우 (스탈린 死後처럼) 위성國에 대한 영향력은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위성國에도 3가지 類型의 똑같은 리더십이 있을 수 있으므로 朝鮮- 위성國의 영향의 흐름은 雙方에 存在하는 리더십의 強·弱의 力学關係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 相互의 영향關係를 行列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宗 主 国 ( 소련 )

		強力한 리더십	제한된 리더십	弱化된 集團 지도제
衛	強力한 리더십	✓ I	II	✓ III
星	제한된 리더십	IV	V	VI
国	弱化된 集團 지도제	✓ VII	VIII	IX

以上 9개의 관계에서 I, III, VII처럼 소련과 衛星국의 영향관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美證的인 事例를 발견하기 어렵다. I은 극단적인 相剋관계, III과 VII은 衛星국과 소련이 各各 強勢와 弱勢를 相對的으로 維持할 수 있을 때이다. 소련-北韓이 경우는 中, 蘇紛爭의 틈바구니에서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偏向的인 態度를 取함으로써 그 영향관계가 더 複雜해 질수있다.

따라서 北韓은 政策路線의 独自の追求나 후계과정에서 東歐圈보다는 外勢의 영향력을 덜 받을 수도 있으나 東歐圈과는 달리 中共과 소련이라는 두 宗主국으로부터 同時에 壓力을 받을 경우도 想定해 볼 수 있다.

공산국가의 후계과정을 연구하는 데는 아직도 구체적인 데이터 면에서나 또는 理論的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다. 지금까지의 分析은 共產黨의 承繼過程을 理論化시키는 하나의 試論으로서 시도해본 것이다. 이러한 理論에 구체적인 事例를 하나 하나 짚어 맞출 수는 없으나 우리의 分析의 視野를 높이는 데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이러한 理論에 기초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事例 즉 中共의 承繼過程을 追跡해 보고자 한다.

## Ⅱ. 中共權力承繼作業의 試行錯誤

- 毛沢東權威의 浮沈 -

中共에서의 後繼者問題는 대체로 毛沢東의 權威의 浮沈과 그 軌를 같이 하여 進行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毛의 權威가 理念的인 路線의 設定이나 政策決定에 있어 절대적인 影響力을 행사할 때는 後繼問題는 潛跡해 버리지만 毛가 設定한 理念이나 政策이 좋지않은 結果를 가져왔거나 失敗했을 경우, 그리고 그 結果로 그의 權威에 중대한 타격이 가해졌을 때 後繼問題는 現實的인 問題로 浮上하곤 했다.

다시 말하면 毛權威와 後繼者問題는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으나 그 兩者間의 浮沈關係는 逆相関關係를 맺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1959년 4월 27일 人民代表大會에서 劉少奇가 國家主席으로 當選되었을 때 毛가 推進했던 大躍進運動에 대한 引責의 냄새를 질게 풍겼고 사실 이때 毛는 그가 좋아해서 國家主席 자리를 劉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었다. 또 1969년 1월 8일 黨規約 草案에는 國防相 林彪를 毛主席의 가장 親愛하는 戰友요 後繼者로 삼는다는 것을 明文化했고 이 草案은 4월 1일에 열린 第九次 全黨大會에서 正식으로 承認을 받았는데 이때도 文化革命期間中 상당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林彪가 나중에 周恩來를 제치고 國家主席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毛沢東이 이를 반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林彪는 黨主席 자리를 毛의 손에 남겨두고 자기는 劉少奇 肅清以來 空席으로 남아 있던 國家主席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毛와 더불어 党和 政府의 分害占拠를 피한 셈인데 이것이 失敗하고 말았다. 毛가 林을 얼마만큼 後繼者로 생각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毛는 1965 년과 1970 년 두차례 그의 延安시절부터의 親友인 에드가·스노우를 만났을 때도 「곧 하느님을 만나보러 가겠다」는 말을 두뇌곤 했지만 毛가 이때도 정말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한말 같지는 않다. 그만큼 그는 生애의 집착이 컸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後繼者에게 모든 것을 내줄만큼 權力에 대한 그의 意志가 衰退했던 것은 아니었다.

毛가 後繼者가 必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아니 毛가 後繼者를 必要하다고 느꼈다가 보다는 後繼者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毛의 必要性을 점차로 덜 느끼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毛沢東은 1949 년 共產政權수립과 同時에 黨主席과 國家主席자리를 兼任함으로써 事實상의 1人者로 군림하게 되었다.

1950 年代初 中共黨은 여러면에서 指導層의 높은 團結을 과시한 것이 사실이다. 척어도 後日의 심각한 分裂과 指導者들간의 깊은 反目과 疾視를 생각해 볼때 그러하다. 그러나 이때도 異見과 分裂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毛沢東과 劉少奇 등 다른 幹部들과의 政策異見은 初級合作社의 結成進度를 싸고 1950 年代初반부터 있어왔고 1954-55 年間に 있었던 高崗과 饒瀨石의 肅清劇은 毛의 後繼자리를 노려서 벌어졌던 본격적인 싸움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다. 毛는 1950 年代初에는 두갈래의 勢力과 對立狀

態에 있었다. 한 갈래는 統治權力的 分散을 피하면서 高崗 등을 中心으로 東北地方에 「獨立王國」을 세우고 있던 勢力과의 對立이요, 또 다른 갈래는 毛의 急進的인 政策 특히 農業政策에 反對하여 革命의 계속보다는 守成을 주장하는 穩健官僚派와의 對立이었다. 前者의 地方分權主義的 傾向과 後者의 反革命的인 現狀維持路線은 強力한 中央集權的 統治下에 共產黨의 權威를 確立하고 中國을 統一한 餘勢를 몰아 社會主義革命에 拍車를 加하려던 毛에게는 다 못마땅한 일이었다.

毛는 指導體制 내에서나 政策路線에 있어서 다른 指導者들과 차츰 거리가 멀어짐을 느꼈을 것이고 사실 1950年代初의 中共에서는 이미 毛의 權威를 如何한 方法으로도 牽制해 보려는 움직임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阿片戰爭 이래 100년 이상의 內亂과 革命의 소용돌이를 겪어온 中國은 建國後 무엇보다도 安定과 秩序를 必要로 하고 있었지만 毛는 革命의 結實을 굳혀나가기 보다는 더욱 새로운 革命을 創造하겠다는 熱意에 불타 있었다. 이러한 毛의 態度를 牽制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劉少奇를 포함한 대부분 中央과 地方 指導者들의 意見이었다. 특히 地方指導者들은 土地改革으로 農民에게 分配한 땅을 다시 沒收하여 共同所有로 하자는 毛의 政策에는 積極적으로 反對하고 있었다.

國家副主席과 黨副主席으로 있던 劉少奇가 일단은 後繼線上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었지만 人民解放軍 總司馬로 있던 朱德도 「主席」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事態가 그대로만 進行되었더라면 毛는 아마도 後繼志望生들의 聯合戰線에\* 물려 孤立을

免치 못했을런지 모른다. 그런데 이때 高-饒事件이 터졌다. 高  
 崗은 1953년에 設置된 國家計劃委員會의 初代主任으로 第1次5個  
 年計劃을 推進할 最高위 政策實務責任者였고 그는 그 이전에는 東  
 北北區의 實質上의 一人者 노릇을 하던 強者였다. 한편 饒는 華  
 東北區의 軍政委主席과 黨組織部長의 經歷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  
 런데 1953년 饒 밑에서 華東軍政委副主席의 자리에 있던 譚震林이  
 主動이 되어 毛主席이 「休息을 취하도록」 요청하는 公開書翰을 毛  
 에게 보낸 사건이 일어났다. 이 편지 보내는 일에 主動이 되었  
 던 一團의 사람들은 高崗 등에게도 協力을 要請하는 한편 高도  
 이에 積極呼応, 首相이나 黨副主席 또는 黨總書記자리가 確保된다면  
 協力하겠다는 言質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이 毛  
 에게는 다시 党内指導權을 確立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로 포착되었  
 다. 우선 분명하게 저질러진 反黨行爲를 구실로하여 지나치게 強  
 大해진 政敵들을 하나하나 베어놓고 몰아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高崗은 劉少奇, 周恩來 등에게도 하나의 위협적인  
 存在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 사건에 관한 毛는 友軍을 얻은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毛-高間의 不和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이었  
 던가? 서만교수는 두 사람간의 개인적인 충돌외에도 經濟戰略, 政  
 府·黨機構의 運營에 대한 根本的인 異見이 있었다고 말한다.<sup>4)</sup>

註 4)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  
 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 268.

어쨌든 1955년 4월 當時 党秘書長으로 拔擢된 鄧小平의 報告에 기초하여 高-饒 두 사람에게 滿洲를 獨立王國으로 구축하여 党權을 奪取하려 했다는 罪名으로 肅清해 버렸다. 그들과 더불어 다른 7명의 幹部들(張秀山, 張明遠, 趙德尊, 馬洪, 郭峯, 陳伯村, 向明)도 肅清되었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가 高崗이하의 사람들이었다. 毛는 이 사건으로 다시한번 그의 權威를 再確認하였고 1955년에는 高級合作社運動을 強力迅速히 推進하라는 指示를 내리면서 一部の 党幹部들의 우유부단한 態度를 「纏足을 한 女人네들처럼 졸랑 거린다」는 비난을 퍼부을 수 있었다.

1945년 七全大會에서는 毛澤東思想이 맑시즘-레닌이즘과 같은 班列에 들어 党的 公式的인 指導理念으로 党憲에 収録되도록 採択된 바 있다. 그리고 土地改革, 初級合作社(1953), 高級合作社(1955)와 高-饒의 「反党」分子들을 肅清하는데 있어서 毛의 發言權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後繼競爭者들의 反毛挾攻作戰도 일단 수그러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毛의 權威는 1956년 2월 蘇聯의 20次全黨大會에서의 후르시초프 연설후 크게 挑戰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호」의 연설요지는 스탈린의 個人崇拜思想에 痛擊을 加하는 것이었고 世界共產主義運動의 支柱노릇을 해온 스탈린 神話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호」의 연설이 어떤 衝擊波를 가져왔는지는 東歐에서 거의 連鎖的인 政權交替波動이 일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스탈린의 好意로 또는 그의 비호하에 共產獨裁者가 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떨어져 나갔다. 폴란드에서는 Boleslaw Bierut 에서

Edward Ochab 로, 불가리에서는 Chervenkov 에서 Chivkov 로 바뀌었다. 더구나 헝가리에서는 共産國家에서는 類例가 없는 承繼危機가 뒤따르게 되었는데 1956 년 10 월 24 일 라코시 대신 Erno Gero 가 党第一書記로 党中央委에서 選出된지 불과 몇 시간후에는 Gero 가 전복되고 Ganos Kadar 로 바뀌는 事態를 몰고왔다. 이것은 Gero 選出後 바로 몇 시간전에 到着한 미끄얄과 스텔로프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sup>5)</sup>

中共党도 蘇聯의 20 次 全党大会에는 朱德을 團長으로하는 代表團을 보낸바 있고 「호」의 연설이 暗示하는바를 捕捉하는데 오랜 時間이 걸리지 않았다. 中共党은 「호」의 연설이 있는지 두달도 못되는 4 月에 政治局擴大會議에서 最小限의 毛의 名譽와 中共党的 名譽를 살리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1945 년의 党憲을 修正하는 일이었다. 이 党憲修正에는 ①毛沢東思想을 党的 指導理念으로 만든다는 條項이 削除되고 ②어떤 사람도 잘못과 失手를 저지룰 수 있다는 條項이 添加되고 ③모든 重要한 問題는 集團的으로 合意・決定되어야 한다는 條項이 追加되었다.<sup>6)</sup> 이러한 党憲修正은 그 해 9 月에 열린 八全大会에서 承認을 얻은바 되었다. 이때의 党憲修正에는 党主席이 党書記局의 主席職도 兼任한다는 條項이 잘려나가고 党總書記라는 새로운 職責이 創設되었는데 바로 第1代 總

註 5) Rush, p.92-93.

6) Conrad Brandt et al(ed), 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p.422-439.

書記에 選出된 사람이 鄧小平이었다. 毛와 鄧사이의 오랜 反目的  
씨는 이미 이때부터 뿌러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 黨憲은  
毛에게서 相當한 實權을 뺏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超越的 領導  
者로서의 權威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때 4명의 黨副主席 즉 劉少奇, 周恩來, 朱德, 陳雲이 選出되었다.  
毛가 八全大會 당시 얼마나 牽制를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두가  
가지 事實 즉 1954年 國務院의 組織改編으로 彭德懷가 國防相에  
任命됨에 따라 朱德은 軍總司令이란 職責에서 解任당하는 바 되었  
고 이것이 그의 黨主席자리에 대한 野心을 制御하기 위한 毛의  
策略에 無關하지 않았는데 八全大會에서 副主席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다는 것이고 또다른 사실은 毛의 가장 심복부하인 康生在 政治局  
員 자리에서 政治局候補委員으로 左遷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이미 앞서 毛沢東의 權威와 後繼者問題는 逆相關關係를 맺고 있  
다고 했지만 (다시 말해서 毛의 權威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後繼  
者問題는 보다 現實的인 問題로 浮刻되고 그의 權威가 높아지면  
질수록 後繼問題는 潛跡하는 現象) 毛는 그의 權威가 떨어질 때  
마다 언제나 政治의 領域, 活動의 領域을 넓힘으로써 그 失墜된  
權威를 回復하는 手段으로 삼는 長技를 보여줬다. 보다 密閉된  
政治局레 벨이나 中央政治의 무대에서 活動의 領域을 地方으로 넓힐  
뿐만 아니라 그의 權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鬭爭對象을  
提供함으로써 스스로의 保身策을 마련한다. 그 혼자의 힘이나 자  
기 심복부하의 힘으로 正面衝突하지 않고 挑戰者들에게 새로운 競

争状态를 만들어 준다. 以夷制夷라고나 할까? 또 毛는 언제나 政策問題에서 그의 政敵들보다 한발 앞서 機先을 制함으로써 挑戰者들을 圧倒한다. 1956-1958 年間の 狀況이 이러한 毛의 策略을 잘 反映해 준다. 한마디로 蘇聯에서 흐르시초프의 登場과 스탈린 格下運動, 그리고 그에 따른 衝擊의 波長은 毛沢東에게도 심각한 危機로서 물러오고 있었다. 八全大會에서 그는 거의 모욕에 가까운 冷待를 받았다. 黨憲修正에는 名譽主席이라는 글자 그대로 名譽職이 中共黨史上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자리는 말할 것도 없이 毛沢東의 명예로운 隱退를 위해 만들어놓은 陷穽이었다. 黨幹部들이 터놓고 말만하지 않았을 뿐 스탈린 꼴이 되고 싶지 않거든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노골적인 요구나 다름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毛는 이때 벌써 65세의 夕陽길에 접어든 老人이었다. 그에게 다시 時流의 大勢를 거역할만한 용기가 있을 것인가? 名譽主席으로서의 安樂한 老後를 마다하고 危險한 結果를 가져올지도 모를 高집을 부릴 것인가? 젊은 後繼者들과 對立을 繼續할 것인가? 사실 말이 젊은 後繼者들이지 劉少奇와 周恩來는 毛보다 꼭 5살 아래로서 그들자신 초조한 심경에 사로잡힐만한 나이였다. 毛는 여기서 大勢를 逆轉시킬만한 一聯의 路線鬭爭과 政策들을 案出해 내는데 그것이 「百花齊放·百家爭鳴」운동, 「反友派鬭爭」, 또는 「三面紅旗運動」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여러가지 運動은 그들 나름대로 각각의 目的을 가지고 展開되었으나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毛가 그 모든 運動을 發端시켰다는 것이요, 또 자신의 失墜된 權威를 回復시키는 手段으로서 利用하였다는 사

실이다. 毛는 이미 1956年 4月 한 地方幹部들과의 會合에서 政黨이 없어질 때까지는 多黨制를 갖는 것이 좋으며 合理的인 意見이면 누가 그것을 말하든 받아들여야 하며 또 民主諸政派의 人士들은 그들의 意見을 自由로이 開陳함으로써 共産黨과 더불어 「長期共存」하고 「相互監督」하자는 演說을 하고 한달후인 5月에는 最高國務會議에서 이를 다시 強調하였다.

「호」의 演說이 促發한 東歐에서의 自由化運動, 個人崇拜思想의 排斥이 未久에 자신에게 가져올 의미를 누구보다도 빨리 捕捉한 것이 毛자신이었다. 政敵들이 그 問題를 拳論하기 전에 毛가 먼저 그 問題를 들고나온 것이다. 1956年 10月에는 저 유명한 匈牙利暴動이 일어났으니 毛의 豫測은 的中한 셈이었다. 그리고 東歐에서 그때까지의 모든 執權者들이 가을 바람의 落葉처럼 떨어져나간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毛는 健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몰아내려는 또는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政敵들을 오히려 守勢에 물리게 하는 大反擊을 加했다. 그해 여름 毛는 楊子江에서 그 유명한 遊泳을 즐기면서 그의 健康을 万天下에 과시했는데 이것은 毛가 隱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内外에 明明白白히 밝힌 사건이었다. 그리고 毛는 여기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翌年(1957) 2月에는 「人民内部의 矛盾을 올바르게 處理하는 問題에 대하여」라는 演說을 하게 되는데 이 演說에서 毛는 共産主義社會에서도 矛盾이 存在한다는 사실을 認定하고 있다. 즉 毛는 共産主義社會에서도 「…政府와 人民, 國家의 利益과 個人의 利益… 領導者와 領導를

받는자들 사이에 矛盾이 存在한다」<sup>7)</sup> 고 말하고 人民内部的 矛盾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非敵對的인 說得과 對話가 필요하지만 「人民과 敵對의 矛盾」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敵對的인 힘의 行使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共產主義社會에서도 多種多樣한 矛盾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러 矛盾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人民에게는 民主主義를, 그리고 反動分子들에게는 獨裁를 해야한다는 것이 毛연설의 要旨였다. 毛가 이, 연설로 노린 効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때의 狀況으로 보아 두가지 점을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스탈린 格下運動으로 派生된 共產圈의 自由化 물결을 일단 不可避할 것으로 認定하고 그 물결의 餘波를 毛沢東類의 矛盾概念으로 受容하면서도 동시에 최소한도로 줄여보자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毛가 스스로에게 다가온 불길을 中共黨 全体에게 돌린셈이나 마찬가지다. 自由化의 불길은 毛라는 個人에게서 中共黨의 幹部들이라는 集團으로 옮겨간 것이다. 東歐에서의 自由化運動이 獨裁者를 몰아내는데 그치고 共產政權이나 共產黨 自体에 대해서는 화살을 겨냥하지 못한 반면 中共에서는 非難의 초점이 毛個人보다는 共產黨과 人民, 政府和 人民, 領導者와 人民이라는 보다 包括的인 矛盾關係에 集中되었는데 이것은 勿論 毛가 巧妙하게 事態를 그렇게 되도록 물고갔기 때문이다. 毛의 政敵들은 이런 면에서도 毛의 敵手가 아니었다.

---

註 7) Robert A. Bowie and John K. Fairbank, Communist China 1955-1959,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p.278.

둘째는 政策決定, 그 推進의 機先을 制함으로써 자기의 効用價值를 極大化시키자는 것. 毛는 이 두가지 目的에 다 成功함으로써 그의 權威를 回復하는데 成功했고 毛의 말대로 毛를 「生仏로 만들려는 企圖」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八全大會서 半公開的으로 推進되었던 毛의 隱退工作은 毛의 猛烈한 反擊에 따라 潛跡하는 듯 했으나 毛가 渾身の 힘을 기울여 推進했던 三面紅旗運動(社會主義總路線, 大躍進, 人民公社)이 支離滅裂, 흠이킬 수 없는 大失敗로 돌아가자 다시 表面化되기 시작했다. 毛는 다시 그의 權威에 중대한 挑戰을 맞게되었고 그 結果는 1958年 12月 國家主席 자리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이듬해 4月 國家主席 자리는 劉少奇에게로 돌아갔고 劉는 國防委員會主席 자리까지 兼任하게 되는 莫強한 實力者로 浮上했다. 劉는 이제 단순한 推定後繼者가 아니라 確定後繼者로 完全히 올라선 듯 했다. 毛는 國家主席 자리만 내놓았을 뿐 黨主席 자리는 지키고 있었으니까 毛의 權力이 다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殘命이 남아 있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毛의 第二의 反擊은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 1954-55年의 高-饒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毛로서는 反擊의 資料로 삼을 수 있는 또다른 구실을 얻게 되었는데, 그 구실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아닌 國防相인 彭德懷였다. 彭은 1959年 4月 24日부터 6月 2日까지 東歐各國을 巡訪하고 돌아오자 八月에 廬山에서 열린 八全大會 八中全會에서 毛沢東의 無謀한 經濟政策을 公開的으로 공격

하였다. 그는 軍의 現代化를 위해서는 蘇聯과의 友好的인 同盟關係를 持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東歐巡訪中에는 후르시초프를 만나보고 毛의 政策을 非難한 것으로 알려졌다. 彭은 獨立不羈의 武骨로서 八中全會의 代表들에게 毛의 人民公社와 大躍進運動을 공격하는 意見書를 配布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彭은 私席에서도 헝가리사건과 같은 民衆蜂起가 일어나도 人民解放軍은 介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도 한다.

이때의 狀況으로 보아 劉少奇 등의 幹部들이 彭과 步調를 취해 毛를 공격했다면 中共에서의 後繼問題는 진작 결판이 났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劉 등은 彭의 意見에 全적으로 共感하면서도 彭을 편들지는 않았다. 毛를 더 자극하지 않고 그의 体面을 살려 주되 서서히 말썽없이 그를 물려서게 하자는 것이 그들의 숨은 의도였을런지 모른다. 어쨌든 이 사건은 毛의 体面을 살리는 선으로 낙착되었고 親蘇派인 張聞天(外交部副部長)과 彭의 直系部下인 黃克誠(軍總參謀長·國防部副部長), 洪學智(軍總後軍部部長), 周小舟(湖南省委員會 第一書記) 등이 肅清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彭의 敗北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毛가 勝利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毛가 推進해 왔던 一連의 政策들은 이제 거의 放棄狀態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人民公社가 解体된다든지 自留地가 復活된다든지 市場機能이 強化되어 自由로운 流通秩序가 回復되기도 했고 「能力에 따라, 必要에 따라」生必需品을 供給받는다든가의 尤토피안니즘은 이제 한낱 웃음거리로 밖에 취급되지 않

않았다.

특히 彭真 휘하의 北京市党은 完全 反毛沢東人士들로 가득차 있었다. 彭真이 党書記局의 有力幹部로 鄧小平 등과 親切한 사이인 것을 볼때 毛를 겨냥한 勢力이 누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北京副市長인 吳晗을 중심으로 「三家村그룹」을 형성하고 있던 鄧拓 廖沫沙 등은 三家村札記를 北京市党 기관지에 連載하면서 「偉대한 空言」이라는 풍자수필을 통해 毛의 虛張盛勢를 비웃었다. 吳晗은 또 毛를 惡德君主로, 彭德懷를 善政을 베푸는 官吏로 비유하는 「海瑞罷官」이란 史劇을 써서 毛를 한낱 조롱거리로 삼은적도 있다. 사실상 이때의 中共의 權力은 劉少奇, 鄧小平, 彭真, 周恩來 등 몇몇 黨僚와 國務院幹部들의 掌中에 있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毛로서는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試鍊을 겪고 있었고 그에게는 서서히 權力의 終末이 다가오는듯 했다. 毛의 後繼者는 이제 劉少奇로 굳어지는듯 했다. 毛가 나중에 「그들은 나를 葬禮式에서 죽은 父母 다루듯 했다」든지 「鄧小平은 1961年 이래 나에게 黨務조차 보고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불평을 한 것으로 보아 毛가 이 시절 깊은 좌절의 늪속에 빠져있었고 그의 競爭者들은 반대로 活潑한 權力移讓作業을 벌이고 있었다.

毛가 1962年 再起의 꿈을 다지면서 文化革命으로 乾坤一擲, 反對派들에게 決定的인 匕首를 뽑아들이기까지는 하나의 긴 忍苦와 困苦의 날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毛는 文革期間中인

1968年 10월에 있었던 八全大会의 12次 中央委員會 全体會議에서 劉少奇를 「黨内外의 모든 職責에서 추방한다」는 黨의 決議를 얻어 내는데 成功함으로써 일단 毛와 反對派들의 싸움은 일단락을 지은 셈이다. 劉는 文革期間中 大衆集會에서의 自己批判, 序列降等 등의 지루하고 모욕적인 과정을 거쳐 드디어는 쫓겨나는 悲運을 맛보게 되는데 毛로서는 철저한 복수劇을 벌인 셈이다.

毛沢東이 後嗣問題를 어느정도 자신의 選擇權에 따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 毛는 오히려 後繼者를 내지 않겠다는 싸움을 벌여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毛의 긴 싸움의 內容은 당연히 그의 後嗣決定計劃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強力한 後繼者는 獨裁者 生前에는 하나의 威脅이 되고 懦弱한 後繼者는 獨裁者 死後에 承繼할 能力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毛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 Ⅲ. 毛沢東承繼体制의 特徵

後繼者問題에 관한 毛沢東처럼 허다한 迂餘曲折과 試行錯誤를 겪은 사람도 없다. 源泉的으로 그 原因은 毛가 世界歷史上 類例 없는 長期執權의 經歷을 누렸다는데 있는지 모른다. 政治의 領域이라 必然的으로 競争을 隨伴하는 것이고 그 競争이란 嚴格히 말해서 權力에 대한 鬪爭인 것이다. 毛는 따라서 그 權力鬪爭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에 따른 曲折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일수 밖에 없다. 毛가 權力鬪爭에서 結果的으로 항상 勝者로 浮刻될 수 있었던 것은 勿論 그의 지도자로서의 타고난 天性和 資質에도 깊이 연유하겠지만 주로는 세 가지의 각각 다른 그러나 連關的인 要素에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毛는 무엇보다도 理念的으로 다른 指導者들을 壓倒할 수 있었다. 이것은 毛가 그의 政敵들보다 한수 앞서서 事態를 볼 줄 아는 政治的인 洞察力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共產主義는 이미 하나의 定해진 進路를 向해서 不斷히 前進한다는 歷史的인 圖式을 갖고 있지만 오늘날의 世界 共產主義에서 보듯 대부분의 共產國家들은 스스로 設定한 理念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全体主義的 官僚體制의 硬直된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毛처럼 자기 스스로가 建設해 놓은 權威의 牙城을 스스로의 힘으로 때려 부순다는 것은 共產主義歷史上 일찌기 없었던 일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破壞된 牙城위에 더 큰 權威의 城을 세울수 있었다는데 毛沢東의 奇異한 카리스마의 힘이 있는지 모른다.

毛가 단순한 理想主義者였다면 아마 트로츠키 정도의 革命家로 轉落했을 것이다. 단순한 理想主義者나 剛直한 理念主義者는 흔히 革命段階에서 大衆을 끌어모으는 선동가나 革命을 嚮導하는 機能을 發揮하나 革命의 성과를 다지고 지켜나가는 데는 失敗하는 경우가 많다.

毛는 「政治權力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輿論을 일으키고 理念的인 分野에서의 作業을 해야 한다」<sup>8)</sup> 는 말을 했지만 모태 알 같은 군중들을 움직이는 힘, 그 힘을 毛는 그의 郡衆路線으로 集約해 놓았다. 그러나 毛는 理念을 언제나 구체적인 政策을 實現하는 手段으로 삼았을 뿐이다. 여기 毛가 成功한 둘째의 要因이 있다. 毛에게 있어 추상적인 理念과 具體적인 現實의 政策은 相互補完적인 表裏關係를 이루고 있다. 毛에게 理念이란 그 자체가 目的은 아니고 手段과 目的이란 두가지 機能을 동시에 充足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具體적인 內容을 갖지않는 理念이란 하나의 空疎한 理論에 지나지않고 또 理念的인 뒷받침을 받지않는 政策이란 俗惡한 부르주아적 멘타리티의 所産이란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毛는 權力鬭爭을 政策對決로 轉換시키는 드문 재수를 가지고 있었다. 政策이란 外皮로 둘러친 權力鬭爭은 그 鬭爭이 싸울 價值가 있다는 名分을 提供해 주고 그리고 權力鬭爭의 赤裸裸하고 추악한 裏面을 드러내놓지 않아도 된다. 毛의 權力鬭爭이 대부분 理念鬭爭으로 粉飾되는 理由가 여기 있다. 그리고 名分을 내세운

---

註8) Edgar Snow, The Long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72. P.90

鬪争에서는 毛가 언제나 승리하게 마련이었다. 이것은 그가 現實主義者인 同時에 理想主義者였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의 政敵들은 대부분 理想主義者였거나 現實主義者였거나 어느 한쪽이었지 두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드물었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毛가 양날(刀)을 가진 칼을 휘두를 수 있었다면 그의 政敵들은 그 한면만 쓸 수밖에 없었다. 毛가 그의 政敵들의 挑戰으로 權威가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政策을 들고 나오는 것도 따라서 당연한 일이었다.

도크·바넬트는 毛의 權威의 浮沈현상을 特別로 나눠 1945년에는 上昇→1949년에는 下降→1950年代上半期에는 上昇→1956년에는 下降→1958년에는 上昇→1960-61년에는 下降→1962년에는 上昇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sup>9)</sup> 올바른 評價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했거니와 毛가 새로이 政策을 내세우거나 그 政策이 成功한 때는 毛의 權威가 上昇氣流를 타는 때이고 그것이 失敗하든지 나쁜 결과를 가져온 때는 그의 權威가 下降氣流를 타는 때이다. 1945년에는 毛가 1942년부터 시작한 整風運動이 그 實을 거두고 다시 國府軍과의 內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을 때이고 1950年代 上半期는 그가 土地改革, 初級合作社를 추진하던 時期고 1958年은 大躍進, 人民公社를, 1962년에는 社會主義教育運動을 추진하던 때이다.

1965년부터 毛의 權威가 急上昇, 個人崇拜에 까지 이르게 되는

---

註9) A. Doak Barnett,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 Mao*,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P.193

것도 文化革命이라는 지극히 理想的인 大衆運動을 그의 힘으로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毛의 權威가 下降하는 때는 安定과 秩序와 各種運動의 失敗로 생겨난 弊와 害를 修하고 補하는 期間이므로 이때는 자연히 현상유지를 더 重하게 생각하는 劉少奇 등의 黨僚와 官僚들이 더 得勢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들이 得勢하는 만큼 毛의 權威는 떨어지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劉少奇가 한때 中共의 發展패턴을 말안장(馬鞍)과 같은 U型이라고 비평 것도 毛의 의도를 看破한 말인지도 모른다. 사실은 U型 패턴이 아니고 W型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劉가 U型이라고 한 것은 文化革命을 豫測하지 못한 希望的觀測이었다. 어쨌든 理念의 뒷받침을 받는 政策, 政策의 뒷받침을 받은 理念은 毛沢東의 重要한 武器였다.

또 毛는 理念이나 政策을 훨씬 넓은 領域 즉 政治를 水平的인 레벨에서 幹部들에게 局限시키지 않고 垂直的으로 上·下 貫通하는 大衆의 政治, 公衆의 政治로 끌어 내렸다 이것은 勿論 毛가 中共 政治에 民主主義的인 方式을 導入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公衆의 힘을 政治에 끌어 들였다는 뜻이다. 다른 의미에서 毛는 현대 全体主義의 성격을 잘 把握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造反有理」라는 文革의 구호는 최종적으로 權力の 向方이 大衆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衆徵的으로 나타낸 말이다.

毛의 이러한 政治作用은 東歐나 蘇聯 그리고 北韓에서 일어나고 있는 權力鬭爭의 樣相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 왔다.

毛는 이상 세가지 요소, 理念, 政策, 大衆 세가지를 必要에 따라

잘 配合해서 요리할 줄 알았다.

中共에서의 後繼問題는 文化革命을 分岐点으로 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 文革을 시작하면서부터 毛에게는 前例없던 個人崇拜에 따른 神格化 현상이 일어난다. 둘째는 1971年 林彪의 反逆事件에도 不拘하고 文革後에는 後繼問題는 온전히 毛의意志에 의해서 左右되는 様相을 띤다. 셋째는 權力鬭爭이 보다 노골적인 樣態를 띠면서 承繼權을 念頭に 둔 派閥의 雜合集散이 보다 뚜렷하게 表面化된다. 적어도 1969年의 九全大会와 1973年의 十全大会, 그리고 1977年 毛死後 열린 十一全大会에서의 權力分布는 承繼를 분명히 생각하고 짚 자리의 按配요 布石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毛는 党的 進路를 결정하고 政策의 大綱을 定하고 方向을 設定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런일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다. 이를테면 建築으로 말하면 그는 設計士지 現場監督은 아니었다. 毛는 戰術의 能手라기 보다는 戰略의 名手였다. 그는 政策実行의 구석구석을 돌아 보면서 確認하고 叱咤하지 않아도 그의 權威를 지킬만큼 충분한 權威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共產國家 指導者들은 거개가 權威의 分配者로서만은 만족하지 않는다. 權威를 分配하는 役割과 実行하는 두가지 機能을 다 独占함으로써만 만족을 취하는 것이 常例다. 安定된 權力承繼를 위해서도 두 機能이 한사람에 의해서 独占되기 보다는 分散되어 行事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두 機能을 独占하고 있던 超越者가 사라지고 나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權威의 空白이 생기게 마련이다. 반면 權威의 分配者와 実行者가 區別되어 있는

共産國家에서의 權力承繼의 위기란 흔히 새로운 後繼者가 權威의 分配者와 實行者라는 두가지 機能과 속성을 동시에 創出해 내는 힘겨운 役割을 부여받는데서 주로 연유하는 것이다. 中共의 경우 이 두가지 機能은 처음부터 確然히 나뉘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毛東에게 後繼者問題에 대한 危機가 있었다면 그것은 權威의 實行者 그것으로서만 만족하지 않고 毛의 權威의 独占領域인 分配者로서의 役割까지 뺏으려고 하는데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劉少奇와 林彪는 權威의 實行者로서 權威의 分配機能까지 넘보다가 終局에는 實行者로서의 機能까지 剝奪당한 셈이다.

共産國家의 安定된 承繼는 理想的으로 말한다면 後繼者가 權威의 實行者의 機能에서 分配者의 機能으로의 移行役割만을 賦與받았을 때 가장 쉽게 이뤄질 수 있다. 毛沢東도 이 問題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文革이 한창 進行中이었던 1966年 10月 25日에 열렸던 中央工作會議에서 毛는 「원래 國家 安保와 스탈린의 承繼와 關聯하여 얻은 教訓때문에... 나는 二線에 머물렀고 다른 同志들은 一線에 있었다. ... 나는 二線에 있었기 때문에 日當的인 일들은 하지 않았다. 다른 同志들이 많은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權威가 생겨나고 그럼으로써 내가 죽어도 國家는 큰 混亂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 (그러나) 一線의 同志들은 일을 적절하게 處理하지 못했고 또 나도 내가

---

註 10) 拙稿, "中共의 새 指導체제의 分析"  
國際問題, 1977. 10月号, PP. 55-56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나에게도 責任이 있다. ... 17年 동안 一線과 二線은 團合되지 못했었다.」<sup>11)</sup>

毛가 말하는 "一線", "二線" 하는 것도 앞서 말한 權威의 分割機能을 말하고 있다. 毛도 一線과 二線( 필자가 말하는 權威의 実行機能과 分配機能)이 한 사람에게 의해서 独占될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졌을때 일어날 수 있는 危險性을 充分히 알고 있었다. 「國家安保」와 스탈린 死後에 일어난 일들에서 얻은 교훈으로 해서 두 機能의 分割이 必要했다고 말하고 있다. 毛가 인정한대로 왜 이 機能의 分割遂行이 円滑하게 作用하지 않았던가? 그것도 17年 동안이나!

理論적으로 말한다면 權威와 權力은 相互 補完的이지만 別個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政治的領域에서의 權威라고 할때 그것은 當然히 權力의 뒷받침을 받는, 權力이 지니는 여러가지 物理的制裁機能을 前提로 해서만이 그 의미가 成立될 수 있다. 그러나 權威의 속성은 힘을 使用하지 않을때 發揮되는 것이지 "힘"에 의한 威脅, 또는 行使의 段階에까지 이르면 그것은 이미 權威(Authority)가 아니라 權力(Power)의 次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반면, 權力 그 자체가 權威를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權威는 "上"(Super ordnung)과 "下"(Subordnung)

---

註11) Joint Publications Research Service, NO 90, Selections from Chairman Mao, Myron Rush, Loc. Cit, P. 253, 註4에서 再引用.

사이의 價値의 共有性, 價値의 連帶性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權力은 物理的 制裁의 可能性에 따른 威脅에서 服從關係가 成立된다. 12)

毛의 活動領域이 主로는 理念的인 또는 共產主義가 갖고 있는 "價値"를 解釋하고 그 의미를 再賦與하고 國民들에게 注入시키는 役割이라면 그의 同志들이 하는 일은 理念에 따라 設定된 여러 政策들을 實踐에 옮기는 役割이다. 그리고 그 實踐過程에서는 勿論 強制性이 前提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毛沢東이 바라는 "一線"과 "二線"의 團合이라는 것도 兩者가 서로의 領域을 侵犯하지 않을때 可能하지만 그러나 "一線"이 "二線"의 權威에 順從하고 服從할때 可能하다. 왜냐하면 概念的으로나 실제적으로나 "二線"(權威)은 "一線"(權力)보다 系序上的 優位에 서야 하며 位階線上에서 毛는 그의 同志들보다 上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理論的인 觀點을 떠나 兩者가 실제로 確然하게 分離되어 그 各各의 固有한 機能과 役割을 지킬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따른다. 充分한 資格과 經驗과 기반을 쌓은 權力者란 조만간 權威의 分配者에게 挑戰할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또 權威를 侵蝕당하는 權威의 分配者는 權威의 實行者의 忠誠을 試驗해 보기 위해 자기가 "委託"했던 權力마저 뺏으려고 시도해 볼런지

---

註 11) 權威(authority)와 權力(Power)의 概念에 대해서는 Peter Blau, "Critical Remarks on Weber's Theory of Autho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VII, NO. 2(June 1963), PP.306-308

모른다. 毛沢東과 劉少奇, 毛와 林彪, 毛와 華国鋒의 관계는 中共政治에서 이 두가지 機能을 각각 代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權威의 分配者와 實行者라는 것은 民主主義國家의 內閣責任制下에서 發見되는 大統領과 內閣首班과의 關係보다는 大統領制下에서의 大統領과 內閣首班과의 關係와 비슷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共產國家 특히 中共政治의 脈絡에서 본다면 毛沢東은 무엇보다도 共產革命의 一級元勳으로써 갖는 威光때문에 또 공산당이 갖는 鉄拳的인 統治戒律때문에 大統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權威를 누렸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一線"과 "二線" 또는 權威의 分配者요 實行者라는 機能의 分割이 可能했던 것이다. 그러나 兩者가 適正한 均衡關係를 취해서 能率的인 統治體系를 이룬다는 것은 中共에서조차 어려웠다. 그러한 適正한 均衡關係가 이뤄졌을 때 中共指導層은 가장 잘 團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均衡關係가 어느 한쪽으로부터 치우치가 시작하면서 指導層의 分裂은 싹트기 시작했고 文化大革命에서 그 均衡은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均衡의 鍾은 完全히 權威의 分配者인 毛沢東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毛는 文革期間中이나 그 이후에도 이 두가지 機能은 分離시켰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文革以前과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毛는 그자신의 연령으로 보아 두가지 機能을 独占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도 하지만 文革以前의 경험으로 보아 단순히 權威의 分配者 機能만으로서는 그 자리의 保持가 어렵다는 結論을 내린 것 같다. 이러한 생각에서 派生된 현상이 分配者의 機

能을 神聖不可侵으로 神格化시키는, 그리고 分配者의 思想을 体制의 한 屬性으로 固着化시키는 作業이 必要하다고 느낀것 같은데 이것이 毛의 個人崇拜思想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사태의 當然한 歸結이다. 13)

둘째는 文革以前의 中共指導体制內에서의 均衡은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一線" 對 "二線" 즉 毛의 同志對 毛沢東 자신이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政治局의 常務委員會의 幹部對 毛 개인의 對決이었는데 文革以後에는 政治局常務委員會의 各派閥間의 對立으로 變했다. 毛는 다만 超然한 자리에 앉아 이 派閥들이 벌이는 싸움을 구경하면서 反則者에게는 警告를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退場을 命하기도 하는 일종의 審判官의 役割을 했다. 또 단순한 審判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得勢하든지 失勢하든지 하면 必要에 따라 毛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느 쪽으로든 기울여서 大勢를 左右하기도 한다. 毛는 이를테면 調整子, 均衡子 또는 平衡器로서의 役割만을 함으로써 누구도 犯接할 수 없는 安定된 權威의 자리를 구축했다.

老·壯·靑의 三結合이란 다르게 아니라 바로 相互牽制, 相互監督하기 위해서 必要했던 것이다. 말은 "三結合"이라고 했지만 年齡, 經驗, 利害關係가 다른 老·壯·靑이 어떻게 結合할 수 있는가? 그 실제적 의미는 "三結合"이 아니라 "三分裂" 함으로써 毛의

---

註 13) 毛沢東의 個人崇拜와 關聯된 카리스마의 屬性에 대해서는  
拙稿 "毛沢東의 카리스마 研究" 政經研究, 1976年 10月号,  
PP.66-87

仲裁權, 毛의 調整權이 極大化될 수 있는 狀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정말 老·壯·靑이 三結合하면 그것은 곧 毛權威의 終末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三分裂"해서 相互相關하고 牽制하는 機能이 가장 잘 發揮될때 毛의 權威는 가장 高揚되고 毛의 思想도 성공적으로 伝襲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었던 것이다. 毛는 老·壯·靑이 글자 그대로 三結合해서 挑戰해 오지 않는限 文革前과 같은 追從者들의 "大量背信"은 있을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 林彪의 背信은 그 真相이 확실히 알려진게 없으나 文革前의 劉少奇의 公開發的인 挑戰 또는 指導者들의 聯合에 의한 挑戰과는 狀況이 다른 이룰테면 하나의 陰謀와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文革以前과 마찬가지로 權威의 二機能은 分離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毛沢東의 權威는 個人崇拜思想으로 体制의 한 部分이 되고 "聖域"의 威儀를 갖게된 반면 그의 準競爭者들의 처지는 相對的으로 弱化되었다. 毛와 幹部들의 權威의 按配에 따른 均衡은 毛에게 圧倒적으로 傾斜된채 均衡을 이루게 되었다. 不均衡한 상태에서의 均衡, 이것이 三結合의 原則에 따라 固定된 毛와 그의 後繼者들과의 關係였다. 三結合이란 참으로 毛沢東다운 妙案이었다. 老·壯·靑이란 百年後에도, 千年後에도 그 効用성을 잃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壯도 늙으면 老요, 靑도 나이 먹으면 壯이 되니 老·壯·靑이 三結合을 마다 할수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三結合은 연령적인 의미에서 新과 旧, 理念에 있어서의 保守와 進歩, 統治方法에 있어서의 牽制와 均衡을, 力學的인 의미에서의 힘의

均配를 완벽하게 갖춘 일종의 体制安全瓣이 된 셈이다.

三結合은 일종의 集團指導制다. 그러나 文革以前の 集團指導制와는 判異한 성격을 갖게되었다. 文革以前の 그것은 주로 政治局常務委員을 두고 하는 말이다. 政治局員中에서도 要人만 다시 골라내어 구성된 것이 常務委員이니 이것은 곧 核속의 核이라 할 수 있다. 그 멤버는 누구나 後繼者가 될 資質과 經歷을 쌓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核心멤버들은 毛와 一生을 同苦同樂해온 글자 그대로 毛의 同志요 同僚들이었다. 따라서 毛에 대한 이들의 發言權은 文革後 毛에 의해서 任命된 사람들과는 本質적으로 달랐다. 文革前의 멤버들에게는 毛자신도 그들의 去就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경력과 党内基盤을 쌓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豊富한 党歷과 그리고 이미 試驗된 忠誠이라는 客觀的基準에 따라 權力의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들이라면 文革以後의 멤버는 거개가 毛의 好意와 江青과의 親疎와否에 따라 任命된 사람들이다. 中共版 네포티즘의 産物들이다. 그래서 文革以前の 멤버들은 七全大會以後 거의 交替가 없다 싶어졌고 人員도 少数精銳였다. 七全大會에서 選出된 書記處(政治局 常務委該當)의 멤버는 毛沢東, 劉少奇, 周恩來, 朱德, 陳雲의 다섯명이고 1956년에는 鄧小平이 添加되고, 1958년에는 林彪가 들어앉는 대신 나중에 陳雲이 脱落되었다. 어쨌든 그 본래의 멤버는 陳雲을 매번 상당한 持續性을 維持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1969년의 九全大會에서 選출된 政治局常務委 멤버에는 劉, 朱, 鄧, 陳雲은 다 떨어져 나가고 毛, 林彪, 周恩來가 남았을 뿐 새로이 毛의 心服인 陳伯達, 康生이 들어 앉았다.

陳은 1970年 肅清당했지만 한때 모의 秘書를 지낸바 있고 中共의 배리이라고 불리던 康生도 毛의 手足노릇을 하던 사람이다. 다시 1973年의 十全大會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常務委의 멤버수도 늘었지만 名實共히 三結合의 按配原則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다. 그 面面을 보면 常務委主席에 毛, 그리고 5명의 副主席에 周恩來(老), 王洪文(青), 康生(壯), 葉劍英(老), 李德生(老), 朱德(老), 張春橋(壯), 董必武(老) 등으로 老·壯·青의 均衡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의 선출에는 勿論 毛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逐出된 黨幹部들을 대신하기 위해, 또 常務委의 權威와 黨의 法統性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朱德과 董必武같은 元老를 추가했으나 그 구성원들의 能力이나 權威가 건만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어떻든 이렇게해서 毛의 지위는 확고하게 되고 毛思想은 體制化되고 後繼를 위한 作業은 毛의 의사대로 본격적으로 着手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毛의 個人崇拜에 대해 잠간 言及하기로 하겠다.

文革以前 한때 毛에게는 個人崇拜가 必要없을 만큼 그는 充分한 權威를 누리고 있었다. 또 사실 蘇聯과는 달리 中共에서는 거리나 都市이름에 어느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命名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文革에 즈음해서는 失墜된 權威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毛에 대한 個人崇拜는 必要해졌다. 毛자신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1970年에 가진 에드가·스노우와의 會見에서 그의 統制를 벗어난 黨活動을 장악하기 위해, 그리고 反毛分子들을 除去하기 위

해 個人崇拜는 必要했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14) 따라서 個人崇拜는 權力的 失地回復을 위해 考案된 窮余之策이다. 毛는 個人崇拜를 변명하면서 中國인들이 3千年 지켜온 皇帝崇拜의 습관을 버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毛는 또 「美國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個人崇拜를 갖고 있지 않느냐? 各州의 知事 또는 大統領이나 長官들도 그들을 崇拜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崇拜를 당하고 또 崇拜하고 싶은 慾望이 언제나 있는 법이다. 만약 당신이 책이나 記事를 읽어주는 讀者가 없다면 당신은 행복하겠는가? 약간의 個人崇拜란 의례 있게 마련이며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오랜 친구인 스노우記者에게 털어 놓았다. 15) 毛는 또 후르시코프도 個人崇拜를 얻지 못해 失權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毛가 個人崇拜가 必要하다고 생각한 이유중에는 毛沢東思想이 맑시즘-레닌리즘과 같이 中國共產革命의 教條的 正統性的 상징으로 남아 있음으로 해서 그가 追求해 마지않던 不斷革命을 永続化시킬 수 있는 根柢를 提供해 주고 또 毛思想에 대한 背信은 곧 共產革命에 대한 背信이 된다는 政治的等式을 후계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죽고난 다음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遺志를 잘 받들어 줄 것인가 또는 革命이 腐敗하지 않고 不斷히 새로운 價值가 創造되는 끊임없는 變化와 革新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註 14) Snow, Loc. Cit, P, 169

註 15) Snow, P. 170

한편, 그는 未來에 대해 극히 悠悠自適한 樂觀이랄까 達觀에 가까운 意見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스노우에게 未來의 世代는 그들대로의 目標가 있을 것이고 500年, 1000年 後에는 맑스나 엥겔스도 우습게 생각될게 아니냐는 극히 觀照的인 態度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毛가 겉으로 平靜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때 그의 가슴속에는 오히려 熱火같은 情熱과 치밀한 計劃이 자리잡고 있기가 일쑤였다. 이를테면 毛는 文化革命前夜에도 스노우를 만나 「곧 神을 보러가게 될것」이라는 말을 했고 우울한 蟄居生活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은 그의 政敵들을 誘導하기 위한 일종의 陽動作戰이었다는 것이 스노우의 판단이다. 16)

어쨌든 毛沢東에 대한 個人崇拜思想은 文化大革命이라는 世界歷史上 前無後無한 變革의 渦中에서 製鍊되고 精鍊되고 鑄造되어서 뚜렷한 이미지와 내용과 形態를 갖추고 그 鑄型을 中共의 共產體制라는 政治「오브제」에 뚜렷한 윤곽을 남기게 되었다. 좋은 싫든 中共의 政治體制는 그 찍혀진 鑄型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밖에 없게끔 體制속에 毛思想은 內在化 되었다.

그러나 毛沢東의 承繼作業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에는 뜻하지않은 汚點과 伏兵이 박혀 있었다. 그것이 1971年の 林彪의 反逆事件이다. 그러나 林彪事件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毛沢東이 文革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代價였다. 文革의 損益計算表에 그것을 記帳해

註 16) Snow, P.80

놓지 못한 것은 毛의 失手였는지 모른다. 林彪는 1958年, 그러니까 彭德懷肅清이 있기 이미 1年前에 國防相인 彭을 누르고 政治局의 常務委員이 된 以後 毛에게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 唯一하게 의지할 수 있는 支柱를 提供해준 사람이다. 中共政治를 받치고 있는 세계의 權力支柱는 黨·政·軍이다. 黨은 大躍進前에 이미 劉少奇, 鄧小平의 수중으로 떨어졌고 軍도 彭의 毛에 대한 抗拒가 보여주듯 毛의 統制를 벗어나 있었다. 政治의 力學的인 歸結로 보아 黨·軍이 反毛戰線을 形成하는 경우 周恩來휘하의 “政”(行政府)도 黨·軍의 聯合戰線에 合勢할 것은 뻔한 理致였다. 周恩來는 비교적 親毛의忠誠을 견지해 왔었으나 그러나 明白히 勢不利한 狀況에서 그러한 忠誠이 發揮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彭德懷는 國防相을 解任당한 후에도 政治局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만약 劉少奇, 鄧小平등이 党中央委의 承認을 거쳐 그를 復權시켰던들 毛는 두손 들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千慮의 一失이랄까. 劉, 鄧은 앞서 말한대로 毛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 彭을 지지하지 않았다. 毛가 이 失手를 利用하여 그리고 林彪를 重用하여 國防相에 앉히고 다시 그에게 依托하여 軍의 支持를 얻지 못했던들 毛는 文革을 일으킬 수도 成事시킬 수도 없을 뻔 했다. 그러나 林彪는 毛思想의 챔피언이 되었고 文革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우고 1969年의 九全大會서는 黨憲에 毛의 후계자로 登場하게까지 되었다. 여기까지는 毛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사태의 必然的인 歸結이었다. 文革때 軍의 役割을 생각해 보면 이는 쉽게 이내될 것이다. 林彪가 지나치게 일을 서둘러 反毛作

戰을 펴고 悲劇的인 최후를 마친 것은 林의 自業自得이었다고 할  
 까. 그러나 설사 林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毛  
 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承繼過程에  
 서 軍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절대 必要하지만 軍 하나만으로 承繼  
 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는 어렵겠기 때문이다. 또 毛의 비호하에  
 움직이는 軍과 그의 支持가 철회된 軍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軍이라곤 하지만 12個 軍區가 林彪의 명령에 따라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軍内の 支持분포도 여러갈래라는 것은 毛  
 死後 承繼過程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분명해진 사실이다. 林彪事件  
 은 결과적으로 毛의 不死鳥같은 끈질긴 政治的生命力을 다시 한번  
 돋보이게 해줬고 또 毛로 하여금 후계문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毛는 이제 그로서는 한번도 시험해  
 보지않은 後繼計劃을 세운것 같았다. 그는 強力한 後繼者가 있음  
 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성을 充分히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반대  
 의 경우 즉 아주 弱質의 후계자를 세워 놓았다. 그 후계자가  
 바로 毛의 故鄉인 湖南省의 湘潭에서 농업전문가로 변변찮은 地方  
 官僚로서의 出世街道를 달려오던 華國鋒이다. 華는 1972년에 副  
 首相兼 公安相이 되고 다시 首相署理, 그리고 毛가 죽자 党主席,  
 首相이 되었다. 綺羅星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華가 후계자로 오른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길이 없다.  
 다만 毛沢東의 心中을 헤아려 추리해 보는 수밖에 없다.

첫째 華는 政治的으로 無色투명한 中立的 人物이다. 다른말로  
 그자신의 강력한 政治的 所信이 없는 사람이다. 이 政治的 中立

性, 無色性이야말로 華가 拔擢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政治적으로 強한 所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만간 그 자신을 주장하고 드러내보일 영똥한 짓을 하게 될 可能性이 농후하다. 毛로서는 이런 후계자는 養虎憂患의 근심을 주는 위험人物일 뿐이다. 中共政治는 文革以來 三結合原則에 의해서 急進派와 穩健派, 進歩派와 保守派, 그리고 黨·政·軍이 서로의 牽人力을 틀고 잡아 당기는 힘의 均衡狀態가 維持되어 왔다. 力學的인 의미에서나 또 中共政治의 實際에 있어서나 對立하는 左·右의 두 세력간의 均衡을 맞추기 위해서는 큰 힘이 들지 않는다. 毛는 生前에 힘 안들이고 지나치게 得勢하는 쪽은 牽制하고 지나치게 失勢하는 쪽에는 힘을 빌려 줌으로써 均衡子로서의 役割을 쉽게 해낼 수 있었다. 毛의 후계자는 이미 이렇게 꼭 짜여진 政治의 틀을 운영하기만 하면 되는 消極的인 役割만을 부여받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獨自的으로 強大한 힘을 가진 사람이나 政治的 所信이 뚜렷한 人物보다는 華國鋒같은 사람이 더 適格인 것이다. 그리고 華에게는 그의 자리를 維持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毛의 後嗣로서의 法統性을 인정받고 있으니만치 그것이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三結이란 老·壯·靑 세 그룹의 對立이라기 보다는 華를 頂點으로 左·右의 두 세력간의 競爭이라고 하는 편이 더 精確한 것이다. 마치 二等辺三角形처럼 固定된 左·右의 두 辺을 軸으로 하여, 그리고 그 二等辺의 對等한 길이와 힘에 의해서 三角形의 頂點은 維持되고 있듯이 華는 均等한 힘을 按配받은 두 세력간의 밀고 밀리는 對立에 의해서 頂上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

게 되면 左·右 어느 쪽이든 頂上을 넘보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쪽의 得勢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反撥과 逆反應을 가져올 것이고 華는 左·右 어느 한쪽과 聯合하여 그 得勢한 쪽을 누를려고 할데니까 말이다. 따라서 후계자인 華의 힘의 源泉은 그 自身の 独立的인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毛가 이미 精巧하게 짜놓은 政治的均衡 관계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華는 이 均衡위에서 頂上의 位置를 維持하는 限 毛沢東이 남겨준 일련의 思想的·政治的 유산을 저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힘의 源泉은 바로 毛沢東의 유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6年 10月の 江青等 四人幫의 쿠데타 企圖에서 모든 毛死後의 狀況은 毛가 生前에 짜놓은 脚本대로 풀리지는 않았다. 우선 四人幫으로 代表되는 左派의 沒落은 二等辺三角形의 한 辺이 물러앉은 形局이나 마찬가지로 끝이 되었다. 華도 따라서 均衡關係 위에서의 平衡器役割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生存을 위해 右派와 提携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華는 그의 權威와 權力을 極大化시킬 수 있는 牽引力을 잃어버린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四人幫이 華의 權力을 奪取하려고 했지만 아이러니컬 하게도 華를 위해서는 四人幫이 일을 벌이지 말고 右派를 견제하는 役割을 해 주었더라면 훨씬 좋을뻔 했다. 앞으로의 中共政治는 사태의 枝葉末端이나 表面的인 움직임보다는 華国鋒과 鄧小平으로 代表되는 右派의 動向여하에 크게 달려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한걸음 더나가 추측을 해보면 華国鋒이 右派에 의지해서 權力을

유지하는 限 그의 자리는 安全하지만 無力한 頂上을 지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鄧小平의 役割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있다. 鄧의 役割은 四人幫의 逐出로 상대적으로 그만큼 強化되었고 華의 위치는 그만큼 弱화되었다. 그러나 鄧도 華가 必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을 것이다. 華가 毛의 後嗣로 正統性을 받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華·鄧의 관계를 말하면 劉少奇가 잦던 承繼計劃 즉 毛는 名譽主席 자리에 머물고 劉는 實質적인 權限을 行事하게 되어 있던 그런 樣相과 아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正統性의 상징으로 劉가 毛를 必要로 했듯이 鄧도 華를 똑같은 이유로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이다. 鄧은 華를 제치고 權威의 分配機能과 實行機能을 兼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權威의 實行者로서만이 權力을 더 効率的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華를 제치고 頂上에 올라설 경우 거기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鄧이 그런 野心을 키울 可能性을 전혀 排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시간의 경과를 기다려야 하고 鄧이 權力을 独占할만큼 強大해지고 또 大衆에 대한 그의 이미지가 毛의 그것을 代替할만큼 되어야 한다.

가장 可能的한 方法은 權威의 分配機能과 實行機能을 確然히 分離되어 行事되지 않고, 鄧에 傾斜된 상태에서 鄧과 華가 共有하게 될 可能性도 크다.

鄧이 實用主義路線을 추구하면서 抵抗을 적게 받고 있다면 그것은 毛의 後嗣인 華의 積極적인 支持가 있음으로 해서다. 왜냐하면 毛思想을 내세워 實用主義路線에 挑戰하려는 潛在적인 競爭그룹의

反對名分을 빼앗아 버리는 役割을 華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四人幫의 沒落으로 左派를 받치고 있던 軸이 무너졌다고 했지만 中共政治의 속성으로 보아 左派的要素는 體制화된 一部分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看過해서는 안된다. 上海市黨의 要人들이나 四人幫이 없어졌다고 해서 左派的인 요소(人物에 있어서나 思想, 政策에 있어서)가 除去된 것은 아니다. 紅·專으로 상징되는 左·右派의 鬪爭도 紅을 전제로한 專, 專을 전제로한 紅이지 온전히 專이요, 온전히 紅은 아니다. 또 실사 그 어느쪽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紅·專 속에서는 그 각각에 또다른 左·右의 相衝되는 要素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注東興 등으로 代表되는 公安勢力的 動向도 주목된다. 中共의 政治氣流를 結論적으로 말한다면 毛沢東의 遺志를 계속 받들면서도 右派的性向이 강한 實用主義路線의 堅持가 豫見된다. 이것은 상당期間동안 持續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毛沢東의 後嗣計劃은 部分的으로 成功했을 뿐 完全한 成功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毛의 不斷革命은 이제 「斷續的」으로 계속될 뿐 「不斷히」 계속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V. 北韓의 動員體制로서의 危機와 承繼 危機

北韓을 현대의 프로시아 국가라고 말한 사람은 西方記者로는 처음으로 1972年 5月 26日 北韓을 방문했던 뉴욕·타임즈의 해리슨·솔즈베리 副局長이었다.

1972年 5月이면 최초의 南北會談이 平壤에서 열렸던 그 무렵이요 7.4 共同聲明이 발표되기 얼마전의 일이다. 이를테면 制限된 和解 분위기나마 느낄 수 있었을 그 시절의 北韓에서는 솔즈베리는 살벌하고 딱딱하기 그지없는 兵營社會의 面貌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北韓의 후계자 문제를 생각해 보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문제인데 솔즈베리가 집중적으로 그의 관찰의 초점을 맞춘 것도 바로 이 個人崇拜 문제였다. 스탈린時代의 個人崇拜를 익히 기억하고 있는 그에게도 北韓에서의 金日成崇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유치원 아이들은 金日成의 「革命家系」의 이름과 生日들을 매일같이 반복, 朗誦하고, 金日成讚歌를 부르고, 童話대신 金의 날조된 抗日鬪爭 얘기를 외우고, 라디오, 신문 등 모든 매스컴은 金日成의 權威를 부추기지 않고서는 한줄의 기사도 쓰기 어렵고, 金의 이름도 듣지 않고는 단 100피트의 거리도 걸기 어렵다는 것이 솔즈베리의 인상담이다. 프로시아 時代의 어느 兵營을 옮겨다 놓은 듯 平壤의 거리에는

밤낮없이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손을 휘저으면서 直步자세로 걷는  
사람들은 벤츠차만 지나 가면 으레 要人の 行車로 알고 경계를 한다.  
솔즈베리는 이 모든 觀察을 결론하여 「나는 일찌기 이런 현상을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목도해 본 일이 없다. 스탈린의 全盛期에도  
그에 대한 個人崇拜는 스탈린 자신에 집중되어 있었다. 스탈린의  
家系에 대해서는 소수의 친구들만이 알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실  
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들은 때로 생명까지 바쳐야 했다.  
어떤 공산주의 독재자도 革命家系에 둘러 싸였던 적은 없었다.  
레닌의 가족들도 革命活動을 했지만... 蘇聯歷史에 조금 기록  
됐을 뿐이다. 그러나 레닌이 거의 神에 가까운 위치에 까지 올라  
섰을때조차도 神格化는 없었던 것이다」<sup>17)</sup> 라고 말하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個人崇拜는 차라리 寓話的이라고나 할까, 喜劇的이라  
고나 할까, 그런 성질의 것이다. 中共에서 조차 영화에 金日成이  
나오면 觀衆들은 웃음을 터뜨린다고 한다.

그러나 웃어버릴 수만도 없는 金日成에 대한 이 엄청난 神格化  
현상은 北韓에서의 후계문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것이 北  
韓에서의 後繼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要因중의 하나가  
되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 해도 中共과 北韓은 比較의 視覺을 提供하  
는데 반드시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北韓은 共產圈에서도

---

註 17, Harrison E. Salisbury, To Peking and Beyond, The  
New York Times Book Co, 1973.P.209

그만큼 突然變異의 성격의 體制로 만들어 왔다. 毛沢東의 個人崇拜와 金日成의 個人崇拜에도 그 성격에는 큰 차이가 있다. 北韓의 경우 個人崇拜의 幅과 深度, 그리고 그것이 行해져 온 期間에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金은 그의 個人崇拜와 神格化를 위해 거대한 「權威의 神殿」을 쌓아왔다. 金日成의 權威의 神殿이 크고 높아질수록 이를 짓느라고 동원된 北韓住民들의 存在는 마치 거대한 공사에 동원된 「人期개미」의 存在처럼 無力해 보인다. 앞으로 일어날 北韓에서의 承繼에 대한 의문은 따라서 金日成이 구축해 놓은 巨大한 虛構의 權威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代를 물려서 溫存되고 伝襲化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여기서는 中共의 승계 과정과 비교해서 몇가지 相異點을 지적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金日成의 權威의 本質에 대한 糾明이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전에 먼저 政治的 權威에 대한 概念的 究明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政治的 權威란 概念에 있었으나 그 實際的 適用에 있어서나 自發的인 服從關係를 誘導함으로써 可能한 것이다. 權威는 그 자체가 規範이나 法律 또는 強制的 制裁의 適用에 依해서라기보다는 命令者와 服從者사이를 이어주는 連帶의 끈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이 連帶의 끈이 무엇이나 할 때 그것은 때로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追求하는 목표에 대한 價值의 共有일 수도 있다. 아미타이.

에지오니 같은 사람은 命令과 服從關係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첫째는 強制的 手段, 둘째는 補償的 (經濟的) 手段, 세째는 " 規範的 " 手段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여기서 " 規範的 " (normative) 이라고 할 때 그것은 " 規範 " (norm) 과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에지오니는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으나 " 權威 " (authority) 와 " 權威的 " (authoritarian) 이란 뜻이 다른 것과 같이 規範이란 하나의 「規定된 秩序」( 그것은 이미 옳고 그르코의 判斷以前에 既定化되어 있다 ) 지만 " 規範的 " 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것을 받아드리는 사람의 道德的・倫理的判斷을 前提로 한다. 에지오니는 強制的 手段이 統制의 主要手段이 되는 社會에서는 「疎外的 參與」( Alienative Involvement ) 에 의해서 服從關係가 成立되고 ( 例컨대 監獄 처럼 ), 補償的 手段이 統制의 主要手段이 되는 社會에서는 「計算的 參與」( Calculative Involvement ) 에 의해서 服從關係가 成立되고 ( 例컨대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社會에서 처럼 ), 또 規範的 手段이 統制의 主要手段이 되는 社會에서는 「規範的 參與」( Normative Involvement ) 에 의해서 服從關係가 成立된다고 ( 例컨대 學校나 교회에서 처럼 ) 말한다. 18) 따라서 疎外的 參與가 이뤄지는 社會에서는 一方的인 命令에 의해서, 計算的 參與가 이뤄지는 社會에서는 補償的 質과 量에 대한 計算에 따라 參與者의 參與誘因이 發動된다. 그러면 規範的 參與가 이뤄지는 社會에서는 어떤 誘因에 따라 參與가 결정되는가?

註18, Amitai Etzioni,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On Power, Involvement, and Their Correlate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1961, pp. 14-16

政治的 權威란 그 本質에 있어서 이상 3개의 手段을 똑같이 具有하고 있을 때 可能하다. 이를테면 宗數的 權威와는 달리 物理的 手段이나 經濟的 手段이 排除된 온전히 道德的인 正當性만을 가지고 있는 政治的 權威란 想定해 보기 어렵다. 똑같은 論理로 規範的 誘因을 喪失한 物理的 또는 經濟的 手段만으로 구성되는 政治的 權威는 成立되기 어렵다. 그러나 政治的 權威는 이 세 要素를 그 構成因素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 실제적 命令-服從관계를 誘發하는 데는 規範的 誘因에 의한 連帶로만 可能하다. 政治的 權威를 成立시켜주는 命令者와 服從者간의 連帶의 끈 또는 規範的 誘因을 피터·브라우는 價値의 共有로 把握하고 있으며 탈코트·파슨즈는 "制度화된 一團의 規範"으로<sup>19)</sup> 리처드·메릴만은 道德的 正當性"으로<sup>20)</sup> 찰머스·존슨은 理念的 說得力으로 에지오나는 文化的 同質性으로 각각 把握하고 있다. 그 어느 경우이든 政治的 權威에 의한 治者와 被治者를 맺어주는 끈은 결국은 道德的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라도 治者와 被治者가 自發的으로 承服할 수 있는 價値를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 政治的 權威와는 달리 權力이란 반드시 이런 價値의 共有性이 필요치는 않다. 權力에 의한 服從관계란 여러 가지 制裁力(Sanctions)에 의한 관계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價値의 共有, 文化的 同質性 또는 道德的

註19, Talcott Parsons, "Authority, Legitimation, and Political Action" in Carl J. Friedrich ed., Author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P. 205

註20, Richard Merelman, "Learning and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Sept. 1964. PP. 157

正当性を 前提로 하지는 않는다. 政治学者들이 權力과 權威를 区分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은 다소 抽象的인 概念문제에 대한 규명이지만 政治的 權威를 생각해 보는 데는 매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權威의 主因素가 되는 「價值」(의 共有)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價値를 現實的인 政治世界에서 그 対象物을 찾아보려 할 때 그 內容은 나라에 따라 또는 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中共의 경우 그것은 한 때 民族主義的인 國民들의 念願으로 凝集되었다. 外勢의 収奪과 帝國主義的 侵略으로부터의 獨立, 中国伝來의 文化的 偉大性を 회복하여 中華的 位置로 회복하는 일 등등; 民族自強의 「民族主義的 價値」가 中國인들이 共有하는 共通의 價値였다. 共產黨의 窮極의 目標인 社會主義를 잠시 留保하고 中共黨이 國民黨과 벌인 競爭은 바로 이 民族主義的 價値를 누가 먼저 實現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毛沢東의 主唱한 「最低綱領」과 「最高綱領」이란 바로 公産黨이 漸定的인 偽裝戰術로 民族勢力을 自如하여 國民黨 등 非公産勢力과 合作도 하고 聯合도 하여 民族的 念願을 먼저 실현하고 (最低綱領) 나중에 社會主義的 理想 (最高綱領)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民族主義的 價値」란 찰머스·존슨의 표현이지만<sup>21)</sup> 中共黨의 正当性이란 國民黨과의 公開的인 競爭에서 이 「價値」를 먼저 성

註 21, Chalmers Johnson, "The Changing Nature and Locus of Authority in Communist China" in John M.H. Lindbeck ed., China: Management of a Revolutionary Socie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1. PP. 54-59

취했다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毛沢東의 政治的 權威도 물론 이에서 基因하는 것이다.

존슨은 獨立自尊으로 대표되는 「最小目標」은 中國共産黨이 充足시켰지만 産業化, 工業化 등 近代化作業의 完成에 의한 富國強兵의 「最大目標」의 실현에는 失敗함으로써 (大躍進運動에서 보듯) 여기서 생기는 中共黨과 國民들의 乘離에서 中國共産黨의 正統性的 危機는 나타난다는 主張을 하고 있다. 22)

金日成이 가지고 있는 權威의 內容이 民族的 正統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물론이거와 「價値의 共有」에서 생기는 治者-被治者間의 連帶感이 自發的으로 維持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東歐의 共産政權이 政權의 承繼危機를 자주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共産獨裁政權이 갖기 마련인 그 「專制的 脆弱性」에도 연유하지만 무엇보다도 獨裁政權의 內生的 基盤이 아주 脆弱한데 있다. 內生的 基盤이란 革命을 爲한 土着的인 諸條件의 成熟을 의미하고 이 土着的인 條件위에서 自生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한다. 공산당으로서 이 自生力의 缺乏은 必然的으로 그 缺乏을 補填시켜주는 根源을 다른 곳에서 갖게 마련이다. 이것은 自然히 權力獲得過程에서의 正當性 賦與가 크게 缺如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外勢依存的 傾向과 民族的 自尊과는 兩者가 後進國에서는 深한 相衝現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前者가 後者의 獨立性을 侵蝕하는 만큼 共産政權의 正統性的 危機는 상대적으로 커진다.

註 22, Johnson, 上揭書, PP. 54-59 (Passim)

공산정권의 承繼危機란 필연적으로 正統性危機의 한 延長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共產政權이 土着的인 條件위에서 生長할 수 있는 自生力을 잃어버린데 있다고 할 수 있다.

金日成政權이 執權過程에서 東歐諸國과 類似한 土着的 自生力을 欠如하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따른 正統性的 危機도 아울러 潛在적으로 包持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脆弱性이 除去되지 않는限 金日成은 한낱 衛星國의 傀儡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政權維持 또는 장차의 權力承繼에도 하나의 큰 障隘要素가 되리라는 것은 分明하다.

스탈린死後, 그리고 그에 따른 蘇聯의 指導體制가 弱化氣徵를 보였을 때 金日成이 "主体思想"을 외치고 나온 이유가 여기 있다. 金日成은 1955年末을 前後해서 마치 毛沢東이 中國革命을 위해 馬시즘-레닌이즘의 中國化를 외쳤던 것처럼 共產主義 運動의 朝鮮化를 高唱하게 된 것은 土着的인 自生力을 얻기 위한 당연한 몸부림이었다. 이것은 北韓政權이 가지고 있는 權威의 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當然한 論理的 歸結이었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權威를 盤石위에 올려 놓기 위해 "民族主義的 價值"를 創造함으로써 國民들과의 「價值的 共有帶」를 만들어 불러는 노력이었다. 하나의 信念體系 또는 理念으로서의 主体思想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否認하는데도 不拘하고 民族主義的 價值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民族主義的 價値가 理念的 說得力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南北을 통틀어 適用될 수 있는 論理다. 그것이 "規範的 參與"의

誘因을 提供하고 同時에 政治的 權威의 正当性을 높여주리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존슨이 中国의 民族主義에 대하여 觀察했던 것처럼 最小限으로 經濟的 富強, 外勢로부터의 真正한 獨立과 最大限으로 中国이 強大國의 位置를 獲得하는 일이라면 中国의 大衆들은 이 目標의 달성을 위해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큰 희생을 堪耐할 準備가 되어 있었기」<sup>23)</sup>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南北韓의 大衆들에게도 똑같이 適用되는 論理다. 그러나 金日成이 創案해 낸 主体思想이란 그 말 자체부터가 北韓의 從屬的·依存的 位置와 또는 非主体性을 逆說的으로 나타내 주는 用語이지만 그 內容은 思想에 있어서의 主体, 政治的인 自主, 經濟的인 自立,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 外交에 있어서의 自主<sup>24)</sup> 라는 그럴듯한 名分을 내걸고 있다. 主体思想은 그 內容으로 보아 毛沢東의 「最低綱領」과 「最高綱領」 그리고 존슨의 「最小目標」와 「最高目標」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 本質에 있어 民族主義的 價值다. 主体思想은 그 概念에 있어 거의 모든 概念的 領域과 準概念들은 包括하고 있는 일종의 雨傘的 概念(Umbrella Concept)이다. 그것은 맑시즘-레닌이즘의 特殊的 適用에 대한 理論的 正当性의 매니 페스트일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와 民族主義사이에서 생기는 矛盾-葛藤關係를 解決하기 위한 「金日成主義」의 새로운 定立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것은 1956-58年間的 肅清구실을 提供해 주고 中.

註 23) Johnson, 上同, P.39.

註 24) 金甲喆, 北韓政治 이데올로기 分析: 主体思想을 中心으로 서울, 서양각, 1977. P.62.

蘇사이에서는 危險한 等距離姿勢를 취하는데 있어 有用한 武器가 되어준 多目的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金日成은 실제로 主体思想이란 思想的 新武器를 創案해 낸 이후 말시즘의 土着化를 위해서 中·蘇사이에서 外交的 牽引力을 높이는 데서, 또 肅清劇의 名分으로서 對南宣傳에 있어 有用性を 증명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主体思想이 北韓共産政權이 가지고 있는 主統性的 危機를 극복했느냐 또는 金日成의 權威가 毛沢東의 경우처럼 그 思想이 體制化·內在化的 效果를 성취했느냐 하는 의문이다. 나는 이 의문에 대해서는 否定的으로 보고 있으며 더구나 主体思想이 후계자에게까지 毛思想이 그러했던 것처럼 後光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毛沢東은 그의 경력이나 地位를 떠나서도 그만의 카리스마에서 연유하는 剩餘 價值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毛의 思想이나 作風은 中共體制속에 깊이 內在化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의 思想的 遺産이나 後光이 그의 후계자를 보호해 주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毛는 三結合이란 巧妙하게 짜는 權力의 按配裝置가 필요할 만큼 후계를 위한 安全瓣을 마련해 놓았지만 그것조차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中共에서는 「政治優先」이란 用語가 暗示하듯이 이데올로기가 실제로 大衆의 政治參與, 大衆의 思想的 高揚에 의해서 大衆들 속에 體質化되어 있다. 毛의 "群衆路線"이란 大衆의 政治參與의 自發性を 極大化시키는 機能을 구호뿐만 아니라 실제의 政治參與에서도 發頭시켜주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毛沢東의

權威란 大衆의 参与意識과 直結되어 있음으로써 政治的 象徵性的 効用을 높여왔다. 中共이 벌여온 數多한 大衆運動에 의해 中共의 大衆은 個個人的 理念的 信念을 確認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져왔다. 中共에서 党·政·軍에 이어 第四의 權力支柱를 이루는 것이 無形態 (Amorphous)의 非組織的인 大衆인 이유가 여기 있다. 大衆의 政治意識과 毛沢東의 權威는 相互補完, 表裏의 關係를 이루고 있다. 毛沢東이 政策의 推進을 위해서 또 權力鬭爭을 위해서도 大衆에 의존하고 大衆의 힘을 利用하는 이유는 그의 權威가 大衆과 "價值" (理念)의 同質性을 共有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따라서 毛가 사라져도 그의 思想으로 代表되는 政治的 象徵은 大衆과의 連繫를 유지할 수 있고 大衆도 죽은 毛의 權威에 依託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毛의 權威는 大衆이란 分身으로 해서 살아 있고 그의 후계자는 毛의 權威를 필요로 하는 限 毛의 政策的 遺産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은 웨버가 이르는 權威의 日常化, 因習化가 官僚組織의 體系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大衆의 意識을 통해서 表出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權威의 日常化, 體制化 또는 因習化가 大衆의 意識속에 內在化되고 政治的으로 表出될 수 있을 때에만 지도자의 權威의 伝襲은 可能할 수 있다.

金日成의 경우 主体思想은 理念的 틀로서는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또 그 실제적 적용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특히 對外關係에서) 그 思想의 骨格을 提供해 줄

수 있는 北韓의 대중에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主体思想은 그만큼 空疎한 이데올로기일 뿐 大衆과 指導者를 이어주는 「價值의 共感帶」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內在화된 價值(그 價值의 善惡的 判斷을 떠나서)가 存在하지 않는 限 眞正한 權威란 成立되기 어렵다. 政治的 權威란 그 成立의 프로세스로 보아 대중의 정치의식을 통해 滲透되고, 政治參與를 통해서 그 道德的 正當性이 實証되고, 이것이 再投入의 과정을 거쳐 정치의식으로 深化되고 蓄積될 때, 그리고 그것이 다시 超越者와의 連帶感으로 느껴질 수 있을 때 그 실제적 存在價值는 確認할 수 있게 된다. 權威의 伝襲이란 바로 이런 경우에만 可能할 뿐이다. 25)

北韓에는 82個의 金日成의 銅像이 있다고 한다. 金日成의 權威를 假裝하고 粉飾하고 誇張해 보이게 하기 위해 갖가지 政治的 裝飾物(Political Paraphernalia)이 등장하고 있다. 毛沢東과는 달리 金日成의 權威의 虛構性은 바로 이런데서도 나타난다. 權力의 親族承繼란 人間에게는 가장 原始的이고 가장 未開한, 그리고 가장 本能的인 집착이다. 親族承繼의 경우 權力委任者나 被委任者 사이에서 생기기 마련인 信賴의 葛藤은 피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權威의 伝襲이란 애시당초 不可能한 일이다. 北韓에서는 지금까지 말해온 權威의 蓄積過程은 없고 金日成의 權力의 集積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의 偽裝된 權威의 伝襲에는 따라서 必然的

---

註25. 毛沢東 權威의 日常化, 体制化와 그의 카리스마의 關係에 대해서는 拙稿, "카리스마 毛沢東 研究", 政經研究, 1976年10月号, PP.66-77.

으로 權威의 危機와 正統性的 欠如에서 오는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본다. 이러한 위기를 漸定的으로 留保시키는 方法은 毛沢東처럼 權力의 安全辨을 派閥의 均衡을 통해서 유지하는 方法이다.

毛가 만들어 놓은 三結合은 이미 言及한 대로 部分的으로만 성공했다. 北韓의 경우에도 비슷한 權力의 按配傾向이 보인다. 金日成의 世代인 60,70 代의 빨치산 世代와 金英柱 또래의 40,50 代의 党·官僚世代, 그리고 三大革命小組를 中心한 20,30 代의 金正一 世代는 빨치산 世代와 革命小組世代가 40,50 代의 中堅幹部들과 互 角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均衡은 老·靑의 結合으로 金正一 쪽으로 우세한 局面을 유지케 함으로써 金正一의 승계작업을 유리 하게 해놓고 있다. 이것은 金正一을 頂点으로 斜角을 이룬 二等 辺三角型의 형태라고나 할까.

특히 北韓의 王東興이라고나 할 金日成의 경호책임자인 全文燮의 党内地位가 1975年 4月에는 23位, 1975年 10月에는 16位, 그 리고 1977年 9月에 열린 「金日成에의 忠誠의 편지」 전달식에서 는 9位로 急上昇한 것은 王東興이 이끄는 8341의 御營軍이 毛 死後 어떤 역할을 했던가를 생각해 볼 때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최소한 金日成死後 予期치 않는 權力의 變動을 막기 위한 事前조치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누가 權力을 잡 느냐, 金日成의 후계자는 누가 되느냐,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北韓이라는 하나의 政体가 맞아야 할 필연적인 성격의 變化를 予測해 보는 일이다.

北韓에는 動員體制 特有의 긴장이 있다. 그것은 누가 후계자가 되든지 갖지 않으면 안될 긴장이다. 카리스마의 지도자는 이 긴장을 動員目標에 맞추어 에너지化할 수 있는 誘因動機를 大衆에게 分配하는 卓越한 能力때문에 動員體制的 긴장을 動員목표의 達成과 連結시키게 된다. 따라서 有能한 超越者는 理念의 硬直性을 固執하지 않고 動員의 目標에 따라 誘因手段을 적절하게 選擇하여 動員者의 만족을 유도하게 된다.

앞서 引用한 에찌오니는 追求하는 조직의 目標과 그 目標에 맞는 수단이 符合關係에 있을 때에만 조직의 目標달성은 가장 効率的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動員體制的 경우 이것은 특히 맞는 얘기다. 動員體制가 動員體制인 이유는 바로 達成하기 위한 目標이 있기 때문이고 動員體制的 活力은 바로 目標달성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

中共의 경우 毛沢東이 大躍進과 같은 經濟的 動員에서 失敗한 이유중의 하나는 그가 추구하는 經濟的 目標을 理念的 注入으로서만 성취하려 했기 때문이다. 文化革命이 經濟的인 損失을 가져왔지만 정치나 文化的 領域에서는 失敗하지 않은 이유는 추구하는 目標이 理念的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도 大衆에게 理念的 注入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動員體制에서는 그 體質上 이미 設定한 目標의 성취없이 다른 성격의 動員體制로 넘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動員體制를 하나의 連續線 위에서 놓고 보면 그 線의 斷을 그어주고 끊어주어 다음 發展段階로의 移行을 可能하게 해 주는 것은 設定한 目標이 達成될 때에만 그렇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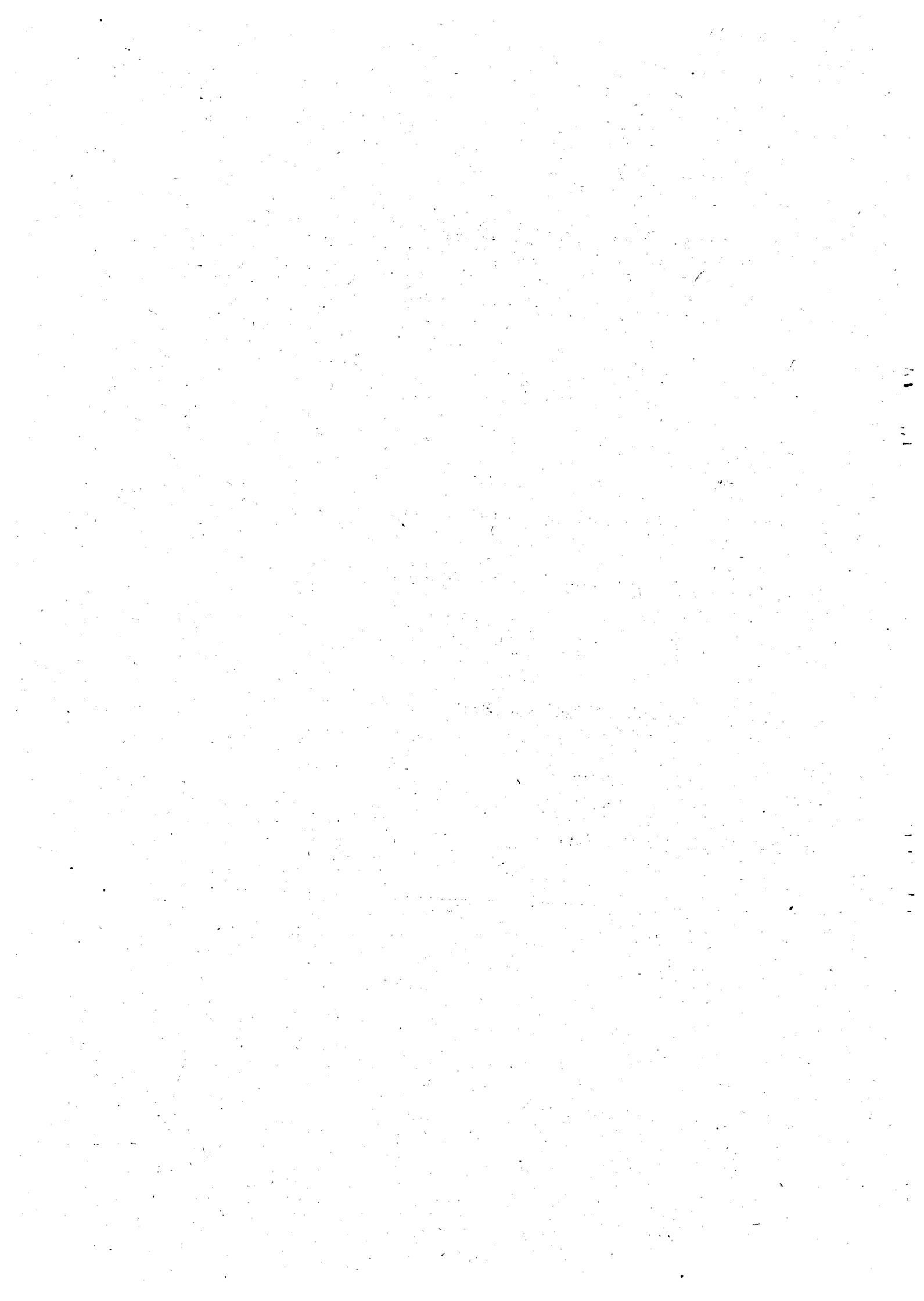
動員体制의 存在能力과 存在價值도 바로 여기서 연유하는 것이고 그 正統性도 여기서 비롯된다. 動員体制의 正統性的 위기란 따라서 設定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다음 發展段階로의 移行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動員体制의 긴장은 목표가 달성됨으로써 다음 단계의 動員에 건설적으로 連結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建設的 連結에 失敗할 때 그 긴장은 否定的인 疎外나 抗拒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動員体制에서 價值的 共有性도 목표가 달성될 때 생기는 被動員者의 慾望이 充足됨으로써 可能的한 것이다. 北韓이 動員体制로서 갖는 위기도 바로 그들이 설정한 목표가 하나 하나 失敗로 끝난데 있다. 또 사회주의 건설이요, 경제건설이요, 기술革命이요, 四大軍事路線이요 하는 動員目標가 失敗하여 外債더미 속에서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는 切迫한 狀況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외에도 雜多한 동원목표를 同時に 성취하려는 무모한 政策에도 北韓이 動員体制로서 갖지 않을 수 없는 制限性이 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思想革命, 技術革命, 文化革命, 경제건설 등등의 여러 동원목표는 그 성취를 위한 誘因動機가 각각 달라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主体思想의 注入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 이렇게 雜多한 동원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도 그중 어느 한가지의 목표도 달성되지 않았다는 反證이다. 金日成이 最惡의 政治的 破綻을 모면하고 있는 것은 그가 쌓아온 엄청난 힘이 그나마 動員体制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韓의 動員体制로서의 위기는 金日成이 죽은 후 필연적으로 나타날 힘의 空白과 函數關係를 갖지 않을 수 없고 承繼危機도 이와 無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 北韓의 体制管理方式과 統制能力의 限界

朴 昌 魯

## 目 次

I. 序 言 .....	73
II. 北韓政權体制의 特徵 .....	76
III. 北韓行政官僚体制의 構造 .....	82
IV. 北韓 党·行政体制의 機能的 相互關係 .....	88
V. 北韓 行政官僚의 行態 .....	93
VI. 北韓 官僚体制變動의 推移 .....	101



## I . 序 言

北韓은 다른 共產主義 國家들과 比較해 볼때 國家管理体制의 制度的인 面에서는 큰 差異를 찾아볼 수 없다. 北韓의 경우는 金日成 個人偶像化를 비롯한 強力한 一人支配 體制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制度的인 面보다는 行態的인 面을 重點的으로 分析하지 않으면 그 內容을 理解하기 힘들다.

六. 二五動亂의 激動期를 거치면서 金日成은 勞動黨을 그의 一人 體制의 構築 및 維持를 爲해 私兵化하면서 모든 國家管理体制의 絶對的 優位에서 道具로 活用해 왔다. 그 結果로 그는 北韓社會에서 金日成의 一人獨裁體制의 完成을 기할 수 있었고, 이 體制는 이제 承繼問題와 더불어 새로운 진통을 겪고 있다.

1970年代는 北韓에 있어서 過渡期的 性格이 強한 時期로 볼 수 있다. 그 理由로는 體制의 立場에서 볼 때 金正一後繼體制의 承繼問題를 둘러싸고 權力鬭爭을 위한 先초적 葛藤이 많이 露出되었었고 「6個年 經濟」計劃의 失敗로 外債償還에 대한 圧迫 要因은 國際外交上에서 새로운 딜레마로 登場하게 됨으로서, 이의 隱蔽를 爲해 金日成은 對內外的으로 교묘한 政治的 造作이 必要했기 때문이다.

北韓의 體制管理는 黨과 行政官僚體制라는 二元體制下에 黨階層制와 行政階層制가 서로 連結되며 黨은 行政階層制의 大部分의 構成員을 黨階層制와 그 紀律에 服從케 하는 二重的 兼職裝置를 통하

여 密接하게 連結하므로써 党的 統制를 強化해 나가고 있다. 党的 絶對的 優位性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事實이므로 本論稿에서는 北韓行政官僚体制의 構造를 重點的으로 分析하고, 이와 關聯하여 党和 行政体制의 機能的 相互關係를 糾明하고자 한다.

北韓에 있어서 行政官僚制의 特徵은 官僚制의 逆機能的行態를 많이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近者에 들어와서 金日成 스스로가 病弊에 대한 言及과 더불어 機構의 形式的 改編까지도 推進해 왔었다. 北韓 行政官僚制의 特徵이라면 첫째, 各級 行政機關에서 黨員을 中心으로 하여 統合되는 形態의 統合組織이며, 둘째 高度의 中央集權的 組織類型이며, 셋째로 構造의 單純化, 그리고 技術的 專門家를 輕視하는 것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諸特徵은 오늘날 北韓이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性質이며, 이와같은 非能率的인 官僚行態는 金日成이라고 하는 神格화된 一人獨裁体制가 存統하는 限 是正될 수도 없는 性質이기도 하다.

本論稿에서는 이와같은 北韓行政官僚의 行態를 党体制와 關聯하여 分析함으로써 나타나는 行政体制의 補完点이나 새로운 社会的 및 最高權力者의 要求를 北韓 官僚体制의 變動 推移를 豫測하는 基本資料로 삼고자 한다.

北韓의 体制管理方式과 統制能力의 限界를 分析함으로써 變動의 推移, 特히 後金日成体制를 靚望하는 것을 目的으로 二章에서는 北韓 政權体制의 特徵을 全体主義 獨裁國家의 一般的 特徵과 對比하여 檢討하고, 三章에서는 行政官僚体制의 構造를 北韓 憲法 및 機構를 通해서 分析한 後, 四章에서는 行政官僚体制와 党官僚体制와의

相互關係를 그 機能을 通해 考察하겠다. 第五章에서는 北韓 行政 官僚制가 內包하고 있는 逆機能 및 葛藤的 要素를 確認하며, 끝으로 六章에서는 党 및 行政官僚体制의 相互關係를 中心으로 앞에 서 밝혀진 變動要因들을 바탕으로 F.Heady와 L.G. Seligman의 一般的 社会變動 理論을 準拠로 하여 「後金日成」体制의 官僚体制의 變動方向을 豫測해 보고자 한다.

## II. 北韓政權体制의 特徵

本論稿에서는 北韓政權体制를 全体主義 내지 全体主義的인 独裁模型에 包含시키고 그 模型에 의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一般的인 全体主義的 独裁의 特徵을 分析 내지는 記述하고, 이와 比較하여 北韓의 政權体制를 分析하고자 한다.

### 1. 全体主義 独裁의 一般的 特徵

Carl J. Friedrich와 Z.K. Brzezinski가 提示한 全体主義理論 模型에 의하면 全体主義的 独裁 (Totalitarian dictatorship)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sup>1)</sup>

첫째의 特徵은 權力基礎가 大衆的 基盤위에 構築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사이비 大衆的 性格 (pseudo-popular character)을 內包하고 있다. 共產主義 國家의 경우에는 大衆이 政權交替에 決定的인 影響力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執權者는 大衆들의 政治的 反應樣相에 銳敏하게 關心을 기울이며 스스로의 權力的 正當性이 大衆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公認化하려고 努力한다. 이것은 곧 全体主義的 共產政權의 大衆的 性格이며 이는 大衆動員 政策을 위한 必須的인 課題이다. 즉 大衆的 基盤위에서 体制가 構築되고 政治的으로 大衆과의 密着을 意圖하는 것이다.

---

註1) Carl J. Friedrich & Z.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hority, 2rd. ed., New York 1969, PP.88~89.

둘째로 全体主義的 独裁는 高度로 官僚化된 權力体系(a highly bureaucratized system of power) 라는 点이며, 따라서 이러한 体系는 極度の 官僚化 過程을 隨伴한다.

셋째로 全体主義的 独裁는 制度的 暴力(systematic terror) 을 使用하는 것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의 特徵은 그것이 動態的 現象(dynamic phenomenon) 이라는 点이다. 이는 그 政權이 一般的으로 革命的 鬪爭過程을 通하여 生成되고 그 生成 以後에도 繼續해서 革命的 慣性을 堅持하려고 試圖하고 있음을 뜻한다. 一般的으로 이와 같은 政權은 政治的 象徴造作을 通하여 革命的 變動을 수반하는 暴力(terror) 을 正當視하며, 그들의 國家 發展 施策에 관한 思考方式은 急進的 手段을 높이 評価하고 個人的 利益보다 集團的 價値를 追求한다.

以上の 特徵을 가지고 있는 全体主義的 独裁를 維持하기 위한 手段으로 그들은 官制「이데올로기」를 支配的인 價値觀으로 내세운다. 이리하여 그들은 独裁者에 의해 領導되는 단일 大衆政黨을 갖게 되고 暴力的인 警察統制制度를 取하며, 나아가서 배스콤 手段을 独占的으로 掌握하여 經濟에 대한 中央集權的 統制를 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2. 北韓 政權体制의 特性

앞에서 지적한 全体主義的 独裁体制의 維持手段을 根拠하여 北韓 政權体制를 分析하여 보면 그 모든 特性을 北韓政權体制가 保有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즉 北韓은 一黨独裁로 「프롤레타리아」

階級 独裁이며, 国家權力은 党에 集中되어 있다. 이 党은 勞動党을 뜻하며 勞動党은 国家主席인 金日成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다.

또한 北韓에는 唯一한 理念, 즉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基礎한 소위 主体思想만이 追求되고 있고 그것은 全体主義에 대한 支配的 價值觀으로 強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스콤」 機關을 独占함으로써 言論과 出版의 自由를 封鎖하면서 体制維持에 害가 되는 모든 情報源을 遮斷하고 있으며, 매스콤은 오로지 党的 宣傳 道具로만 利用되고 있다.

經濟的인 側面에서는 党的 主導下에 政權機關의 完全 統制된 計劃分野에 의하여 「千里馬運動」을 비롯하여 67年度 以後에는 「日日努力評價制」나 「三大革命 붉은旗 争取運動」등 努力競争強化를 위한 動員体制로 住民을 모두 産業勞動者로 改編하고 있다.

北韓의 政權体制은 組織的인 集團生活을 營為시키고 이를 위해서는 集團主義 原則에 의한 組織的 統制를 強化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特徵이다. 이와같이 組織的 統制를 集團生活을 中心으로 強化하면서 思想教育, 思想學習, 思想鬭爭, 批判制度 및 党的 指導라는 目的을 達成하면서 金日成을 頂点으로 하는 統治集團의 效率化를 圖謀해 왔다. 이는 1973年 以後 「三大革命小組運動」으로 더욱 加熱되어 全群衆的 運動으로 展開하고 있으며 後繼体制의 強力한 推進과 「忠誠의 目標」 達成에 의한 生産性的 增加와 金日成과 党에 대한 競争的인 忠誠心を 誘導하기 위하여 「三大革命 붉은旗 争取運動 忠誠의 登錄制」를 통해서 보다 積極的이고 革命的인 集團 指導方法을 繼續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官僚主義的 人間

型을 構築하므로서 資本主義 意識의 殘在를 抹殺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資本主義 意識의 殘在는 集團主義的 社會組織化가 지니는 源泉的 諸矛盾을 비롯한 現實的인 矛盾과 体制的 問題點에서 나타나는 住民의 葛藤과 体制變化에 대한 要求로 金日成 唯一體制 또는 그 後繼體制의 定着에도 큰 威脅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미연에 封鎖하기 위해서는 全体主義的 性向을 갖는 官僚主義的 人間型을 만들어 냄으로써 調一性에 의한 動員體制에 보다 容易하게 造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政治體制가 가지고 있는 政策目標는 體制維持的 (system maintenance) 次元과 體制近代化 (system modernization) 次元의 두가지로 大別될 수 있다. 前者는 變動을 追求하는 것 보다는 現在의 水準으로 定着하는 것을 追求하는 것이 支配的이며, 後者는 그와 反對로 動的인 면을 強調하고 特別히 變化를 수반하면서 한편으로는 社會的 下位體制에 影響을 積極적으로 미치는 發展을 追求하는 것으로 看做된다. 兩者間의 調和比率은 各 나라가 처해 있는 政治的 發展의 정도에 따라 一定하지 않으며, 環境에 따라 政策的 強調도 移動할 수 있다.

대체로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政策的 目標로 初期에는 體制의 制度的 構築을 위하여 前者로 내세우나 後期에 들어와서는 近代化 政策과 더불어 體制의 變化에 대한 対応能力과 彈力性을 伸張시키기 위하여 政策的 強調가 後者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普通이다.

오늘날 北韓이 重視하는 政治目標는 體制維持나 體制近代化가 아닌 體制擴散 또는 體制擴張이라고 보아야겠다. 다시 말하면 體制

의 擴散이라는 면에서는 「아프리카」나 中南美에서 단순히 外交上의 問題가 아닌 그들 共產體制, 특히 金日成體制를 輸出하기 위한 努力을 들 수 있고, 擴張이라는 면에서는 南北韓 赤化統一을 들 수 있다. 勿論 赤化統一은 그들 體制 擴張의 一環 外에도 南北韓 사이의 經濟成長 競争에서 오는 劣勢와 内部的 葛藤을 解消하거나 住民을 說得하기 위한 口實으로서도 이를 政策目標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體制擴張을 위한 過重한 努力과 그로 因한 負擔은 經濟發展分野에서 相對적으로 沈滯를 免할 수 없었다. 70年代 中半期에 들어서면서 經濟成長의 沈滯는 南北對決 狀況에서 北韓을 窮地로 몰아 넣게 되었고 南北間의 諸般 힘의 不均衡이 北韓의 劣勢로 深化되게 되었다. 이런 現象은 특히 外債償還의 不履行 및 現地費用調達을 위한 「外交官密輸」事件등을 外部世界으로 露出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점은 바로 經濟發展이 미치는 對外的 對內的인 政治效果 때문에 體制擴張이 主된 政策目標라 할지라도 體制近代化의 努力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는 現實的 理由의 바탕이 되고 있다. 要約하면 北韓은 對內外的으로 緊張이 高潮되는 경우에는 體制維持 내지 擴張을 겨냥한 政策目標의 比重이 높아지고, 相對적으로 比較的 평온한 時期에는 體制近代化를 追求하여 經濟成長의 屬性이 강한 政策目標를 앞세웠다. 그 예를 들면 比較的 對內外的으로 緊張이 높지 않았던 1960年代 전반의 경우에는 比較的 合理主義的 經濟成長 政策에 主力했었다. 그러나 1970年代 以後 특히 南北對話가 斷切되면서 北韓은 體制擴張的 政策目標를

設定 追求했었고, 對內的으로는 權力承繼와 關聯하여 惹起된 여러가  
지 葛藤이 內在하게 되었다. 이로 因해 體制近代化보다는 體制擴  
張이라는 危機意識속으로 또 다시 大衆動員化가 시작되었다.

### Ⅲ. 北韓行政官僚体制의 構造

#### 1. 北韓 行政機構의 組織과 그 性格

北韓의 改正 憲法 第9條에 의하면 「모든 國家機關들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原則에 의하여 組織되며 運營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즉 이는 國家管理에의 人民大衆의 參加,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 社會主義的 計劃性 및 國家機構의 簡素化를 基本原則으로 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同憲法에 明示된 民主主義 中央集權制란 廣範圍한 黨員大衆의 意見을 集結하여 黨路線과 政策을 遂行하고 黨指導部를 選舉하며 그 指導部가 樹立한 路線과 政策을 實踐하기 위한 鬭爭을 唯一的으로 指導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러한 民主主義 中央集權制는 相互 聯關되고 相互 依存하는 두 側面인 즉 民主主義의 側面과 中央集權的 側面의 結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制度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民主制와 中央集權制의 統合制度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廣範圍한 黨員大衆의 意見을 바탕으로 한다는 原則은 하나의 形式的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實際로는 이러한 假面을 쓴 채 金日成 一人의 獨裁体制에서 나오는 모든 政策을 黨員大衆의 支持라는 이름하에 正當化하는 根拠로써 大衆의 바탕을 利用하는 것이며 더욱이 民主主義의 本質이 되고 있는 國民의 參政權에서 보는 制度와는 本質적으로 類似하지도 않으며, 形式에서도 거리가 먼 体制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中央集權制 역시 民主主義

國家에서 行政能率을 圖謀하기 爲한 地方分權의 意味에 對照되는 內容이 아니라 金日成 1人體制에로 모든 權力이 集中되어있어 그 外의 어떤 機關도 一人體制의 手段 外에는 事實上 큰 意味가 없는 性質의 것이다.

이는 北韓의 行政體系가 國家主席 金日成을 頂點으로 하여 「스탈린」式의 官僚主義的 統治制度와 中共의 制度를 混合하여 共產國家內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全權的 一人體制로 되어 있음을 통해서 證明된다.

新憲法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國家 代表權, 軍統帥權, 中央人民委員會 指導權, 政務員 召集 및 指導權과 政策決定權을 모두 掌握하도록 規定하였다. 이것은 金日成 偶像化에 이은 唯一體制를 보다 強化하고 나아가서 後繼體制 또한 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制度的으로 마련된 裝置로도 把握될 수 있다.

國家主席은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로서 政務院을 指揮 監督한다. 中央人民委員會 역시 主席의 指示와 監督 및 統制를 받게 되며 主席의 提議에 의하여 副主席과 書記長 및 委員들을 選出하고 召喚하도록 되어 있다.

政務院은 中央人民委員會의 指導를 받아 中央人民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을 執行하는 機關이다. 政務院의 組織은 主席의 提議에 따라 最高人民會議에서 選出된 總理와 그가 提議하고 中央人民委員會가 認准하는 副總理, 部長, 委員長 및 그 外의 成員들로 構成된다고 北韓 憲法 第76條第6項과 第103條第17項에 規定되어 있다. 政務院의 機構는 一人의 總理, 8人의 副總理, 1人의

事務長, 7個 委員會 및 21個部 (14個 委員會와 14個部에서 改編되었음)로 構成되어 있고 全員會議과 常務會議로 區別되어 意思 決定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行政機構는 中共의 主席이 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서 파면될 수 있으며, 國務院의 監督權이 全國 人民代表者大會 常務委員會에 있는 것과 다르다. 中央人民委員會 역시 中共의 最高國務會議과 비슷하나 首位인 主席이 最高人民會議의 소환대상이 되지 않으므로서 差異를 보인다. 副主席 以下 構成員의 소환도 主席의 提議에 의해서 可能하기 때문에 結局 主席 1人에게 責任을 지게 된다. 따라서 形式的으로는 集團指導體制이지만 실은 교묘하게 만들어낸 1人體制에 不過하다.

以外에 執行機關의 性格을 띄고 있는 中央行政機關內에 있는 國家計劃委員會는 1972年 12月 27日 公布된 所謂 社會主義 憲法에 의해 總 22個局을 갖고 있는데 그중 15個局은 政務院의 다른 部署의 業務를 管掌하게 되어 있다. 北韓의 各級行政機關이 管轄하는 것으로는 企業所가 있다. 北韓은 企業所를 國營, 道營 및 郡營으로 分類하고 農場이나 農機械 工場도 同一하게 分類한다. 商業의 경우는 中央이 都禿, 地方은 小禿등으로 나누고 있다. 各級行政機關은 自己가 管轄하는 企業所에 관하여 獨立採算制를 適用하여 運營하고 있으며 各級行政機關의 實務局長들은 自己가 直接 該當級의 企業所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 2. 行政官僚의 資格

以上の 行政構造內에서의 行政官僚의 資格은 党性, 出身性分, 理論水準, 實務能力, 私生活 및 與論을 包含하는 社會生活, 南韓에의 緣故者 有無 등의 基準에 의하여 決定된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重要한 것은 党性이며 다른 모든 基準도 이를 證明하기 위한 資料의 구실에 不過한 것으로 制度化되어 있다.

人事政策의 基準은 「專門性」보다는 「党性」 및 「社會階級性- 프롤레타리아性」이 보다 重視되고 있다. 또한 모든 人事政策은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組織指導部에 의하여 完全히 統制된다.

官僚의 人事傾向을 보면 專門官僚의 進出은 아직도 많은 制約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黨으로 부터 들어오는 政治的 人物의 進出이 國家行政機關의 上向線을 따라 成長하는 官僚보다 훨씬 昇進이 빠르다.

또한 黨의 組織業務와 公安業務에 從事하는 官僚類型은 專門的 能力보다 政治的인 信任이 더 重要視되고 따라서 社會階層上으로 勞動者 내지 農民出身이 아니면 안된다. 이러한 業務를 위하여는 高等教育을 꼭 必要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흔히 이들 委員들은 낮은 文化水準을 보여준다. 이에 反하여 高層의 專門技術 내지 經營管理能力을 要求하는 專門官僚職의 경우에는 不可避하게 一般的 知的能力和 함께 專門技術的 機能을 必要로 하므로 党性이나 社會階層性 보다는 正規의 高等教育을 履修한 높은 文化水準의 人物로 充員되는 경우도 頻繁하게 찾아볼 수 있다.

行政官僚의 採用이나 補職 및 昇進등은 末端機關으로 부터 中央 行政機關에 이르기까지 全部 各級 黨에서 決定하게 된다. 따라서 黨内에서 出世하고 認定받는다는 것은 곧 行政機關에의 配置나 그 속에서의 昇進을 意味한다. 따라서 行政官僚들의 忠誠心의 向方은 黨으로 向하게 되고 行政機關内에서의 忠誠 역시 該當 上部 階層에 보다는 黨에 대한 忠誠이 더 강하게 要求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 3. 業務 節次 內容

이들 行政機關의 計劃樹立 및 執行節次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勞動黨 秘書局이 作成한 政策草案은 政治委員會가 決定하여 中央委員會의 通過를 거쳐서 政務院의 國家計劃委員會에 넘기면 그 委員會는 經濟企劃의 草案을 作成하게 된다.

國家計劃委員會에서 마련된 草案은 다시 中央의 經濟關係 各部委員會와 地區計劃委員會와 市·郡行政委員會의 國家計劃部에 넘긴다. 이들 機關에서는 다시 自体草案을 作成하여 地方 企業所의 計劃部 및 特級, 1, 2, 3 級 企業所의 國家計劃部에 下達된다. 이렇게 下達된 計劃草案은 이들 下部機關에 의하여 소위 討論에 부쳐지고, 그 結果를 決定書로서 上部에 報告된다. 이 때의 討論場은 實際로 上部의 指示를 遵守하겠다는 盟誓狀을 朗誦하는 機能에 不過하다. 市·郡에 接受된 決定書는 다시 道 및 中央으로 올라가고 國家計劃委員會가 最終적으로 各部門의 目標量과 計劃事項을 綜合한다. 이 綜合 報告書는 勞動黨 中央委員會와 政務院의 連席會議에서 決

定되고 形式에 不過하나 批准을 얻어서 「政令」으로 確定되어 그 施行을 爲해 다시 下達되는 節次를 되풀이하게 된다.<sup>2)</sup>

이와 같은 計劃樹立過程이나 執行節次로 부터 나타나는 問題點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計劃機關이 直接 豫算編成權이나 歲入權 및 人事權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計劃을 効果的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豫算과 乖離되어 있고 適切한 統制手段을 가지지 못한다는 點이다. 둘째는 上部에서 내려오는 指針이나 草案이 下部에서는 命令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들 下達된 案에 대한 實際的 修正이 전혀 不可能하기 때문에 同制度는 節次上에서는 形式을 벗어날 수 없고 中央의 案이 地域的 또는 一線機關의 特殊性을 考慮하지 않아 執行過程에서 難點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點이다.

셋째로는 計劃過程이 相互作用에 의한 調整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을 具體化하는 過程으로 取扱된다는 것이다. 또한 最一線의 企業所와 末端 事業場에는 形式上的 參與는 있으나 各部 委員會의 局들은 이 過程에서 조차 疎外가 된다. 끝으로 統計의 不正確性을 들 수 있다. 目標 未達에서 받게될 處罰이나 裁制를 두려워한 나머지 虛偽報告를 해서라도 上部의 비위만 거스르지 않으면 된다는 虛偽 내지는 形式主義의 露出의 結果로 各種 統計가 造作된다는 點이다. 이러한 結果로 官僚内部的 動態는 한마디로 말하여 責任의 分散體系이며 最少限度로 勞動하고 名目上的 數字만을 두들겨 맞추어 보려는 形式的인 行動樣式이라 稱할 수 있다. 이것은 또 다른 面에서의 官僚内部的 葛藤要因으로 發展되어진다.

註2) 趙錫俊, "北韓의 官僚制와 行政組織", 北韓, 1977年1月号.

#### IV. 北韓 黨·行政体制의 機能的 相互關係

北韓의 行政目的 내지 國家目的은 勞動黨의 正確한 階級路線에 基礎하여 人民의 敵을 徹底히 鎮壓하는 機能을 遂行함을 目的으로 하고 勞動黨의 經濟建設의 基本路線에 立脚하여 經濟組織者的 機能을 遂行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外에도 여러가지 目的을 내세우고 있다. 文化와 教養者的 役割을 遂行하는 것과 美國을 비롯한 外來帝國主義 侵略者들로 부터 祖國을 保存하는 機能을 遂行하고 끝으로 勞動黨의 對外政策에 立脚하여 社會主義 陣營 國家들과의 國際主義的 協助과 親善을 強化하는 活動을 展開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는 것이 特徵으로 되어 있다.

이 目的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北韓의 行政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및 外交關係에 이르기까지 黨의 指導와 統制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1972年 12月 이른바 社會主義 憲法을 採択하면서 政策의 效率的인 統制 및 執行을 指導할 目的으로 黨과 政府를 연합하는 合議體 形式의 中央人民委員會를 新設하였다. 金日成은 中央人民委員會의 首席이 되고 政務院 總理에 金一을 앉힘으로서 內閣이 政策의 樹立과 統制에 參與할 수 없도록 制度를 改編하였다.

이와 比較해서 中共과 蘇聯에 있어서 黨과 行政의 關係는 어떠한가? 中共에서는 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서 國家主席과 副主席團을 選出하도록 되어 있다. 이 國家主席은 北韓의 憲法改正 以前에 있었던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委員長의 地位와 방불하나 꼭 같지

는 않다. 中共에는 全國人民代表者會議도 常任委員會를 갖고 있고 그 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共의 國家主席은 보다 重要하고 實力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蘇聯의 경우에는 黨權과 國家代表權이 分離되어 있었으나 最近 브레즈네프는 黨第一書記職과 國家元首職을 兼하게 되었다. 蘇聯의 政治體制에 있어서 共產黨은 唯一한 政黨이며 다른 政黨의 存在는 認定되지 않는다. 蘇聯 憲法에 의하면 蘇聯 共產黨은 「社會主義制度的 強化·發展을 위한 鬭爭에 있어서 勤勞者의 前衛가 되며 모든 勤勞者의 公共的 및 國家的 團體의 指導的 核心」이 되고 있다.

共產黨의 最高機關은 4년에 한번 程度 召集되는 全聯邦黨大會이다. 그리고 黨大會에서는 中央委員會를 選出하고 다시 中央委員會는 政治局과 書記局을 包含한다. 그런데 事實上 最高黨機關은 政治局과 書記局이다. 中央委員會의 役割은 漸統的이고 制限되어 있으며 全聯邦黨大會는 盲目的으로 贊成하는 機關에 不過하다. 또한 選出 順序도 公式的인 것과는 反對로 政治局과 書記局的 中央委員會와 黨大會代議員을 먼저 選拔하는 것이다.

黨의 國家機關에 대한 指導는 國家要員의 選任과 登用·配置, 國家機關의 活動의 性格 및 方向을 定하는 指示 그리고 國家機關의 活動의 點檢등 세가지 形態를 通하여 行하여지고 있다.

黨權과 國家代表權과 關聯하여 보면 蘇聯의 國家代表權은 最高 「쑤비에트」 中央委員會 議長이 갖고 있다. 1939年 2次世界大戰의 勃發 危機가 「스탈린」으로 하여금 黨權과 國家代表權 및

行政權을 独占하기 이전에는 이 權限들이 소위 三頭馬車體制라는 이름하에 別個의 人物들에게 分散되어 있었다. 1955年 「스탈린」 死亡後 本來의 制度가 復活되었다가 5年後 「후루시초프」에 의해 다시 權力集中 現象이 일어났다. 그러나 1964年 「후루시초프」 失脚後에 登場한 브레즈네프와 코시킨이 다시 權限을 分散시켜 占有함으로써 本來의 三頭馬車 體制로 돌아갔다.

北韓의 金日成은 「스탈린」의 「위로 부터의 革命」을 實行하기 위한 黨權과 行政權의 集中을 模倣하여 4次 內閣때까지 黨의 總秘書職과 內閣의 首相職을 独占함으로써 最高權力機關으로서의 勞動黨은 政策樹立機關이자 實質的인 統制機關이었다.

따라서 勞動黨의 機能은 廣義의 行政概念에 包含될 수 있고 事業執行的 手段인 狹義의 行政 보다 上位에 位置하여 諸般 行政活動을 助長하고 統制한다. 이러한 權力的 集中化 傾向은 勞動黨의 機構를 通해서 分析해 낼 수 있다. 北韓 勞動黨은 政治委員會正會員 및 候補委員과 秘書局의 秘書를 包含하는 總 28個의 職位中 實際 機構의 構成員은 18名이다. 이는 政治委員會 正委員中 거의가 秘書職을 兼하고 있다는 結論이다. 뿐만 아니라 北韓의 行政府에 속하는 政務院 閣僚中 主要部署의 長은 거의가 黨의 中樞的 人物이다.

具體적으로 黨이 行政府를 統制하기 위해서 制度化된 諸般 機構 내지 組織을 살펴보면, 中央黨에 行政機關과 同一한 分野를 担当하는 機能部署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內閣의 重工業部에 該當하는 重工業部, 建設部에 該當하는 建設部, 水産部에 該當하는 水産部 등이

그 實例이다. 이리하여 黨의 各部는 政務院의 特殊部署를 監督하고 있다. 또한 黨은 行政에 대한 監査機能을 遂行하고 있으며 勞動黨 要員을 各級行政機關에 派遣하고 더욱이 各級行政機關에 組織되어 있는 黨委員會는 그 組織體의 中樞로서 意思決定的 機能을 하는 동시에 規制機能도 하고 있다.

모든 行政要員은 모두 黨員으로 任用되고 따라서 黨을 떠난 行政府란 생각할 수도 없다. 黨이 行政府를 統制하는 方法을 要約하면 黨中央委員會 밑에 部長會議을 두고 그 밑에 中央黨部를 만들어 이 中央黨部안에 行政各部에 該當하는 監督部署를 만들어서 統制하고, 둘째 黨은 「政治局」이라 불리는 一線機關을 重要 行政機關에 常設하여 軍隊에 대한 監督 뿐만 아니라 「朝鮮人民軍 總政治局」을 두어 軍의 政治的 訓練에 置重하는 政治局 外에도 「人民軍 黨委員會」를 따로 組織하여 軍의 人事問題까지도 다루고 있다. 셋째로 黨에서 事業現場에 指導集團을 派遣하여 事業自体를 統制하고 어느 職場에서나 幹部들은 黨員으로 되어 있어 모두 黨細胞에 所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核心黨員으로 構成된 檢察機關과 社會安全部를 두어 行政에 대한 監視役割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黨은 모든 社會의 利益集團들을 掌握하여 各界各層을 体系的으로 統制하고 있다.

以上으로 北韓의 黨과 行政과의 關係를 記述하므로써 黨과 行政과의 關係는 完全히 從屬의 關係임을 把握하였다. 이러한 黨·行政의 關係가 北韓行政의 特異한 構造를 이루게 되는데 그 特徵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黨의 要職을 맡고 있는 자가

行政의 요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이 重復되어 있는 点이며 行政의 業務를 감사할 수 있는 監査部署가 存在하지 않으며 이러한 監査機能은 党이 가지고 있는데 中央檢査委員會가 바로 그것이다. 党的 代表者를 行政機關에 常任시키므로써 公務員들의 黨員으로서의 生活과 業務에 대한 統制를 加하며 統制를 위한 対象單位 組織들이 広範하게 發達되어 있어 党과 行政과의 關係에서는 純粹한 党活動 領域 뿐만 아니라 實務的인 領域에서도 그러한 組織-方法을 使用하고 있다.

이와같은 政策執行 過程에서 党的 지나친 干涉과 統制는 行政의 能率性和 効果性的 면에서 볼 때 많은 問題點을 惹起시키고 있다. 즉 形式主義에 立脚한 行政代行의 消極的인 態度가 그 代表的인 問題라 할 수 있다. 最近 金日成이 機會 있을 때마다 「党組織은 行政業務를 指導·監督하는데 그치고 行政代행을 하지 못하도록」強調하고 있으며 이런 結果로 빚어지는 「行政機關의 形式主義와 消極的 態度를 扨拭하라」고 強調하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問題點들이 있음을 證明해 주고 있다. 1976年初 6個年 經濟計劃의 失敗에서 이와같은 教訓을 바탕으로 하여 中央党機構를 大幅 縮少했으며 經濟管理 部門에서는 党的 統制를 抑制하고 行政府의 独自の 이고 責任있는 事務遂行을 기하도록 하는 措置를 取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北韓의 行政體制가 內包하고 있는 逆機能的 要素를 스스로 立証하고 있는 바 이들 逆機能的 行態 및 要因에 대해서는 나중에 記述하겠다.

## V. 北韓 行政官僚의 行態

北韓 行政官僚의 行態는 다른 共產陣營國家의 官僚行態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獨特한 性格을 內包하고 있으나 比較의 틀로서 一般的으로 全体主義 独裁体制에서의 官僚行態를 北韓의 그것과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 1. 全体主義 独裁体制에서의 官僚行態

政治心理學的 側面에서 볼 때 全体主義 独裁体制에서의 官僚制는 暴力를 背景으로 하는 独裁者가 絶對的 權力을 維持하기 위한 權力支配를 위한 裝置로서 機能한다. 이 경우 官僚는 独裁者의 意圖로 부터 離脫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 行動과 價値의 基準은 外在的인 實權者의 命令에 依存하려고 한다. 이는 明確한 權限과 業務를 階層制의 原理에 立脚하여 分業化된 專門的 機能을 遂行하고 競争的 原理를 基本으로 하는 昇進制度, 機能的 合理性이 要請되는 業務의 專門化등의 內容을 包含하는 「막스·웨버」의 理想型的 官僚制의 特徵들과는 對照的이다.

蘇聯의 官僚制는 民主社會에서의 그것과는 顯저한 차이를 들어내고 있지만 共產社會에서는 그래도 相當히 積極的인 刷新을 指向하는 專門的 官僚로 確保되어 있다. 그러나 全体主義 独裁体制에서 官僚들이 지니고 있는 諸行態와 別로 다를 것이 없으며 그 特色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非公式的 要因의 重要性和 保身策의 摸索을 들 수 있다.

흔히 蘇聯의 官僚制 構造가 嚴格한 中央集權的 行政階層制로서 把握되어 官僚는 支配層의 意思를 충실히 機械的으로 實踐에 옮길 뿐이라고 생각되지만 現實은 이와 다르며 官僚 自身の 保身이나 地位 維持를 위한 政略的 行動이 展開되고 있다. 事實上 蘇聯 官僚는 生産의 飛躍的 增加를 願하는 上級者의 要求와 이러한 期待에 副應할 수 없는 自身の 無能 사이에 방황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위로 부터는 産業化의 加速을 위한 壓力을 받으며 指導層으로부터 最大의 努力과 成果를 要求받고 있는 蘇聯의 官僚制에서는 官僚의 成功 与否는 이러한 要求의 充足과 直結되어 있다. 그러나 官僚로서 成功하기 위해서는 忠誠과 能率만으로는 不足하며 자기에 게 가하여 지고 있는 要求에 對應할 수 있는 環境操作能力을 發揮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官僚는 情정이나 個人的 影響力 或은 實力者의 힘을 통하여 實踐이 可能的한 計劃을 追求하거나 所要되는 資源의 配定을 確保하기 위한 鬭爭을 벌이게 된다.

즉 官僚는 自身の 地位의 安全을 위해 手段을 講究해야하며 이 러기 위해서는 事前에 上下行政階層制와 結託이 必要하게 된다. 이 러한 關係는 公式的 階層制를 통하기 보다는 非公式的인 個人 對 個人的 行政이 盛行하게 되고, 非公式的 人間關係가 行政運營方式에 큰 比重을 가지게 된다. 行政能率의 觀点에서 보면 이와같은 非 公式的 非合理的 業務處理는 여러가지 病弊를 招來하게 된다. 나 아가서 여러가지 壓力, 統制 및 監視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 保身策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蘇聯 官僚制도 一般的인 逆機能의 特徵을 內包하고 있다. 各 官僚制는 그 自體의 特殊 利益을 追求하면서 割拠主義的 傾向을 露出시키고 있으며 無事安逸의이고 踏襲的인 行態로 責任轉嫁와 橫領, 收賄 및 腐敗行爲가 恣行되고 있다.

세번째로 官僚集團의 政治的 鬭爭과 葛藤·對立 現象을 들 수 있다. 黨官僚制, 警察, 軍部와 國家官僚制는 서로의 優位를 위해 鬭爭을 벌리게 된다. 한편으로는 計劃目標의 達成과 關聯하여 끊임 없는 緊張과 葛藤이 빚어지고 있다.

大體적으로 보아 蘇聯 官僚制는 體制에 대한 교묘한 對應術과 함께 工業生産의 迅速한 補充을 위한 政權의 要求에 順應하고 있다.

蘇聯과 같이 成熟한 共產主義 體制의 專門的 官僚들은 化石化 模型에서 주장하는 保守的 官僚라기 보다는 刷新의 源泉이 되는 西歐的인 機能專門家(functional specialist)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일어나는 새로운 政治現象은 上向的 影響力의 投射가 可能한 參與的 官僚制(participatory bureaucracy)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즉 微弱하나마 政策決定過程이나 統制過程속에서 多樣한 集團 活動과 이들간의 利益相衝과 調整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과 같은 全體主義 獨裁體制에서는 權力鬭爭에서 勝利한 者가 「이데올로기」解釋의 獨占權을 掌握하고 모든 政策을 合理化시킨다. 따라서 下部官僚로서는 盲目的으로 黨의 政策에 服從할 뿐이지 業務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實質적으로 內容을 檢討하고

創意的으로 立案하며, 價值判斷을 하는 主体的인 行動을 期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같은 官僚들은 無事安逸主義와 責任 회피 등의 特徵을 나타내며 黨路線의 變化에 따라 自身の 行動을 適應시키는 臨機應變的인 人間이야 말로 그 體制속에 殘存할 수 있게 된다.

## 2. 北韓 行政官僚의 行態

앞에서 記述한 바와같이 北韓 行政官僚制의 構造的 特徵은 黨을 中心으로 한 各級 行政機關의 統合組織이라는 點과 高度의 中央集權的인 組織類型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私的 領域(private sector)이 거의 없는 그들 體制속에서 諸般 事業을 執行하는 行政의 役割을 增大한 것인바 이러한 行政은 必然的으로 大規模의 官僚組織을 必要로 할 것이 明白하게 된다. 一元的 權威의 命令 支配體制를 構築한 北韓의 最高權力者는 그들 體制를 움직이기 위하여는 行政官僚들에 대하여 一定한 形態로 規制되어 나타나는 役割을 期待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最高支配者는 그들 行政官僚가 一定한 行態의 役割을 「命令一下에 完全 第一의 行動」을 一方的인 意思通路를 通하여 要求하고 있다. 下部官僚는 表面的으로는 絶對的 權力者의 意向에 符合되게 行動하도록 하나 實際적으로는 그들의 事業執行上 行動이 最高 支配者의 意圖와는 많은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惹起되는 最高 支配者와 官僚間의 乖離는 무엇 때문이며 또한 이 乖離를 메꾸는 方法은 어떤 것인가를 把握하므로써 그들

組織體 속에서 일하는 官僚들의 心理 내지는 行態를 分析할 수 있다.

北韓 最高支配者가 行政官僚들에게 要求하는 것은 「思想提高」라고 表現되는 金日成 獨裁에의 忠誠과 「技術提高」라는 實務水準의 發展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一元的이고 單線的인 權威下의 政治的 價值定向의 劃一성과 所謂 行政의 能率이라는 合理性 및 多元성이 調和를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그들의 葛藤이 곧 最高支配者와 行政官僚들간의 乖離의 原因으로 理解될 수 있으며 體制維持를 위하여 使用되는 諸般 對人的 統制手段 또는 制度的 統制方法이 곧 이러한 乖離를 메꾸는 方法으로 理解될 수 있다.

어떤 體制가 使用하고 있는 統制方法의 性格과 程度에 關한 分析은 그 體制가 안고 있는 內的 流動性 내지 變化要因을 判斷하는 準拠가 될 수 있다. 그 理由는 統制手段은 均衡的 維持를 위해 使用되기 때문에 이러한 統制手段의 表出은 均衡이라는 中間級 내지 最高權力者의 立場에서 볼 때 讓步possible한 最後의 線 以上の 反向的 作用이 存在함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理論적으로 統制手段에 따라 行政官僚들의 行態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떤 統制手段이 強制的 내지는 規範的일 때 行政官僚들의 行態의 心理的 단면은 두가지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즉 立身出世를 위한 無分別한 忠誠으로 表現되는 積極성과 內面的으로 는 한없는 自己疎外를 느끼는 疎外性이 그것이다. 이러한 內的 단면을 갖고 있는 行政官僚의 外的 行態는 다분히 그들에게 부여되

는 二元的 價值定向인 政治性和 實務性에 대하여 強한 同調라는 것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外的 行態는 非同調性 및 背向的 外面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에 準拠하여 北韓 行政官僚의 行態를 要約해 보면 權威主義, 形式主義, 責任回避 및 非創意性 등을 말할 수 있다. 北韓 行政官僚들의 이러한 行態는 「金日成選集」을 통해서도 평소 자주指摘했던 問題點들에서도 證明되고 있는 바, 「어떤 責任 幹部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체면만 차리고 있다」, 「이들은 도장이나 찍고 행세나 하는 것이 자기의 職責인 줄 알고 있다」 등등을 통해 「체면」 「행세」들의 用語가 이러한 權威主義와 形式主義를 暗示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劃一的 思想體系속의 单元的 權威만이 存在하는 社會에서 수 많은 人民大衆을 統制하고 事業을 助長하는 行政官僚職은 出身性分의 良好라는 社會階層의 好條件위에 下向的 國家的 命令의 執行者 내지 그 思想傳達의 通路機能을 担當하므로써 그들은 소위 「登用된 自身을 特殊 存在로 認定, 自高自大하는 傾向」을 나타내며 이러한 傾向으로 因하여 公明심과 地位慾이 發動되어 이는 곧 上部에 아첨하고 下部에 대하여는 抑壓과 兇害를 가하면서 勢道를 부리게 되는 權威主義的 行態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끊임없이 革命을 위한 党的 價值觀의 所有와 行動을 要求받는 北韓 官僚들은 公式的 行爲 規範을 嚴守하는 것 보다는 편안하고, 責任적야 할 일은 回避하는 無事安逸의 行態를 보이고 組織階層間에 있어서도 과도한 同調心理를 갖게 됨으로서 極度의 形

式主義와 同調過剩이라는 二律背反的인 忠誠의 實態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그들 統制手段으로서의 會議萬能主義는 個人이 自主적으로 責任을 지고 處理할 수 있는 案件을 形式的인 會議를 거침으로써 會議 自体에 責任을 轉嫁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下向式 命令體系 내지는 統制方法은 創意性を 喪失케 하고 非能率만 助長하게 되었으며 金日成體制에 挑戰的인 要素가 될 수 있는 如何한 것도 許用될 수 없고 金日成 敎示의 관철이나 無條件性 및 絶對性的의 強要는 創意力 내지는 革新性を 抹殺하게 된다.

經濟的인 側面에서 보면 自力更生的인 所謂 主体經濟는 對外 協力關係의 障礙要素로 나타나게 되었다. 特히 經濟部門 가운데 3大革命의 하나인 技術革命에서 이러한 矛盾을 克服하려는 흔적은 두드러지고 있다. 「技術革命도 하나의 革命인만큼 技術發展을 가로막는 保守主義, 事大主義, 技術神秘主義 및 經驗主義와의 鬭爭 없이는 成功的으로 推進될 수 없다」는 發言에서도 나타나 있다.

以上の 北韓官僚들의 行態는 그들의 批判으로도 証明되고 있다. 즉 「經驗主義는 우리 黨事業을 생기없는 것으로 만들며 形式主義 要領主義, 官僚主義 등을 助長시키고 그것을 만성적으로 만든다」고 指摘되어 있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結論的으로 北韓의 이와같은 統制方法은 行政官僚들의 性格을 攻撃的이고 戰鬪的이며 下部에 대하여는 批判的이고, 上部에 대하여는 絶對 服從하고 讚揚하는 黨에 대한 一體意識이 가장 높은 체 해

야 하며 金日成의 思想, 言錄, 指示 및 行動을 언제나 내세워야 하는 등의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것은 窮極的으로 官僚들의 逆機能的 矛盾이 繼續되는 것을 避할 수 없음을 뜻한다.

## VI. 北韓 官僚體制 變動의 推移

### 1. 社會變動 理論

F. Heady는 官僚制의 類型分析에서 蘇聯을 包含한 모든 共產國家들을 「共產主義的 全體主義體制」(communist totalitarian system)의 範疇에 包含시키고 있다. 그는 同類型的 特性으로 高度로 複合的인 行政機構와 이에 對한 黨的 統制의 綿密性을 浮刻시키고 있다.<sup>3)</sup> 行政機構는 黨的 監視를 받아야 하며 이 監視에 는 소수의 黨엘리트 指導層에 對하여 責任을 지는 支配網이 要求된다. 나아가서 國家官僚制는 黨官僚制에 對應되어야 한다. 그리고 行政構造는 極히 複雜하여 黨階層制와 國家階層制가 서로 連結되며 黨은 行政階層制의 大部分의 構成員을 黨階層制와 그 紀律에 服從케 하는 二重的 兼職裝置(device of dual office-holding)를 通하여 密接히 連結하므로써 黨的 統制를 強化하고 이로써 政治의 行政 浸蝕을 完全無欠하게 制度化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이 研究는 共產主義 社會의 下位體系인 官僚的 行政體制를 獨立된 比較概念으로 把握하므로써 既存의 包括的이며 推象的인 理論模型이 보여주는 模糊性을 克服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共產主義的 全體社會의 政治 및 行政 過程에 나타나는 黨性과 專門性間의 葛藤關係를 通하여 이를 社會의 變動 可能性과 變動의 根源을 밝히려

---

註 3) Ferrel Heady, Public Administr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pp.73-97.

하고 있는 것이다. 本論稿는 이러한 變動理論을 準拠로 하여 北韓 政治「엘리트」 및 行政官僚의 充員 樣式을 分析하므로써 이들 官僚體制 내지는 社會體制的 變動의 方向을 提示하는 것이 主된 目的이다.

政治엘리트 充員에 있어서 새로이 充員되는 政治엘리트의 性格은 엘리트 集團의 構成上의 變化를 가져올 것이고 그것은 長期的으로 政治體制的 變化에 影響을 미칠 것이며, 終局에 가서는 社會體制的 變化까지 誘導해 나갈 것이라는 體制變化의 豫測과 關聯을 갖는다.<sup>4)</sup> 이와 反對로 한 社會體제가 어떠한 變化를 要求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이 充員되는 엘리트의 性格變化를, 다시 말하면 엘리트 充員의 傾向을 特徵지우기도 한다.

近代化의 進展에 따라 社會全體의 複合性을 增加시키고, 技術 集約的 生産物 製造를 위해서는 技術的 專門性을 優待하게 되며 高度의 革命的 「이네올로지」의 政治的 干여 領域이 점차 減少된다. 經濟分野에서는 또한 閉鎖的 經濟體制로서의 自給自足이라는 政策에 대한 盲點이 나타나게 되고 國家 貿易의 必要성과 그에 隨伴하는 動員體制的 統制方式을 緩和할 必要性을 느끼게 된다. 특히 後進國의 경우 初期에는 先進共產國의 生産 樣式 및 技術을 模倣하는 程度에서 滿足하나 그들 自身의 發展을 위해서는 生産方法의 繼續的인 刷新이 要請되어 새로운 專門家 集團이 必然적으로 登場한다.

一般적으로 體制形成期(system-building)의 難關을 克服한 共

註4) L.C.Seligman, "Elite Recruitment and Political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s, Aug. 1964, 612.

産政權은 體制管理期(system management)로 접어들면서 차츰 政治的 忠誠心を 앞세우는 党性(red)의 強調로 부터 專門技術的能力을 重視하는 專門性(expertise)의 優待 方向으로 轉換된다. 다시 말하면 大規模의 動員時期에 있어서는 政治的 立場이 優先的으로 考慮되는데 反하여 比較的 安定된 時期에는 오히려 專門的 能力이 要求된다는 것이다.

이들 두 集團 사이에는 教育內容, 經歷, 背景 및 專門職業的 性格 그리고 價值觀과 社會觀에서 두드러진 差異를 나타낸다. 專門家 集團의 경우 社會의 諸 部門이 發展함에 따라 어려운 專門技術性을 所有한다는 個性的 特權에 의하여 諸般 意思決定에의 基本的인 資料를 掌握하고 그 決定過程에 參與하게 된다. 따라서 政治體制의 根幹을 形成하고 있던 黨官僚, 즉 革命的 엘리트들은 그들의 革命的 經歷과 統制機能의 中樞役割을 배경으로 強力하게 集團的 利益을 主張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兩者間에 深刻한 葛藤이 顕在化하게 된다.

이 두 集團間의 葛藤에 대해서는 結局은 體制의 本質的 變革이 可能하다고보는 見解와 共存의 可能性을 提起하는 見解가 있는데, 前者는 社會의 産業化가 進展됨에 따라 社會의 複合性과 官僚制化의 傾向이 두드러지게 되면 動員體制的 共產政權이 갖는 非合理性에 대신하여 産業社會의 慣行이 자리잡게 되며 나아가서 黨獨裁의 正當化가 不可能하여 體制의 變化를 招來한다고 主張한다. 이에 反해 後者는 黨的 엘리트에 대한 專門家 엘리트의 對決에는 限界性이 있어서 그들의 固有 領域에 대한 「政治介入」이 排除되어

兩者間에 이른바 「境界維持」(boundary maintenance)의 作用이 일어나서 그들 사이의 共存 현상이 可能하다는 것이다.<sup>5)</sup>

## 2. 充員의 새로운 傾向

蘇聯과 같이 成熟한 共產主義 社會의 경우에는 그들의 官僚的 成長過程에서 거의 不可避하게 工業 내지 農業分野에 관한 管理指導能力, 計劃能力을 쌓게 되어 많은 頂上級 政治指導者가 一種의 「테크노크라트」(技術官僚)類型으로 看做되는 過程에 있다. 또한 50年代以後 蘇聯의 政治的 指導體制의 重要한 核心的 地位에 職業的 政治人이 아닌 政治體 外部의 專門的 知識人이 投入되는 实例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專門的 知識人으로 社會的 成長을 한 非政治的 人事들이 中央委員會나 政治局 要職에 參與하여 主要한 政策決定에 한 몫을 担当하고 있는 例가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專門的 知識人들의 政策開發 내지 問題解決 能力이 蘇聯의 社會發展을 위해 不可欠의 要因으로 理解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일 뿐아니라 蘇聯 社會內의 政治體와 社會體 사이의 協力의 証拠로 理解될 수 있다.

中共의 경우 역시 1958 ~ 1959年代의 「大躍進運動」에서 뒤늦게 党性 보다는 技術的 專門性으로 눈을 돌렸다.

한편 北韓의 大部分의 行政官僚들은 出身性分이 良好하다는 것을

---

註 5) A. Inkeles and R. A. Bauer, *The Soviet Citizen: Daily Life In a Totalitarian Society*,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P. 389.

主된 理由로 하여 体制形成期에 大量으로 必要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 充員되었던 者들이다. 그러나 6.25 動亂 以後 그들의 政治体制가 頻繁한 肅清을 통하여 어느 程度 자리가 잡히고 소위 重工業 發展을 위한 技術人力の 培養이라는 經濟的 要請에 符合되는 專門性이 強調된 것과 同時에 이를 뒷받침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教育体系가 確立되어 行政官僚의 充員에 있어서도 党性 評價는 勿論 專門성과 実績을 優待하는 充員 類型이 普遍化되고 있다.

北韓의 基本政治 路線인 「3大革命力量」에서도 그들의 새로운 充員 傾向을 分析할 수 있는데 즉 「北朝鮮의 革命基地化」를 위해서는 經濟 專門家와 技術者 및 党性이 강한 幹部가 必要하게 될 것이며, 「南朝鮮의 革命力量」強化를 위해서는 對南工作을 担当할 專門家가 必要하며 「國際 革命力量」과의 紐帶를 強化하기 위해서는 外交面에 있어서의 專門家가 必要하게 될 것이다. 勿論 어떤 엘리트이든 党性이 具備되어야 함은 北韓社会에서는 必須條件이 된다.

이러한 새로운 充員 傾向이 實際적으로 反映된 것은 여러 方面에서 찾아볼 수 있다. 党中央委員會 構成을 中心으로 하여 보면 그 頂上級層인 政治委員會 正委員의 경우에는 12位 이근모를 除外한 全員이 「Red」의 範疇에 속하나 第2階層(22位까지)은 大部分이 「expert」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專門家 類型은 比較的 執行的 側面이 強調되는 党秘書局이나 專門的인 行政的 次元의 政策決定이 큰 比重을 차지하는 中央人民委員會에는 그 進出이 可能한 듯하다. 이는 中心的 權力엘리트 集團의 絶對性을 侵害받지

않되 体制의 維持와 繼續性을 지키기 위한 機能的 必要性에 順應해 보려는 過程으로 理解될 수 있다.

北韓에 있어서 技術者 및 專門家들의 數的 增加現象을 보면 다음과 같다.

区 年 度 分	1953	1957	1960	1961	1962	1964
技術者 및 專門家 總數	21,872	73,358	113,466	161,310	183,117	293,504
技 士	1,837	5,860	11,991	16,220	21,446	43,544
技 手	6,763	22,429	57,978	66,493	76,662	136,250
專 門 家		15,410	26,005	36,237	44,001	66,347
中 專 門 家	73,273	29,659	37,492	41,910	40,998	49,365

資料：朝鮮中央年鑑，朝鮮中央通信社，1965.

이와같은 專門家の 量的 增大 現象은 共產体制의 경우 國家가 經濟計劃 및 諸般 生産管理의 直接的인 担当者라는 點에서 그들 行政官僚들의 充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適用될 수 있다.

勿論 「革命的 指導者들로 構成되는 共同体에의 充員은 準道德訓練과 經歷을 쌓은 者들에게만 許用된다」는 그들 動員体制의 基本公式에서도 볼 수 있듯이 北韓에서 엘리트 充員의 基本要因으로서 党性이 專門性 보다 重視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아직도 頂上級 階層인 党中央委員會의 政治委員會 正委員 12名은 社会的 背景 經歷등에 있어서 高度의 同質的 構造를 보이고 있으며 一種의 金日成의 分身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年齡構造로 보아 60代에 集中的으로 屬해 있으며 그 過半이 正規的 教育을 받지 못했음을 볼

때 專門性 보다는 党性이 훨씬 優勢함을 證明해 주고 있음은 事實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엘리트 充員 問題에 關聯하여 눈에 띄는 것은 權力 頂上層의 社会的 流通性和 關聯하여 重要的 뜻이 있는 肅清 樣式의 變化이다. 即 最近에 들어와서 肅清은 反對派에 대한 完全한 價值 剝奪의 意圖과 關聯되기 보다는 政策上的 葛藤 내지 失敗와 더 결부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課業 엘리트의 경우 部分的 復權도 可能하게 되었다. 이러한 事例는 體制內의 政策 論議 내지는 批判을 助長할 可能性을 낳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社會의 必要에 의한 새로운 充員 傾向이 表出되고 있다.

### 3. 北韓의 官僚體制의 變動方向

어쩔 수 없이 進行되는 體制 近代化 政策은 北韓 社會의 構造的 分化和 複合化를 深化시켰고 또한 體制管理를 위하여 나타난 거대한 官僚制의 影響은 教條的 理念指向의 党性(政治性) 優位 風土의 漸進的 變化를 豫告하기도 한다. 이는 「Red」 위주의 黨 엘리트에 補完的 役割을 担当하게 될 專門技術을 所有한 소위 「革命的 테크노크라트」의 相對的 急浮上을 意味할 수도 있다. 이는 現實的으로 當面하고 있는 經濟成長 政策의 失敗에 대한 修正 要求와 이의 克服方案으로 專門技術者의 重用을 不可避하게 할 것이다.

現在 北韓의 엘리트 構造는 革命世代로서 金日成을 擁立하고 그

의 似而非의 카리스마 構築에 努力해준 戰後 集團은 그들의 老衰와 더불어 점차 權力의 移動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어떤 共產主義 國家나 秩序있는 權力繼承方法이 制度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代表的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對外的인 自主性이 크면 클수록 權力承繼 問題는 国内化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外的 變數의 介入을 避하기 어렵다. 둘째로 權力 承繼는 既存 政治 指導者의 「퍼서널리티」와 密接하게 聯関되며 그의 政治的 目標가 後繼者 選定에 크게 左右된다. 셋째로 支配者의 權威가 安定되어 있을 수록 일찍 試圖되는 傾向이 있으며 그럴수록 權力承繼過程이 큰 마찰없이 進行된다는 것등인데 北韓과 같이 政權의 個人 依存度가 높은 경우 絶對者의 退去는 体制의 深刻한 構造的 危機를 불러 일으킬 公산이 크다.

現在의 北韓의 對內外的 狀況을 考慮해 볼 때 北韓의 權力 承繼 問題는 어느 程度 「国内化」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의 國際狀況에서 보면 北韓이 蘇聯이나 中共과 銳利한 利害對立을 벌릴 개연성은 별로 찾아볼 수 없으며 中·蘇 兩國의 相互 견제요인도 考慮에 넣는다면 北韓의 權力 承繼問題에 對外的인 要因이 크게 作用할 余地는 別로 없다. 그렇다면 現在의 政治權力者인 金日成의 個性이나 그의 政治目標와 密接하게 聯関되겠다고 보아야겠다. 金日成의 편집광적인 權力 集中慾과 緣故指向的인 帰屬主義的 俗性을 考慮할 때 血緣을 우선으로 한 後繼者 選擇이 確實해진다.

그러나 社會의 機能的 分化로 因하여 党性 위주의 緩和가 可能

하다는 事實과 現支配層의 老衰로 新人 專門家 類型의 課業 엘리트의 登場 및 世代交替가 不可避함으로서 政治的 葛藤이 顯在化될 것이며 나아가서 政治的 多元化 傾向을 露呈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經濟面에서도 技術과 資本의 限界性으로 開放 經濟體制에로서서 轉換될 것이며, 生産性的 限界를 克服하는 方法으로 部分的인 經濟改革을 試圖하여 이는 社會體制的 構造的 變化를 招來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政治, 社會 및 經濟的 條件과 關聯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에는 海外志向性이 큰 外交通들의 上向的 進出이다. 이것은 北韓의 對外的 接觸이 多樣化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現在와 같은 金日成의 偶像文化가 支配하는 限 統治 樣式의 決定的인 變化는 짧은 時間內에 期待하기 어렵다. 그러나 動員政策의 展開에 따라 北韓의 社會構造的 變化는 繼續될 것이며, 이는 産業社會化 過程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의 文化的 特徵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社會 諸部分의 自律性的 要求는 政治體制的 社會統合 能力의 脆弱性을 들어 보일 것이다.

現代 社會에 있어서 政治와 社會는 서로 影響을 주고 받는, 다시 말해서 「社會의 政治化」와 「政治의 社會化」가 同時에 進行되는 關係에 있다. 北韓政權과 같이 一方的인 「社會의 政治化」만을 追求하고 權力集團의 엘리트를 金日成과 原初的 關係에 있는 血緣으로 構成된 小集團에서 充員하기만을 高집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機能的 遲延(functional time lag) 현상이 실상은 體制的 退化를 재촉할 수도 있는 것이다.

# 北韓政治文化的 形成과 그特徵

李 文 雄

## 目 次

I. 序 論 .....	113
II. 政治社会化過程.....	117
III. 政治動員의 諸形式 .....	125
IV. 教育和 教養事業 .....	134
V. 憎惡의 美德 .....	140
VI. 「家族国家」로서의 北韓.....	148



## I. 序 論

南北韓의 韓半島가 分斷된지 이미 한世代가 훨씬 지났다. 같은 政治, 經濟 體制下에서의 단지 領土만의 分斷이라면 - 그간 兩側 間에 정상적인 社會, 文化的인 접촉의 채널이 존재했었다면 - 우리는 南北韓社會의 異質性을 다룰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南北韓은 相異한 政治, 經濟體制下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領土만의 分斷이 아닌 거의 완벽한 社會, 文化的인 접촉의 不在와 그 結果는 民族의 再統一을 가로막고있는 하나의 거대한 장벽임이 틀림없다. 解放後 北韓에 투입된 새로운 外來文化 特性의 하나로 共產主義이데올로기 및 經濟體制는 우리의 傳統文化와 끈임없는 相互作用의 結果로 오늘의 北韓의 社會文化體系 (sociocultural system)를 낳았다. 人口의 構成面에서 본다면 北韓人口의 약 半數의 젊은 世代가 共產主義體制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韓國의 傳統文化가 共產主義이데올로기로 채색되고 그 밑에서 성장한 젊은 世代가 北韓 社會의 主導的인 人口層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民族의 分斷으로 인한 傳統文化의 異質化를 더욱 부채질하는 要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論文은 共產主義體制下에서의 北韓의 政治文化의 形成과 그 特徵을 파악하려는 하나의 試圖이다. 世界의 모든 共產主義國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現象으로, 北韓에서도 社會化文體系에서

政治的인 側面이 차지하는 정도는 압도적인것 같다. 住民生活의 모든側面이 政治와 관련되어 있고, 社會變動 내지는 社會發展의 가장 중요한 原動力 (prime-mover) 을 곧 政治에서 찾으려고 하는 共產主義者들의 哲學은 北韓의 政策에 관한 公式的인 文獻의 어디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이것은 政治的인 힘 (political force) 이 곧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住民들에게 주입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最近에 들어와서 社會科學分野에서 「政治文化」라는 새로운 용어가 흔히 사용되어오고있다. 이것은 政治學 특히 比較政治學分野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文化」의 概念이 多樣한것과 마찬가지로 이 「政治文化」라는 용어도 많은 相異한 概念으로 사용되고있다. 比較政治學에서 흔히 사용되고있는 한가지의 예를 든다면, 알몬드와 버바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는 한社會의 政治文化를 “그會社를 구성하고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느끼고, 평가하고있는 바의 政治體制” 를 가르키는 用語로 사용하고 있다. (註①) 우리는 이 定義에서 社會構成員들의 그들

---

註①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1963, Boston; Little, Brown and Co. P. 13 참조. 이와 유사한 概念들은 다음 文獻들에서 참조; Gabriel A. Almond, “Comparative Political Systems,” i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18 (1956); 391-409; Sidney Verba, “Comparative Political Culture,” in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by Lucian W. Pye and Sidney Verba (ed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P. 512-560.

의 政治體系에 대한 心理學的인 志向 (psychological orientation) 이라는 主觀的인 側面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政治文化」가 이렇게 극히 한정된 概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우리는 오늘날 北韓社會에서 진행되고있는 政治過程 (political process) 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것같지 않다. 이 論文에서는 北韓이라는 社會文化體系속에서의 한 下位體系 (sub-system) 라고 할 수 있는 政治體系를 구성하고 있는 諸部分 또는 要素들간의 相互作用을 편의상 北韓의 政治文化로 간주하고 論議를 전개하겠다.

北韓의 社會過程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바이지만, 北韓의 住民生活에서 政治는 하나의 全體를 이루는데 빠져서는 안될 필수인 部分이다. 이것은 곧 社會의 構成員들을 全體로서의 한 政治體系에 연결시키고 묶는 가장 중요한 動員 메카니즘이기도하다. 그러면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政治」라는 용어를 어떤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北韓의 公式的인 견해를 대변해주고 있는 <정치사전>에는 「政治」를 “일정한 계급이 의회에 대한 계급적지배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註②)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政治를 社會. 經濟的인 側面에서 住民生活을 통제하고 조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動員메카니즘으로서의 政治는

---

註②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政治事業」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역시 <정치사전>에 의하면 「정치사업」이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정책과 제기된 혁명과업의 정치적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알려주어 그들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고 못박아놓고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政治」 및 「政治事業」이北韓의 社會過程 내지는 政治過程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政治」 및 「政治事業」이 실제의 住民生活에서 어떻게 作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北韓의 政治文化에 접근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北韓의 住民들이 「政治生活」을 통해서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어떻게 內面化시키고 있는 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幼兒期的 社會化過程이 성장한후의 政治的인 行爲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假定 밑에서 論議를 시작한다.

## II. 政治社會化 過程

人間은 아무런 文化를 갖지 않고 (cultureless) 특정의 既存의 文化속에서 태어나서, 그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그 社會의 文化를 內面化한다는 命題는 人類의 知的傳統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共產主義社會의 成員들이 共產主義者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社會文化體系속으로 태어나서 社會化過程을 통해 퍼스넬리티가 형성되고 共產主義者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北韓의 政治社會化過程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은 民衆들을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틀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國家的인 政治體系의 網狀組織으로 연결시키는 主要 메카니즘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北韓의 어린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政治이데올로기에 노출한다. 傳統的으로 生産單位로서의 家族의 기능은 이미 家族의 범위를 벗어난 生産組織으로 옮겨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社會의 基本的인 構成單位를 家族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점은 家族을 社會의 核心 또는 「細胞」라고 부르고 있는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幼兒期의 子女養育은 주로 탁아소 및 유치원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家庭의 子女들의 社會化過程에서 전혀 영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共產政權當局者들은 全會社를 「革命化」시키는 첫 단계로 「家庭生活의 革命」을 불러 이르기까지 강조해왔다. 傳統社會에서 家族

이 차지한 중요한 역할들은 社會主義建設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위 「家族主義」를 儒教的인 傳統의 잔재로 간주하여 이 文化要素를 제거해 버릴려는 강력한 캠페인을 벌려나 있다.

그러나 그들은 父母와 子息들간의 긴밀한 家族關係를 파괴시키려는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孝의 觀念은 어느 정도로 잔존하고 있는 것 같다. 北韓의 民俗學分野의 機關誌인 「고고민속」은 孝를 文化遺産으로 보존해야할 美風良俗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註①) 한편으로는 儒教的인 思想을 송두리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子息에 대한 사랑을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에 비유한 것을 보면 유교적인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표현인것 같다. (註②) 또한 子息이 부모를 존경하고, 父母의 老後를 돌보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이며, 만약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배은망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註③) 등은 家庭生活의 중요성을 아직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인용들에서 반드시 하나의 但書가 첨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된다. 즉 이러한 理想的인 父母와 子息간의 관계는 만약 그들의 父母가 反社會的인 행위를 범했을 때에는

註① 「고고민속」제 53호, P. 3. (1966年 11月호)

② 「조선여성」 1962年 1月호, P. 22.

③ 이종홍著, 「결혼, 가정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 평양; 민청출판사, p. 67 (1958年)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 子息들은 공개석상에서 父母를 여지없이 비판하고 공격해야하며, 또한 그렇게 해야만이 黨과 政權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용가능한 모든 人力을 최대한으로 動員하여, 生産的인 活動에 투입하는 北韓의 政治體制下에서는 家事만을 전담하는 家庭婦人이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幼兒期의 子女를 가진 婦人은 혹시 가정에 生産活動에 참여하지 못하는 老人이 있으면 子女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탁아소에 맡긴다. 물론 탁아소는 婦人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幼年期의 子女들에게 集團生活을 익히게하는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탁아소는 一日탁아소와 週탁아소가 있어서 아침 출근시에 아이를 맡기고, 나가고, 퇴근시에 찾아가든가, 아니면 특수한 職種에 종사하는 女性들에게는 週日에는 계속해서 탁아소에 子女들을 맡겨 놓았다가 週末에만 찾아가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탁아소는 4세 이하의 어린이들만을 수용하게 되는데, 4세가 넘으면 유치원에 입소시킨다. 탁아소의 日常生活은 엄격히 통제되어 평상시에는 부모가 찾아가서 볼 수도 없다. 젖먹이는 시간은 1年이하의 幼兒는 오전과 오후에 각기 두번씩, 1年이상의 幼兒는 각기 한번씩으로 규정되어있고 每回 30分씩 젖먹이기가 허용된다.

탁아소에서의 主要 教育內容은 國家와 黨에 대한 忠誠心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일이다.

야소 및 유치원의 모든 재정적인 지원은 「수령」과 黨이 제공한 것으로 가르쳐지고, 식사때나 간식을 할때에도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감사합니다」를 부창시킨다.

4세가 넘어 유치원에 들어가면 소위 「교양사업」이라고 불리는 이데올로기 敎育의 작업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다. 「수령의 참된 아들딸로 어린이들을 키우기」위해서 김일성의 어린시절에 관한 극히 歪曲된 歷史는 學習을 위한 聖典이 된다. 「노동신문」의 한 표현을 빌리면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도록 어린이들을 교양”하며, 어떤 유치원들에는 “원수님을 따라 배우는 방”까지 꾸며서 여러 가지 사실적인 교재들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註④) 敎養事業面에서 北韓의 當局者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제들중의 하나는 새로운 世代의 젊은이들이 共產化以前의 社會生活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共產主義者들은 韓國歷史의 과장되고, 歪曲되었으며, 심히 歪曲된바의 否定的인 측면에서 民衆을 動員하고 「革命的熱意」에로 자극시키는 主要原動力을 찾아내고 있다. 과거의 지주 및 權力層의 「착취」에 대해서 이들 젊은 世代는 실제로 경험한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히 政治敎養事業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北韓에는 生動한 자료들이 흔히 동원된다. 協同農場의 「민주선전실」에는 과거의 「착취계급」 내지는 역사전반의 否定的인 측면을 증오하는 그림

註④ 「노동신문」 1970年 5月 9日字, P. 6.

들이 예외없이 붙어있고 이를 주제로한 학습토론회는 이제 日常生活過程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北韓共產政權은 社會를 革命化시켜 經濟發展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技術, 文化, 思想의 「三大革命」을 강력히 추진시켜왔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것은 思想革命으로 어떤 점에서는 人間改造事業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상교양사업」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캠페인에서 우리는 그들의 自由意志의 哲學을 엿볼 수가 있다.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며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 품성을 소유한 새형의 인간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註⑤) 즉 사람들의 의식을 改造하는 것은 社會, 文化의 계획적인, 또한 의도적인 變動을 가져오는 첫단계로 보고있다. 이것은 經濟的인 下部構造가 思想 및 이데올로기의 上部構造를 결정 짓는 要因이며, 社會, 文化的인 變動의 原動力이라는 共產主義의 기본적인 원칙에 모순되는 견해라고 하겠다.

集團主義에 대한 教育은 幼兒期에서 부터 시작된다. 탁아소 및 유치원은 이를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보내며, 거기서의 教育의 내용이 集團主義思想으로 담겨져 있다는 점은 北韓의

---

註⑤ 「청년생활」 1963年 12月호, pp.26-27.

젊은 世代를 이해하는데에 고려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國家 및 社會의 利益을 위해서는 個人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하는것이 요구된다. 集團的인 노동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個人의 자각적이고 현상적인 노동은 곧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진다. 個人의 利益은 항상 全體의 利益에 종속해야 하며, 全體社會의 利益을 위해 진력하는것이 곧 個人의 利益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이다. 「자기 희생을 영예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방조를 기쁨으로」라는 슬로건은 北韓의 集團主義教育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즉 자기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곧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가 앞서 가면 다른 사람을 따라오도록 도와주고 자기가 소속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앞서도록 모든 자기 희생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가르친다. 集團內에서의 몇몇의 탁월한 成員을 배출하는 것보다는 集團全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思想教養事業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고 있는 聖典들중의 하나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日帝時期의 「抗日鬪士」들의 수많은 무용담으로 채워져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이모두가 共產主義者들이 主動이되어 일어난것 처럼 歷史的事實을 크게 歪曲하거나 또는 가상의 사건을 조작하여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聖典」에 기록된 「歷史的事實」들의 사실여부를 논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宗教의 聖書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의 사실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들의 중요성은 바로 민중들을 「革命傳統」에로  
몰고가는, 이끌어가는 하나의 메카니즘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들 「유격대원들」의 集  
團生活, 團結, 同志愛 및 제반 行動規範등을 典型으로한 새로운  
「社會主義的人間象」을 따라 배울것이 강조된다.

北韓의 政治社會化過程은 또한 党的 諸政策을 正當化하는 과정이  
기도 하다. 日常生活, 특히 組織的인 集團生活에서는 소위 「党性」  
이 극히 강조된다. 党性의 強, 弱은 個人의 社會的인 政治的인  
地位를 左右하는 關鍵이된다. 이 党性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다음의 陳述에서 살펴보자.

당성이란 党的 政策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힘,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바쳐 싸우려는, 당과  
인민에 대하여 무한히 충성스러운 그러한 전투정신을 가리켜 말하  
는 것입니다. (註⑥)

즉 党性은 党에 대한 무한한 忠實性과 맹종성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요구된다.  
社會過程에서 發生될지도 모르는 온갖 갈등 및 불평, 불만의 표현  
은 물론이거니와, 일단 생활과정에 들어간 党的 政策에 異議를 제  
기하는 것은 党性이 약한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統制  
되고만다. 이러한 党性은 北韓의 共産黨員 (조선노동당원)에게만 적

---

註⑥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1960년) P.27.

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精粹의 열성분자만을 黨員으로 받아들  
이고있지만, 党性의 概念은 全體民衆에 확대되어 적용된다는 점은  
그들이 党性을 말할때 거의 예외없이 「노동계급의 당성」으로 부  
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즉 노동계급의 사람들이  
모두가 黨員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党性은 강요되고 있  
으며, 金日成의 革命思想이라는 소위 「党的 唯一思想」으로 무장할  
것이 기대된다.

「정치사업」은 北韓의 政治社會化過程에 關係해서 빼놓을 수 없  
는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미 앞에서도 「정치사건」으로부터  
“정치사업”의 概念을 인용한바 있지만, 이것은 民衆들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작업이며, 모든 과업의 수행과  
정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못박아놓고 있다. (註⑦) 다  
른말로 바꾸면, 정치사업은 민중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의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유도하는 작업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대전제 밑에서 수행되는 이작업은 민중들 個個人을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囚人」으로 만드는 大衆操作을 위한 또 하  
나의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하겠다.

---

註⑦ 「정치사건」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761.

### III. 政治動員의 諸形式

한 社會의 全體成員들을 소위 「唯一思想體系」로 묶어 政治的인 影響力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強力한 社會統制를 요한다. 北韓住民의 日常生活은 모든 側面에서 철저히 組織化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전반적으로 항상 監視의 대상이 된다. 北韓社會에서 운용되고 있는 社會統制의 한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우리는 「安全網」이라고 불리우는 民衆生活一般을 감시하는 組織網을 들 수 있겠다.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北韓의 農民生活에서 나타나는바의 安全網의 性格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都市生活에서도 職業的인 특수성에 關聯된 약간의 차이를 除外한다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農民들의 生活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監視를 위한 「安全網」은 대체로 세가지의 종류로 구분된다. 즉 社會安全員에 의해서 집행되는 「情報網」, 黨員간의 「黨員監視網」, 그리고 「群衆監視網」의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앞의 두가지의 組織網은 정보수집 및 감시에 있어서 엄격히 비밀에 부쳐지지만 마지막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北韓의 內部的인 安保의 과업은 다른 나라에서의 警察機關에 해당하는 「社會安全局」의 행정채널을 통하여 수행된다. 이 社會安全局은 모든 레벨의 各行政單位에 支部를 두고있는 셈이다.

各 協同農場마다 社會安全員室이 있어서, 여기에는 한사람의

「책임안전원」과 몇명의 「안전원」을 배치해 놓고 있다. 사실 이 안전원들은 現役軍人들이며, 특히 책임안전원들은 現役將校라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다른 農場員들과 같이 平服을 입고 農場生活에 적극 참여한다. 住民生活에 대한 情報蒐集 및 監視의 과업은 이들 安全員들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이때 그들은 몇사람의 農民들을 工作助員 또는 提報者로 確保하여 다른 농민들이 모르게 임무를 수행한다. 심지어는 이들 提報者들간에는 그들의 正體가 일체 秘密에 부쳐지기 때문에, 한 提報者는 다른 提報者가 누구인지를 알지못한다. 그들은 각기 수집한 정보를 담당 안전원에게 직접 보고하며, 이 「정보망」은 주로 北韓政權의 政治 및 이데오로기의 路線을 지지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문제와 불평, 불만자들을 다루는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安全員들은 農場員들과의 친숙한 사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한다. 비록 그들이 정상적인 農場員이 아니라 정보의 임무를 띠고 파견된 特殊要員들이지만, 農場員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農場의 작업에 참여한다. 때로는 農場의 老人들의 生日에 술을 선사하기도 하고, 農場內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임에는 자유롭게 참여한다. 情報蒐集의 특수임무에 그들은 農場員들과 그들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줄만한 또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67年 北韓을 脫出하기까지 한 協同農場에서 現역장교로 責任安全員으로 파견되어 일한바 있는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安全員은 情報蒐集 뿐만 아니

라, 새로운 營農術의 導入을 包含하는 모든 政府施策의 실행과정  
을 監督하는 責任도 지고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農場에 파견되는 安全員은 農業專門가로 訓練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그들이 農場員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또한  
農場內에서의 제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安全員들은 農村人口를 全體政治體制에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周邊人間」(marginal man)이라고 불려도 좋겠다.  
그들은 正規農場員이 아니면서도 農村에 상주하면서 中央에서 이루  
어진 政策을 農村에 연결시켜주고, 都市文化를 農村에 심는다. 즉  
그들은 都市와 農村의 中間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은 要員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黨員監視網」은 農場의 黨委員長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農場의 핵심당원들중에서 情報要員을 선발하여, 委員長은 그의 要員  
들에서 정보수집의 특수임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게 된다. 이 조직  
망에 의하여 수집된 情報는 黨組織의 채널을 통하여 상부에 보고  
된다. 農場生活에 있어서 黨員들은 모든 社會的인 또는 政治的인  
活動의 核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活動을 특별히 감시  
하는 것은 소위 「革命課業」을 수행해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  
주 된다.

「군중감시망」은 勞動赤衛隊와 人民班의 組織을 包含하고 있다.  
이 兩者가 모두 정보사찰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그의  
사업 및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勞農赤衛

隊은 北韓의 防衛體制를 강화하기 위해서 1959年 초에 처음으로 조직된 것으로 이것은 아마도 戰後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中共軍이 1958年에 철수하자 이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으로 간주된다. 初期에 勞農赤衛隊는 都市, 휴전선부근 및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직되었으나, 今日에는 北韓社會의 모든 領域에 걸쳐 그 조직이 擴大되었고 防衛體制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政治적으로 「不純分子」 또는 「反動分子」로 분류되지 않은 18세에서 45세까지의 男子와 18세에서 35세까지의 女子에게 赤衛隊에 가입할 자격을 준다. 女性赤衛隊員은 既婚일 수도 있고, 未婚이어도 좋다. 그러나 일단 첫아이를 낳으면 그는 자동적으로 赤衛隊를 떠나게 된다. 協同農場내에서는 赤衛隊는 生産組織단위로 조직된다. 즉 각 農場은 赤衛隊의 一個大隊의 단위가 되고, 作業班은 中隊의 단위로 된다. 그리고 里黨委員會의 長은 赤衛隊의 大隊長을 겸하게 된다. 赤衛隊는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農場에서 정기적으로 軍事訓練을 받는바, 농한기에서 더욱 그 訓練이 강화된다. 비록 그의 主要目的이 國防力을 강화하는데 있지만, 赤衛隊는 民衆들의 生活을 통하는 한 중요한 메카니즘으로서의 구실도 담당하고 있다. 例컨데 農場에서 발생하는 「反動的인」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는 赤衛隊의 組織체널을 통해서 上部의 當局者들에게 보고된다. 이와같이 黨組織과 중복되어 조직된 이 勞農赤衛隊는 民衆들의 日常生活을 엄밀히 감시하고, 政策課業의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逸脫行爲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있다.

各農場은 人民班으로 불리우는 여러개의 이웃집단을 가지고 있다, 서로 가까이 살고있는 이웃들로 조직된 이 人民班은 農場의 生産 組織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것은 다시 몇개의 더 작은 集團으로 쪼개져서, 각기 「五家組」라고 불리우는 平均 다섯 家口로 이루어진 말단조직을 구성한다. 이 五家組는 責任感이 강하고 충성심이 강한 幹部가 이웃을 이루어 살고있는 몇 家口를 責任지고, 그들을 담당지도하는 하나의 組織으로 1958年 末에 시작된 것이다. (註①) 1971년까지 이 五家組는 「5호담당제」로, 그리고 거기의 指導者는 「5호담당선전원」으로 불리워졌었다. (註②)

물론 이 五家組는 반드시 다섯 家口를 구성되는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이상의 家口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각 五家組의 長은 成員들의 일상생활의 제반활동을 감독한다. 그는 每日 모든 成員들 家庭마다 적어도 한번씩 들러서 그날의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人民班의 班長에 보고하면, 班長은 다시 各組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里人民委員會의 會長에게 보고한다. 五家組의 成員들은 자주 全員の 會合을 갖고 事故防止, “자발적인” 무로봉사노동, 社會·政治的인 狀況등을 討議한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에 보도된 한 예에서 보면 이 五家組의 指導者들은 사람들에게 集團主義의 정신으로 利己主義를 뿌리뽑기를 강조함으로

---

註① 「노동신문」 1976년 9월 13일자.

② 「노동신문」 1971년 5월 19일자.

서 “가정 생활을 혁명화”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註③) 즉 이 경우에는 中學校 女教師인 한 組長이 그의 組의 各가정에 가서 모든 成원들에게 읽어야 할 숙제를 내어주고, 각 가정별로 5일에 한번씩 모여 家族員들이 숙제의 내용을 그들의 가정생활과 관련시켜서 토론하도록 하게했다는 것이다.

위에서와 같은 조직적인 監視 監制下에서는 農場員들의 日常生活은 만약 그것이 渠國全體에 影響을 미칠만한 것이거나, 혹은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면 일체 당국에 보고된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을 방문한다거나 直系租上 이상의 조상들을 위한 제사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소위 「非生産的인 活動」은 엄격히 통제되고, 여러가지 수단에 의해서 저지된다. 여행시에 糧卷의 발급은 住民들의 活動을 규제하는 한 방법이다. 주민들의 여행은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허가되는데, 이 경우에 여행자로 그의 여행기간동안 소비할 食糧을 農場當局에 反納하고 그 대신 糧卷을 받는다. 여행 중에는 기차에서나, 숙소에서 이 糧卷을 제시하지 않으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가 없다. 즉 이 糧卷을 確認함으로써 當局은 住民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누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고, 또한 통제할 수가 있다.

住民들은 日常生活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소위 「政治事業」에 노출된다. 農場의 작업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치 사업들을 들여보자. 대부분의 農場에서는 뜨거운 햇볕을 막고 비

---

註③ 「노동신문」 상동

를 피하기 위해 들판의 여기 저기에 「포전선전실」이라고 불리우는 집을 지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다양한 선전사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農場員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춤과 노래를 즐기기도 한다. 勞力の 총 동원을 요하는 농번기에는 郡協同農場管理委員會에서 郡内の 각 農場으로 부터 선발된 요원들로 이동연예단을 구성하여 여러구름으로 나누어서 각 농장을 순회하면서 낮에는 농장의 포전선전실에서, 그리고 밤에는 農場中心部에서 위문공연을 갖는다. 農場員들은 점심시간에 잠시나마 포전선전실에서 낮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선전과 敎養을 목적으로 채워진다. 즉 「선동원」의 직책을 가진 한 成員이 신문, 잡지 또는, 책을 큰소리로 읽고 나머지 농장원들은 이를 경청한다. 國內外的 움직임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 물론 관영의 메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된 바를 중심으로 —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전문가에 의해서 새로운 農業技術에 대한 강의를 개최한다. 작업시간에는 농장의 중심부에 설치한 확성기를 통해 노래, 放送劇, 또는 작업지시를 放送한다.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각 成員이 해낸 그날 작업을 평가하는 소위 「작업총화」가 벌어지고 각자는 그의 노력점수 기록장에 노력점을 기재받고 귀가하게 된다. 그러나 農場員들의 저녁시간은 또다른 社會, 政治的인 活動들로 채워진다. 때로는 오락을 위한 시간을 가질때도 있다. 社勞靑(社會主義勞動靑年聯盟), 勞動黨, 농업근로자연맹, 노동적위대, 女盟(民主女性同盟) 등과 같은 政治組織들이 주로 農場의 生産과는 직접적인

關聯이 없는 政治的인 活動들을 조직하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모임을 개최한다. 때로는 人民班이나 作業班에서 行政 및 農事와 關聯된 문제를 議論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도 있다.

農場의 「구락부」도 저녁에 벌어지는 모든 政治. 文化. 社會的인 活動 및 오락活動의 中心이 된다. 보통 이 구락부는 학습실, 도서관, 음악실, 기술선전실, 위생선전실, 방송실, 오락실 및 큰 모임을 위한 강당등을 갖추고 있다. 各農場에 한개의 구락부가 있지만, 큰 農場인 경우에는 집중주거지역이나 作業班에 각기 하나의 학습실을 두고 있다.

女盟에서 조직한 「어머니학교」는 주로 農事に 바쁘지 않은 겨울동안에, 좀 드물기는 하지만 다른 계절에도 학습회를 가진다.

이 어머니학교는 子女養育, 공중위생, 요리 및 老人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등에 관한 것을 包含하는 主題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보급한다.

거의 모든 農場이 有線放送施設을 갖추고 있어서 저녁식사시간에는 農場의 본부( 協同農場管理委員會 )에서 그날의 農場의 제반작업에 대한 집행상황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여기에는 各農場員이 획득한 「노력점」과 各 作業單位의 生産量에 관한 통계등을 包含하고 있다. 農場內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외에는 이 방송은 평양방송에 연결시켜 놓는다. 이러한 有線放送體制와 出版物에 대한 北韓當局의 統制는 뉴스, 미디어에 대한 완벽한 政治的인 통제

를 가능케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北韓에서 이용되고 있는 政治活動의 多様な 메카니즘들은 全體主義社會에서 기대되는 行動類型도 劃一的이고, 政治이데올로기에서도 劃一的이요, 創造的인 意見을 差別함 (dissent) 을 허용하지 않은 “하나를 全體를 위하여”라는 劃一的인 社會主義的 人間象을; 혹은 “唯一思想”의 囚人으로 만드는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IV. 教育과 教養事業

教育은 한 社会文化体系(sociocultural system)의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部分이다. 이를 통해서 제비 文化的인 伝統이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전해져 내려가며, 한 社会는 이 教育을 통해서 새로운 世代를 伝統의 틀속에 끌어드린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무런 政治이데올로기의 오염없이 태어난 北韓의 젊은 世代가 教育을 통해서 「社会主義的인間」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教育制度의 構造的인 측면은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註①)

教育은 社会文化体系의 再建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하나로 보고있는것 같다. 過去의 歷史는 唯物論的인 法則性이 지배하였지만 이런 法則性을 확인한 다음에는, 즉 미래의 歷史는, 「人民들의 意志」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것이 北韓指導層의 公式見解이다. 즉 사람들은 그들이 살 만족스럽고도 理想的인 社会를 창조할 수가 있으며, 人間은 곧 自身の 歷史의 独立的이고도 意圖的인 創造者(willful creator)로 간주하고 있다. 文化의 이러한 人間中心的인 (anthropocentric) 見解는 北韓의 教育의 모든 측면에서 지배적임을

---

註① 이점에 관해서는 Mun Woong Lee, 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A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Rice University Studies, Vol. 62, No. 1 (whole issue), 1976, pp. 95-100을 参照.

는 教育에 관한 어떤 文獻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北韓의 教育의 主要 테마(theme)는 아마도 “어떻게하면 人民과 國家에 봉사할 수 있을까?”를 가리키는데 두고있는것 같다. 北韓에서는 이제는 教育이 個人과 그의 家族의 威勢(prestige)를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지는 못한다. 北韓의 어린이는 누구나 4年間の 初等教育과 5年間の 中等教育課程을 거친다. 그이상의 高等教育은 어떤 個人이 원한다고해서, 또는 그의 家族이 바란다거나 경제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고 해서 획득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北韓政權의 計劃에 맞추어서 선발된 젊은이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高等教育 및 그 이상의 전문教育을 받는것은 國家에서 “부름을 받는것”으로 간주된다. 즉 教育은 社會·政治·經濟의 諸分野에서의 需要를 채우기 위해서 國家的인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 되기때문에 여기에는 個人的인 관심이라는 要素는 전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現在의 教育制度下에서 訓練된 技能工, 技術者 및 科學者들은 「社會主義建設」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그들의 能力을 최대한으로 發揮하고 利用할 수 있는 곳에 中央政府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배치된다. 즉 北韓政權의 教育을 위한 投資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의 낭비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個人의 意思 내지는 人權은 무시되고 全體의 한 部分으로서의 역할만이 강조된다. 그들에게는 高等教育을 받은 후에 각자의 職業분야를 目意的으로 선택할 權利가 주어지지 않는다. 父母 또는 家族도 또한 여기에 개입할 아무런 여지가 없다. 일단 家族을 떠난 (부모의 결을 떠난)子息의 앞

날은 전적으로 國家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子息들의 社会·政治的인 地位의 상승 또는 出世가 父母 및 家族의 威勢를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共産政權下의 北韓의 教育에서는 젊은이들을 「社会主義建設」을 수행할 책임감있는 「愛國的인 社会主義者들」로 바꾸고(transforming) 訓練시키는데에 크게 力點을 두고 있다. 學校는 共産当局者들에 의하여 「文化革命」의 基地로 간주되고있다. 모든 수준에서의 北韓의 教育을 지배하는 原理는 「理論과 實踐의 統合」 및 「教育과 生産勞動의 統合」이다. 이러한 原理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는 슬로간에 잘 표현되어있다. 初等教育 이상의 모든 학생들에게는 正規學課의 一部로 生産勞動에의 參與가 필수적이다.

教育面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一方的인 注入式教育方式과는 달리, 현재의 北韓의 教育에서는 學生들의 적극적인 參與를 크게 장려한다. 학과공부는 교사들의 강의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討論과 參與를 통한 學習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수업에서 各學級班은 여러개의 小그룹으로 나누어져서 學生들로 하여금 集團的인 責任과 集團主義的인 態度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성적이 좋은 학생은 자기의 그룹안에 있는 성적이 뒤떨어진 다른 學生들을 가르키고 그 그룹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게 하며, 각자의 努力이 전체의 수준을 가름하는 尺窓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강조한다. 이런 점들로 보아서 北韓의

制度는 少数의 우수성을 개발하고 장려하기 보다는 集体的으로 知識의 수준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計劃되어 있는것이다.

北韓의 教育은 모든 측면에서 民族主義가 지배적이다. 한글과 國史 —그것이 現政權과 政治体制를 正当化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극히 채색된 것이기는 하지만—가 특히 강조된다. 共産政權初期에 이미 漢字의 使用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젊은 세대는 漢字를 전혀 모른다. 漢字使用禁止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漢字로된 單語들을 대체하는 많은 새로운 한글용어들이 言語學者들에 의하여 고안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韓國사람에게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單語들이 많다는 점은 지적해둘만하다.

韓國史, 특히 近世史는 北韓의 教育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것 같다. 階級間의 갈등 및 歷史의 否定的인 諸側面은 철저히 教育의 테마로 이용된다. 韓國史教科書들은 文化史上的 否定的인 측면들과 “새로이 발견된” 긍정적이고도 民族主義的인 측면들을 크게 강조하면서 다시 쓰여졌다. 물론 이것들은 北韓의 現支配層의 日帝下에서의 「反帝活動」들을 극히 神話的으로 채색하여 作成되었고, 또한 現政權을 正当化시키는 作業이었다. 뿐만아니라 歷史의 否定的인 측면들, 例컨대, “小作人들을 착취한 地主들”, “人民들을 희생시키면서 地位를 남용한 權力者들”, “가난한 者들의 비참했던 生活” 또는 이와 비슷한 題目들이 다시 쓰여진 歷史冊들에 큰비중을 차지하고, 이것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政治的인 모

임에서나 學習會에서 주요 테마로 등장한다.

교수방식은 극히 實習志向的이다. 이것은 짧은 기일내에 더 많은 技能工을 訓練시켜 生産部門에 投入하려는 企圖으로 생각된다. 教師의 강의만에 크게 의존하는 것보다 學生들로 하여금 학습시간에 강의하게 하고, 보충적인 團體學習시간에 參與하게 하는 교수방식을 취하고 있다. 科学과 技術時間에는 實驗과 工場에서의 실습에 크게 강조점을 두고있다. 뿐만아니라 社會 및 政治教育의 시간에는 歷史上의 실제적인 事件들을 다루면서 過去의 결함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항시 無産階級의 편에 동정적인 해석을 加한다.

현재의 義務教育制度下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은 적어도 10年間の 学校教育을 받으며, 學生들간에는 上級生과 下級生에 기초한 社會的으로 의미있는 구별은 없다. 특정의 學校를 卒業했다는 事實이 어떤 威勢를 가져오게 의미를 갖지는 않으며; 年齡과 学年에 기초한 權위의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學生들간 서로간에 “동무”로 부르고, 서로 동등한 관계로 취급한다. 아직도 학교와 学年을 표시시키는 뱃지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상급생이든 하급생이든 서로 먼저 보는자가 인사를 먼저 하게끔 권장한다. 高等中學校(4年間の 初等教育을 마친후에 들어가는 6年制教育課程)의 첫 3年에 해당하는 中學班의 學生들은 公式的으로 少年團에 소속되므로 그들 특유의 인사법을 갖고있다. 즉 오른손을 왼쪽 이마위에 세우고 “준비하자!” 또는 “항상준비!”라는 구호를 외친다. 이것은 少年團의 勸告에있는 “共產主義 第一 예비군으로 봉사하도록 항상

준비하자! 라는 文句에서 떠온 것이다. 그러나 高等班 (中學班이상의 3年間)의 학생들은 전부 社勞靑에 소속된 관계로 少年團과는 달리 그들은 軍隊식의 敬禮方法을 사용하며 “안녕하십니까?” 또는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부친다.

이와같이 北韓의 教育 및 教養事業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는 相互依存性 (interdependence) 과 友愛關係 (comradeshhp)을 기르는데 있는것 같다. 어려서부터 北韓의 젊은이들은 組織生活 밑에서 자라난다. 家族의 범위를 넘어서, 성장과정을 따라 그들은 學校, 少年團, 社勞靑, 學習團體 및 其他의 특수活動을 위한 수많은 집단들의 成員으로 성장한다. 이 집단들의 成員으로, 그들은 집단과 社會全體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것이 요구된다. 社會를 위한 個人의 努力은 영예로운 것으로 크게 평가된다. 北韓의 思想 및 政治教養을 위한 學校教科書들은 「革命의 英雄들」, 「愛國的인 自己희생의 事例들」 「日帝植民主義者들에 對항한 無용담」 등으로 거의 채워져있다.

## V. 憎惡의 美德

敎養事業에서 歷史에 나타난 否定的인 측면들을 강조함으로서 現世에서 이를 克服하고 「革命的인 熱意」를 불려이르키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점은 이미 앞에서 言及한바 있다. 그러나 아마도 北韓의 敎養事業에서 가장 強力한 수단은 소위 「敵에 대한 증오심」의 긍정적의 사용」인것 같다. 이것은 “敵을 사랑하라”는 基督敎的인 사랑의 概念과는 전혀 배치된다. 北韓政權當局者들은 이런 사랑의 概念은 곧 個人이든가 集團이든가 上位者가 下位者를 착취하는 制度的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敵을 效果的으로 보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共產治下의 北韓社會에 새로이 첨가된 이 觀念을 우리는 알기쉽게 말하여 “누군가가 너의 한쪽뺨을 치거든, 그의 양쪽뺨을 모두 때려라”고 하는 원리로 해석해도 좋겠다. 敵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은 「社會主義的인 愛國心」과 現存하는 政治體制에 대한 신뢰감을 불려이르킬 것으로 기대된다. 「日本軍國主義」 및 「美帝國主義」라는 敵은 北韓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있는 대표적인 증오의 대상이다. 이제 「敵에 대한 증오심」이 北韓의 學校에서 어떤식으로 敎育의 수단으로 사용되고있는지를 「노동신문」에 나타난 한 例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註①)

---

註①) 「노동신문」 1971년 3월 27일자. p. 6 參照.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판문郡 동창人民學校의 한 女先生이 경험한 事例이다. 北韓의 모든 教師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도 역시 새로운 世代의 어린 학생들에게 思想教養이라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즉 그 어려움은 이들 어린이들이 現政權의 증오의 대상이 된 「착취와 억압」을 실제로 경험한바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휴전선 北方에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는 그의 학교가 敵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이르키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韓國史의 否定的인 측면들」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없어 그들을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로 教育시키려는 그의 노력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랐다. 例컨데 “地主들이 小作民들을 어떻게 착취하느냐?” 또는 “조선인민의 敵 美帝國主義” 등에 관한 主題로 반복해서 설명해 보았지만, 학생들은 그것들의 중요성을 터득하는것 같지 않았고, 성공적인 教育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 女教師도 결국 특별히 준비한 그림들을 생생한 재료로 사용하는것이 더욱 效果的이란 점을 발견하였다. 그가 사용한 가장 效果的인 교재는 “신종철 아저씨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一連의 그림들이었다. 여기에는 한 부유가 地主의 종으로, 때로는 그의 주인에게 매를 맞는 한 가난한 소년을 묘사한 그림들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학교의 정상수업의 일부로 가끔 「美帝國主義」를 저주하는 모임들을 조직하였고, 때로는 학생들을 두편으로 나누어서 가상의 戰爭놀이를 시켰든바 이것들이 모두 적에 대한 증오심을 높여주고 학생들간에 단결심 또는 「동무의식」을 증진시켜 주는 데에 극히 效果的인

方法이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간에 적에 대한 증오의 감정은 곧 「社會主義的愛國主義」 또는 「社會主義的휴머니즘」을 심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리하여 北韓社會에서는 外部 또는 內部的 어떤 형태로든지 敵은 敎養事業 및 社會統合을 爲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동원된다. 학교수업에서 심지어는 數學時間에도 例外는 아닌것 같다. 학생들은 「敵을 증오하는 정신으로」 수학문제를 풀도록 가르쳐 진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도망치는 간첩을 두시간 동안 추격한 끝에, 시속 4 km로 달린 한 少年團員과 시속 8km로 달린 한 安全員아저씨가 그 간첩을 사로 잡았습니다. 그少年과 安全員은 그 간첩을 잡는데 각기 얼마나 멀리 달렸을까요? ” 이것은 수학시간에 주어진 한 문제이다. (註②) 이것은 敵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생생하게 문제를 풀게하는 산敎育의 한 예이다.

外國 특히 美國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하여 民衆들을 분발시키는 예들은 北韓社會에서는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다. 1969年 12月 한 간첩에 의하여 납치되어 간 大韓航空의 여객기 승무원중의 한 기독교 선교사가 직접 보고온 (그는 그사건후에 65일만에 석방되었음) 바에 귀를 기울여보자. “어디를 가도 우리는 다리가 부러

---

註②) 「노동신문」 1971年 3年 27日字, p.6 參照.

진 美國人의 허수아비를 볼 수 있었다. 그 허수아비 위에는「美帝國主義者들의 다리를 부러뜨리자!」라고 쓰여져 있었다. 한번 나는 한 美國의 허수아비에 칼로 찌르는 어린애들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註③) 이와 유사한 경험이 1973年 가을에 20 일 동안 北韓을 방문하고 돌아온 에드워드. 킴에 의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즉 그가 방문했던 송림 유치원의 벽에 붙어있는 한 포스터는 「미국놈」이라고 쓰여진 美軍을 장난감총으로 쏘는 한 어린애를 그린 그림이 었다. (註④) 이報告는 敵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는 작업이 유치원과 같은 社會化의 初期段階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 해주고 있다. 결코 보지도 못한 가상의 敵에 對한 증오이지만 教育事業의 목적을 위해서는 強力하고도 効果的인 수단으로 널리 동원 되고 있다.

北韓의 勞動党中央委員會의 機關誌인 「勤勞者」(1964年 10月号, p.6)에 의하면 「계급적인 적에 대한 증오」의 정신은 人民에 대한 사랑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아니라, 이 두가지는

---

註③) Shim, Jae-hoon, "Nightmare in Pyongyang," Far Eastern Economic Review, 67, No 10 (March 5th, 1970): 17에 인용되어 있음.

註④) Kim, H, Edward, "Rare look at North Korea" National Geographic, Washnigton, D.C. 146, NO. 2 (Aug. 1974): 252-277 參照.

함께 「共産主義휴머니즘」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北韓의 內的인 그리고 外的인 모든 敵에 대한 民衆의 인식은 效果的인 組織을 強化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教育和 教養事業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지배적인것 같다. 그들이 敵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對象에 대한 批判은「革命」에 도달하기 위한 路線을 바로 잡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는 北韓의 生活樣式의 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굳어졌고 制度化된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젊은 세대를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로 교양시키는데에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그들은 民族史의 「어두운측면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이 共産化以前의 生活를 경험하지 않았고 戰爭을 실제로 겪지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 北韓에서는 過去의 상처를 保存하여 젊은이들을 教育시키는데 사용하려는 努力은 끈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北韓全域에 걸쳐서 세워진 수많은 博物館 및 記念館 (또는 記念對象物)들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고, 教育的인 프로그램들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北韓을 방문한 사람들의 旅行記들에는 거의 모두가 과거를 보존하려는 — 간혹 극히 과장된 형태로— 이런 種類의 努力이 아주 인상적이라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革命博物館」, 「미술박물관」, 「마을박물관」, 「역사 박물관」, 「노동동당 창건기념관」, 「조국해방 戰爭記念館」등은 모두 이의 좋은 예들이라고 하겠다.

민속박물관은 과거를 보존하려는 努力의 性格을 잘 보여주고

있다(註⑤)이 박물관은 1965년에 설립된 것으로, 1970년에는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 獨立을 위한 鬪爭時期의 혁명적이고도 공산주의적인 生活양식을 기록해둔 박물관으로 再組織되었다. 전시실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첫부분은 일제시대의 게릴라들의 生活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들의 막사, 軍士訓練, 組織的인 活動狀況 및 行動規範등을 보여주는 게릴라生活的 전반에 관한 전시로 채워져있다. 둘째부분은 게릴라들이 먹은 음식과 그들의 건강상태에 관한 전시이고, 마지막 부분은 日帝下의 소년, 소녀들의 生活相을 보여주는 전시물들로 채워져있다. 이 모든 전시에서 모형, 裝物, 사진 또는 그림등 사실적인 묘사를 위한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 물론 여기에는 사상무장을 위한 자극으로써의 전시물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기, 亦史的인 근거는 第二次的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다른 박물관이나 기념관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테마이다. 英雄視되어버린 日帝下의 게릴라들의 活動은 北韓共產政權의 「正統性」을 합리화시켜주고, 民族史의 온갖 상처들은 民衆들을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囚人으로 끌어드리는 캠페인의 중요한 양념이 된다. 또 하나 지적해 두어야 할것은 이 모든 박물관 및 기념관들 —그것이 民俗에 관한것이던 藝術에 관한 것이던간에— 은 필수적으로 民衆들의 意識世界를 자극하고 「社會主義建設」의 理想으로 志向하게끔 유도하는 政治的인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政治的인 色彩를 띄지않은 순수한 사실적인 기록의 場으로서의 박물관이란 있을

註⑤) 「조선중앙년감」평양. 1973年版. pp. 264-266 參照.

수가 없고, 순수한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美術館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民族史의 否定的인 측면을 보여줄만한 중요한 것이면 무엇이든간에 보존되어 思想教育事業을 위한 산 教材로 이용된다.

戰爭期間에 노획된 유엔軍의 무기와 파괴된 戰爭裝備들은 극히 과장된채로 「보존」되어 野外教育場의 전시물로 사용되고, 심지어 戰爭中에 파괴된 도시에 상흔이 남은 채로 살아남은 建物は 「英雄建物」의 칭호를 부쳐서 보존되어 유엔軍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심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모든것들이 「원수를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주는, 「社會主義的인間象」의 形成을 위한 必需的인 부분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위와같은 대규모의 박물관 및 기념관들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소규모의 전시물은 北韓全域에 걸쳐 수없이 많다. 정상적인 수업과정의 한 부분으로 학생들은 이런 장소에로 수학여행이 마련되어, 소위 산 증거들을 교재로하여 教育을 받는다. 每年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小年團은 옛 戰場 및 抗日계렬라活動과 관련되었다는 소위 遺跡地들에서 야영訓練을 받는다. 이런 곳들에서는 야영訓練을 받은 젊은이들이나 其他 一般訪門者들은 전문적인 案内員(대개는 女子)의 안내를 받게되는데, 그는 여기에 관련된 歴史的인 事件들을 자세하게 또한 극히 劇的으로 표현된 형식으로 설명한다. 물론 이런 유적지나 박물관 및 기념관들의 안내원의 해설은 정확한 史實의 전달보다는 그 내용에 담겨진 政治的인 의미(implications)가 극히 강조된다. 야영訓練期間에는 대체로 밤에 "우등불

모임"이라고 하여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 그 주위에 둘러앉아서 政治敎養을 위한 會晤를 갖는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多樣하지만 보통 「항일계렬라의 회상기」를 읽고 토론한다든가 愛國時를 읽든가, 革命歌를 부르고 때로는 抗日運動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아마도 北韓의 政權當局者들은 野黨訓練이 思想敎育을 위한 캠페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에서 다른 北韓의 文化過程에서 새로이 등장한 諸現象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것은 "憎惡의 美德"이라고 불려도 좋을 원리이다. 「人民의 敵」에 대한 증오심은 社會發展 및 經濟建設을 위한 「革命的인 열의」를 끌어내는 중요한 源泉으로 간주되어 긍정적인 價值가 부여된다. 소위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은 民族史의 어두운 측면들을 부정하고 비판함으로서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社會過程에 나타나는 阻礙 心理的인 不適應現象은 이러한 스킵, 고트(scapegoats)의 創造를 통하여 中和시키고 발산시킴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 VI. 「家族国家」로서의 北韓

全体主義社会에서는 일반적으로 政治指導体制을 받아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박해의 対象이 되고, 權力鬭爭은 權力關係에서의 序列(pecking order)이 정해지고 한 指導者가 절대적인 權力을 장악할때까지 계속된다. 北韓에서 진행되어온 政治過程도 이의 例外는 아닌것 같다. 30余年間의 共產主義統治下에서 이제 金日成은 “수퍼 스타(superstar)의 地位에 도달한것 같다. 北韓을 방문한바 있는 한 日本人은 “北韓에는 그들 자신들의 神인 金日成이 있기 때문에 다른 神이 필요없드라”는 점을 指摘한것이 있다.(註①) 또한 1964年 10月에 北韓을 방문했던 經濟學者 조인 로빈슨女史도 이와 비슷하게 金日成은 “救世主(messiah)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드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註②) 北韓의 政治文化에 관심을 가진 學者들은 일반적으로 金日成을 둘러싼 個人崇拜의 경향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음에 同意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金日成個人崇拜가 어느정도로 北韓의 民衆生活에 효과적으로 침투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또한 어떤 要素들이 이런 새로운 文化的인 아이템의 形成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註① Wada Yoichi “Kita Chosen no insho” Chosen Kenkyu  
Geppo: 東京, No.14, p.23

② Robinson. Joan. “Korean miracle.” Monthly Review  
(1965. 1月) .p.548

이제 北韓의 金日成崇拜는 頂點에 달하여 文字 그대로 神格化되어 있는것 같다. 한 어린애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때부터 그는 소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미지와 함께 教養을 받는다. 탁아소의 어린애들은 그들이 받는 음식도 “수령”이 준것이라고 보육원으로부터 가르쳐지고, “수령”이 내려준 은혜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를 요구받는다. 이러한 이미지形成의 과정은 學校教育의 全期間을 통하여 계속된다. 過去에 金日成과 관련되었다고 주장되는 모든 物的對象은 崇拜되고 歷史的인 事物은 귀중하게 보존된다. 例컨데, 그의 出生地는 이미 北韓의 聖地가, 되었고, 北韓全域에 걸쳐 그의 銅像은 무수히 세워져있다.

北韓勞動黨의 機關誌인 「노동신문」을 검토해보면, 1960年代 후반기에 들어서서 金日成個人 崇拜의 현상이 점차로 강화된것 같이 보인다. 金日成에 관한 偶像崇拜的인 표현들이 이 기간에 대폭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1960年代 초반기 까지만해도 매스 미디어에서 金日成을 표현할때 그의 이름앞에는 수식어가 많이 붙지않았다. 例컨데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지도자들이 또한 대회에 참석하였다.”(註③)는 등의 평범한 표현은 그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되었다. 여기에 1960年代 후반기에 나타난 두가지의 例에서 金日成이 어떤 수식어들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잠간 살펴보자. 즉 “……절세의 애국자이며 불굴의

---

註③ 「노동신문」 1964年2月21日, p.1

혁명투사이며 탁월한 영도자인 김일성동지”(註④)라는 표현에는 수식어가 크게 증가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金日成에 관한 기술에는 존칭어가 바뀌었다. “이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면서 우리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어 주시고 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탁월한 영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라는 표현은 이의 좋은예라고 하겠다. 여기에 다시 金日成우상화의 한 전형적인 예로서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의 「집체창작」인 서사시 「우리의태양 김일성원수」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보자.(註⑤)

“아, 위대한 수령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

그이의 혁명위업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세기의 봄우리 위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그이의 불멸의 사상을 안고

사람들은 공산주의 동산에서

영원한 봄을 누리리라!”

註④ 「노동신문」 1967년 4월 15일 P.1.

⑤ “ 1969년 4월 15일 P.3 과 P.6 참조

이와같이 모든것은 金日成에게서 비롯되며, 또한 그에게 귀결된다.

“절망과 비분만이 이 강산에 드리웠던 암담한 시기 우리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민족의 영웅, 그이는 분명 겨레의 등대요 광명이었다”

(註⑥)는 표현에서도 우리는 김일성개인 숭배의 환상적인 측면을 여실히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金日成의 影響力은 北韓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는 “조선이 낳은 20世紀의 영웅으로 全世界의 혁명적인 인민들이 경앙하는” 또한 “全世界가 낳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주장에 까지 이르고 있다. (註⑦)

1960年代에 들어와서, 農業協同化가 끝난후에 金日成은 農村地域에 들러 수많은 「現地敎示」를 한바있다고 알려져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것이 1960年 2월에 있는 靑山里協同農場의 방문이었다. 이 訪問은 「청산리방법」과 「청산리정신」으로 널리 알려진 한 새로운 社會主義的經濟管理體系를 낳았다. 이것은 上部기관이 下部기관을 돕고 상위자가 하위자를 도우며, 정치사업에 우선적인 관심을 돌리고 大衆들로 하여금 그들의 혁명과업을 수행해내도록 각성시키는 방법이다(註⑧) 現地敎示를 위한 農場訪問을 통하여 最高指導者와 農場員

---

註⑥ 「노동신문」 1970년 9월 26일 P.4

註⑦ Munthe-Kaee, Harald, “Kim Il-sung; Supersta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72, Vol. 76, No. 23, P. 27 참조

註⑧ Kim Il-Sung, Revolution and socialist construction in Korea; Selected writings of Kim Il-sung, New York; international Publihers, 1971, P. 95 참조

들간의 빈번한 접촉은 우상숭배의 전개에 중요한 影響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런 現地敎示를 위한 訪問은 事前에 잘 計劃된 것이지만, 지도자와의 個人的인 접촉은 農場員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그들의 農場이 잘 운영된다면 그들은 그 지도자에게 충성심을 표시하게 된다.

共産化以前의 유교적인 觀念을 現在의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유교의 核心을 이루는 五倫 가운데서 父子關係와 君臣關係만을 생각해보자. 傳統的인 韓國社會에서는 父子關係가 모든 人間關係를 지배하는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君臣關係는 第二次的인 것이었으며 강력한 統合的인 要素는 아니었다. 共通의 祖上들로 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子孫들로 단합된 親族員間의 關係는 특히 강조되었으며, 特權層間에는 이름난 문중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社會. 政治的인 出世의 關鍵이 되기도 하였다. 傳統的인 韓國社會는 그 社會構成面에서 볼때 수많은 親族集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親族의 벽을 뚫고 全體人口를 하나의 긴밀한 全國的인 網狀組織으로 통합시킬 만한 수단은 없었다.

共産治下의 北韓에서도 역시 父子關係는 중요한 要素로 남아있다. 孝도 하나의 美德으로 남아있고, 父母나 父母를 「잘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적절한 공개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父子關係 및 其他 親族間의 유대는 經濟的인 社會的인 變動과 함께 사실상 적지않게 弱化되었음이 발견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전에 약했던 君臣關係는 共産治下에서 金日成의

우상숭배의 형식으로 상당히 強化된것같다. 만약 우리가 이에 同意한다면 30餘年이란 비교적 짧은 시일안에 어떻게 이런 變容이 可能했을까? 만약 우리가 君臣關係의 強化를 父子關係의 연장으로 본다면, 이런 질문은 대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親族關係, 특히 父子關係의 重要性이 弱화되었다는 점은 이를 代할만한 강력한 統攝메카니즘이 형성되지 않는한 심각한 社會的인 동요를 유발한 것이다. 傳統的인 要素들을 새로운 社會秩序를 위한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분명한것같다. 6.25 戰爭이래로 北韓社會는 外來의 文化的인 영향으로부터 두꺼운 커튼이 쳐진 폐쇄된 體制 (closed system) 이었다. 戰爭의 후유증으로 닥쳐온 社會, 政治的인 대혼란 (chaos) 및 個人的인 喪失感 (personal deprivation), 그리고 이에 따른 生活樣式에서의 수많은 變化들은 民衆들을 團結시키는 救世主 (a messianic figure) 의 등장을 위한 길을 터워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變化된 새로운 狀況에 적응하기 보다 다른 어떤 方途가 보이지 않은 民衆들에게는 生活條件에서 나타난 어떤 形態로든지의 약간의 개선도 그들의 最高指導者의 공로로 될 수있는 것임은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물론 이것은 北韓의 폐쇄적인 社會, 政治體制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共産治下에서 가장 널리 선전되고 있는 成就중에서 두가지는 金日成우상숭배와 關聯해서 지적해둘만 하다. 이것은 1966년과 1972년에 각기 이루어진 農業現物稅의 폐지와 10年制義務教育이다

稅制의 폐지로 農民들은 형식상 모든 「稅制의 의무로 부터 解放」 되었다는 것이다. 工業 및 다른 産業分野에서 얻은 利潤이 國家의 唯一한 財源이라고 한다. 물론 農産物과 工業製品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農業部門으로 부터 비록 間接적으로나마 「稅金」 (비록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을 받고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形式的인 現物稅制의 폐지 그 自體는 農民들의 士氣를 불러일으키는데에 적지않은 影響을 미쳤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10年制義務教育의 실시는 이를 위한 財源이 어디에서 얻을되든간에 모든 子女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직접적으로 學費를 부모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民衆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사는데 도움을 준것으로 간주된다.

共産政權下에서 이루어진 어떤 種類의 진전 및 개선이라도 그것은 「수령의 현명한 지도력」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個人的인 成功을 祖上의 덕분으로 돌리는 전통적인 관습과 극히 유사하다. 국가로 부터의 어떤 形態로든지의 支援도 「敬愛하는 수령」이 내려준 선물로 간주하고 「肉親的인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君臣關係의 새로운 強化는 새로운 社會的인 脈絡속에 옛날의 父子關係가 投射된것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싶다. 親族關係가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社會構造의 오랜 歷史가 없이는 濫情主義(a sense of paternalism)에 기초한 현재의 強化된 君臣關係가 이룩될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金日成은 北韓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 의해서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다. 유교적인 孝道의 概念으로는 父母의 사랑을 “산만치 높고 바다만치 깊은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최근에 와서 金日成의 은혜가 “산만치 높고 바다만치 깊다”는 표현이 北韓의 出版物에 자주 발견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註⑨) 젊은이들은 그들자신을 “노동당과 수령의 아들과 딸”로 간주하는 경향이 점점증하고 있는것 같다. 예컨대 女子陸上선수로 이름난 심금단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경기에서 400m 와 800m 를 우승하고나서 “노동당과 김일성원수님의 딸임을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말한바있다. (註 ⑩) 그러나 그의 親父가 현재 남한에서 生存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점은 最高의 指導者에 대한 忠誠心은 生物學的인 父母에 대한 傳統的인 孝의 概念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農場員들과 다른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다. 물론 물질적인 利得은 이를 자극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建設에의 參與는 곧 그들의 소위 「경애하는 수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해석하고있는 점은 우리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近年에 와서 北韓의 메스.미디

---

註⑨ 「노동신문」 1966년 12월 25일자 P.3; 1968년 3월 10일자 P.2; 1969년 1월 28일자, P.2; 1969년 6월 1일자, P.2; 1970년 2월 25일자, P.5; 1971년 2월 12일자, P.4등을 참조.

註⑩ 「조선여성」 1961년 8월호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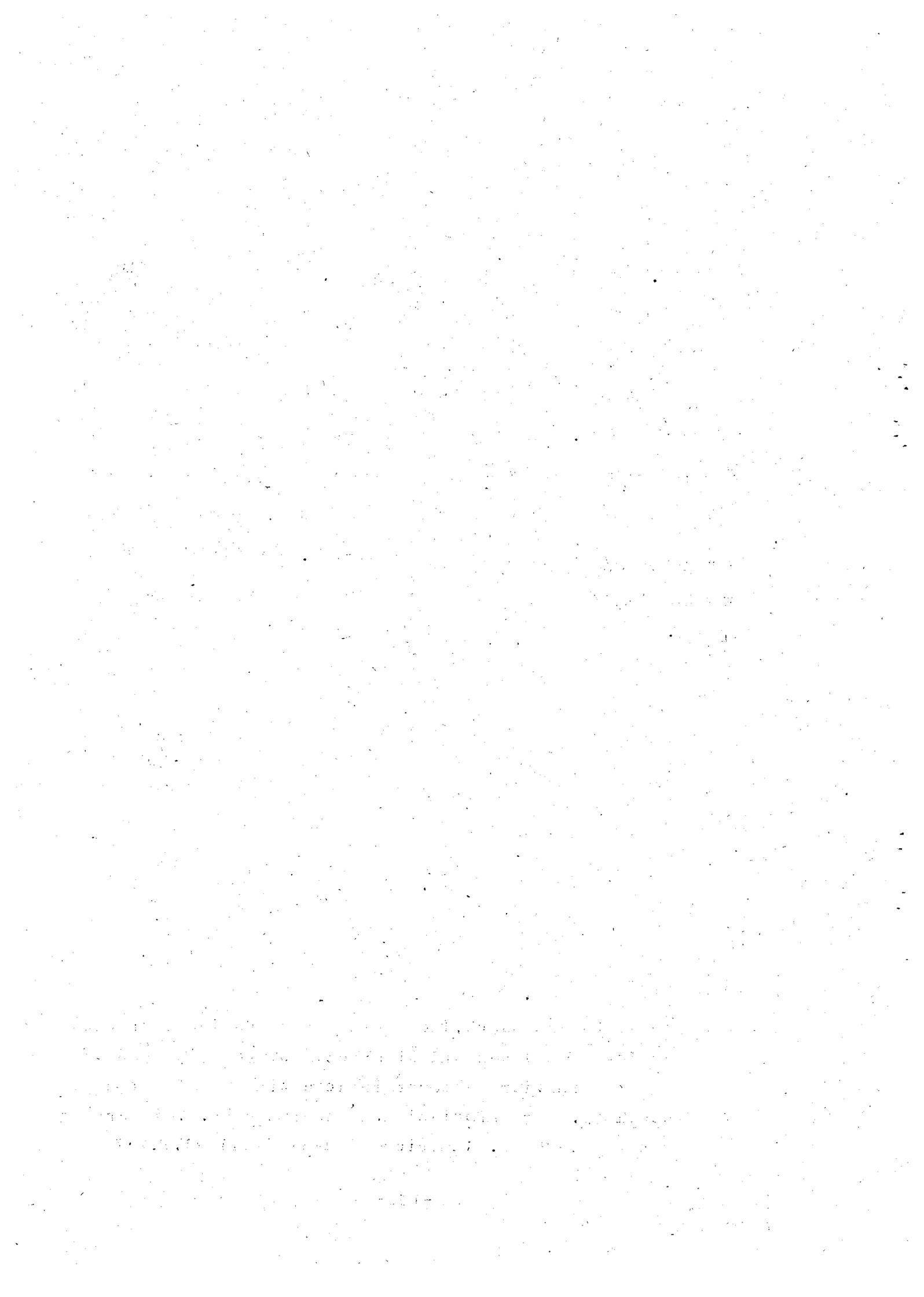
어들은 정부와 最高指導者에 대한 의무감에 기초한 젊은이들의 모범적이고도 자기희생적인 활동들을 많은 예로 실고 있다. 사실 지도자에 대한 忠誠心은 傳統的인 孝의 美德보다 더 강해진 것 같다. 最高指導者의 神格化를 통한 社會統合의 樣式으로 미루어보아 北韓共産主義者들이 그렇기도 강력히 否定하는 유교사상은 아직 北韓에서는 약간의 變容된 形式으로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달라진 것은 父子關係에 기초한 家族主義에서 君臣關係의 優位에로의 社會組織의 原理에 있어서의 變化이고 統合의 범위는 親族의 영역을 넘어 擴大되었다는 점이다. 民衆과 最高指導者의 關係는 꼭 親族間의 關係와 같아서, 현대의 共産主義體制의 北韓을 한 「家族國家」(Family-state)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를 굳건히 심으려는 열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文化는 유교적인 전통의 강한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같이 「수령」의 역할은 傳統社會에서의 한 家庭의 家長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절대적인 權威를 행사하고 그가 바로 國事에 대한 모든 지혜의 源泉이며, 國家의 운영은 꼭 한 家庭의 운영을 닮았다. 傳統的인 韓國社會에서의 家族과 親族의 운영을 지배하였던 原理들은 이제 國家라는 單位에 로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傳統的인 宗敎祭사는 金日成個人 崇拜의 行식으로 살아남아 있다.

共産主義支配下의 北韓에서 나타난 이런 變容은 우리들로 하여금 유명한 유학개혁주의자인 朱熹의 꿈인 한 새로운 유교사회를 생각

나게 한다. 이 새로운 유교사회에서는 “支配者는” 꼭 한 家庭의 家長이 그러듯이, 中央集權化된 政府의 우두머리로 肉親的인 사랑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이와 반대로 의무감에서 그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個人은 가정에서는 아버지이고 이와 동시에 支配者의 한 忠僕이 된다. (註①) 지난 30餘年間に 北韓에서 전개된 文化過程은 아마도 政治指導者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을 통하여 표현된 孝의 연장으로 통합된 하나의 새로운 유교적인 社會 즉 「家族國家」에로의 變遷으로 要略되어도 좋겠다. 어떤점에서는 朱熹가 꿈꾸었던 社會가 바로 共產主義 北韓에서 形成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

註① Kang, Thomas Hosuck, The making of confucian societies in Tokugawa Japan and Yi Korea; A Comperative analysis of the behavior patterns in accepting the foreign ideology, Neo-Confucianism, unpublished ph.D.dissertation, Washigton, D.C; Americ an University, 1971, P.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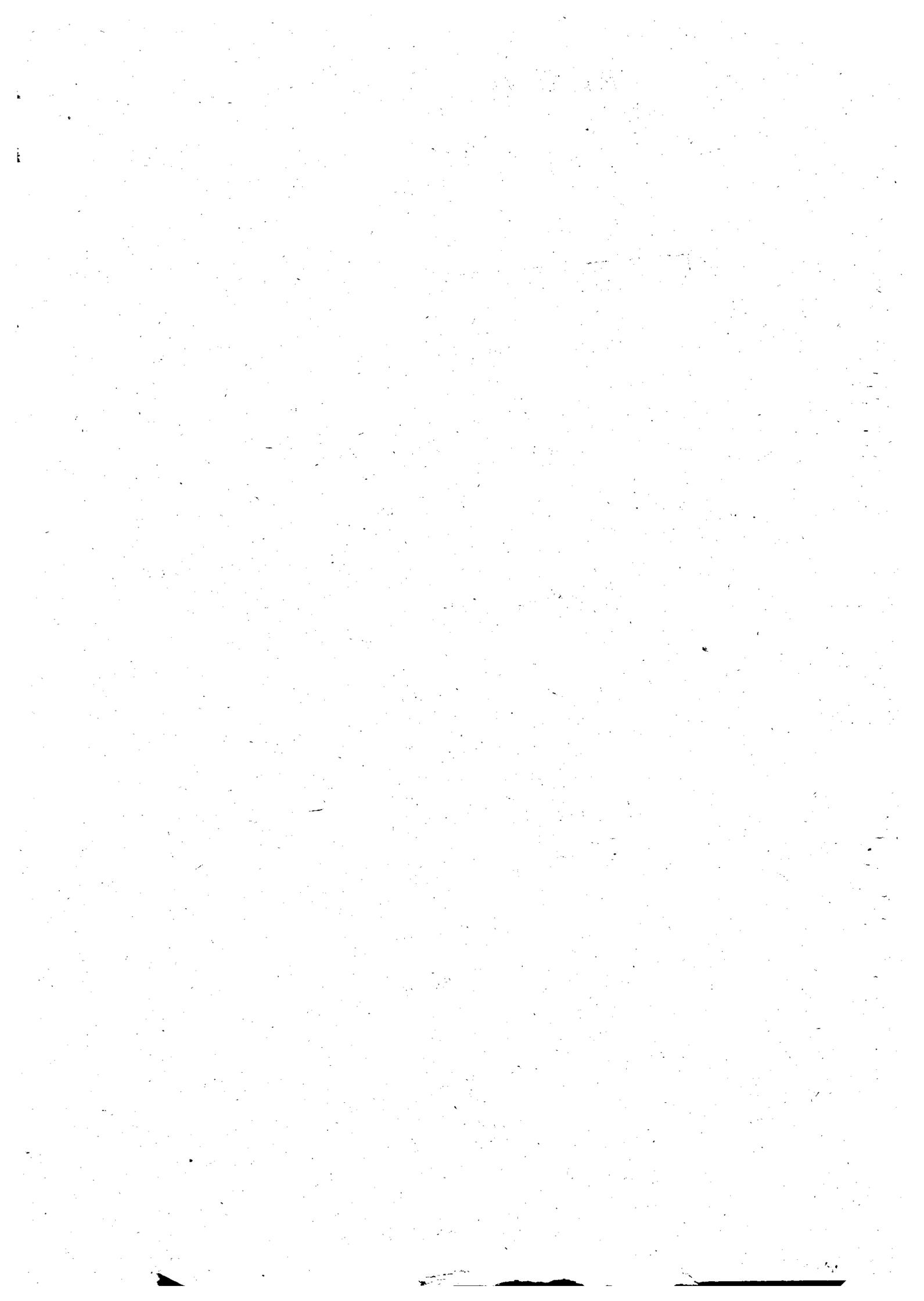
# 金日成政權의 承繼問題와 北韓政治의 方向

— 他共產政權과의 比較的 觀點에서 —

李 啓 熙

## 目 次

I. 序 論 : 問題의 提起 .....	161
II. 共產国家政權承繼의 研究方向 .....	166
1. 共產国家의 政權承繼問題를 보는 視角 .....	166
2. 共產国家 政權承繼의 性格 .....	169
III. 共產国家政權承繼의 事例 分析 .....	173
1. 一般의 特徵 .....	173
2. 承繼에 따르는 政治的 變化 .....	177
3. 承繼準備의 蹉跌과 隘路 .....	181
IV. 金日成政權의 当面課題와 北韓政治의 方向 .....	185
1. 金日成政權承繼問題의 性格 .....	185
2. 金日成政權의 当面課題 .....	187
3. 北韓政治의 方向 .....	192



## I. 序 論 : 問題의 提起

우리가 어떤 社會의 將來에 대해서 豫測한다거나 豫見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推定일 뿐이다. 비록 오늘날의 社會科學이 高度한 科學的 分析方法과 理論的 洞察을 提示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未來의 問題에 관한 限 아직도 確實하고 完全한 解答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特히 北韓社會의 경우 그 現實에 直接 接近하기 어려운 條件때문에 事件의 解釋이나 體制에 대한 評價의 基礎가 되는 知識과 情報의 制約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作業의 어려움과 그 結果의 獨斷性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北韓의 政治에 관한 時事的인 分析은 選擇的인 資料와 情報에 따라서 그 結果가 判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冒險性을 隨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北韓의 現實政治보다는 北韓體制의 全般的인 變化의 方向과 體制의 動態的 過程을 問題삼을 때 北韓政治에 대한 有意味한 說明을 試圖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最近의 共產圈研究는 共產主義政治體制의 變化 또는 變動에 關心을 갖게 됨에 따라서 多樣한 體制의 發展段階나 變動모델에 대한 理論的 說明方法을 提示하고 있으며 分析技術을 상당히 세련화하고 있다. 勿論 그러한 分析技術 또는 理論들이 그대로 北韓體制에 適用되는 完璧한 基準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 그러한 理論的인 視角을 가지고 北韓을 바라봄으로써 北韓의 政治에 대한 보다 넓은 比較의

眺望을 갖게 되리라는 점은 쉽게首肯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近来 北韓의 金日成政權의 承繼問題와 關聯된 推測과 그러한 問題를 둘러싼 北韓内部의 動向이 새로운 北韓政治 이슈로서 우리의 關心을 끌고 있다. 事實 30 余年이나 權座를 維持해 온 北韓 金日成은 应当 그와같은 權力의 長期化에 対応하는 政權의 課題의 再定義와 權力自體의 탈바꿈을 試圖할만한 段階에 왔다고 보여진다. 北韓의 權力承繼問題는 勿論 아직 金日成이 存在하는 限 速断과 臆測을 禁해야 될 問題이긴 하지만 흔히 共產國家에서는 權力變動을 둘러싸고 政策路線의 轉換과 體制修正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金日成以後體制의 性格이나 方向과 關聯하여 매우 興味있는 關心거리가 아닐 수 없다.

70 年代初 以来 北韓政治의 特徵은 한마디로 金日成一人體制의 強化와 이른바 「唯一體制」의 安定化企圖로 集約될 수 있겠다.

1970 年 11 월에 開催된 「朝鮮勞動黨」 5 次黨大會는 北韓 金日成政權의 새로운 탈바꿈을 摸索하는 하나의 契機가 되었다. 權力構造面에서 볼 때 5 次黨大會는 1967 年 黨僚派肅清과 1969 年 軍部整風등과 같은 60 年代後半의 政權의 不安을 收拾하고 金日成唯

---

註 1) 最近의 共產國家政治研究의 一般的인 傾向은 個別的인 共產政權을 比較의 틀속에서 理解함으로써 比較政治學 또는 比較社會學의 對象속에 包含시키고 現代社會科學의 分析方法이나 技術을 廣範圍하게 適用하려는 努力을 보여주고 있다. 拙稿, 「共產主義比較研究方法論」, 北韓 (1977.1), pp.208 ~ 216 參照.

一体制의 基盤을 確固히 하는 一方 政治的 世代交替를 통한 体制的 対応을 試圖하는 出發點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5次党大会以後 北韓權力構造上的 主要한 特徵은, 첫째로 党政治委員會를 核心으로 하는 最高權力엘리트가 金日成의 身分集團인 소위 抗日빨치산出身을 中心으로 「一色化」됨으로써 金日成 1人支配의 強力한 基盤을 構築하였다는 點과, 둘째로 新進 테크노크라트型엘리트가 빨치산世代를 補完하는 勢力으로 權力構造의 上層部로 浮刻되어 엘리트構成의 質的 變化를 豫告해 주었다는 點이다.

一見 이러한 權力的 内部的 統一性 또는 純粹性を 強調하는 「唯一的」 体制의 確立과 리더십機能의 補完이라는 두 側面은 매우 어색한 結合인 것같이 보여지기도 하며 党性和 專門性的 問題 (red-expert issue) 또는 엘리트二重構造로 窺어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또 다른 變數는 바로 오늘날 北韓政權内部的 그러한 不安定한 權力構造를 組織化하고 있는 金日成 1人의 「絶對的」인 權威와 族閥과 親衛勢力에 의하여 政權을 擁護하고 있는 그의 獨特한 統治스타일이다.

한마디로 5次党大会以後 北韓의 權力形態는 体制의 過渡的 性格을 반영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北韓의 金日成 政權은 動員体制의 進展에 따라 隨伴되는 對內的인 正當性的 危機要因에 對処하지 않으면 안되는 政權的 課題를 질머지게 되었다.<sup>2)</sup> 예컨대

註 2) 東歐共產諸國에서도 脫스탈린化過程에서 共通적으로 權威의 危機 또는 正當性的 危機 (crisis of legitimacy) 를 겪고 있다. Zvi Gitelman, "Power and Authority in Eastern Europe",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235 ~ 263.

그 동안 北韓에서 支配를 正当化하는 思想体系의 確立을 위해서 「思想革命」을 強調해 오고 있다든가 6個年經濟計劃 등의 推進으로 經濟的인 業績을 통해서 住民의 支持를 誘導하려는 政策的 對処에 부심해 왔다는 事實, 또 個人偶像化를 통한 金日成의 權威操作에 變態的 形態를 노정해 왔다는 點 등은 그와같은 過渡的인 体制管理의 性格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北韓은 1972年 12月 이른바 「社會主義憲法」制定을 통하여 金日成 1人統治의 制度化를 기도하는가 하면 1973年以後 「三大革命小組」運動의 推進을 통한 「不斷革命」의 追求와 動員体制의 加速化를 圖謀하는 등 屈曲있는 政治氣象圖를 그려오고 있다.

우선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은 소위 主体思想을 憲法規範化함으로써 住民動員을 위한 명분을 提示한 點과 國家的 首班으로서의 「主席」制를 新設하고 黨·政을 連結하는 「中央人民委員會」를 國家機關으로 設置함으로써 金日成 1人統治의 制度的 裝置를 強化했다는 點에서 그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三大革命小組」運動은 새로운 政治世代의 登場과 有關한 것으로 黨的統制의 逆機能과 官僚主義化의 病弊를 是正하려는 교육지책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過渡的인 体制管理努力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權力構造内部에는 深刻한 內紛要因을 發展시켜 왔다. 예컨대 黨政治委員會 人的構成만 보더라도 軍部出身과 經濟專門家의 登場에 따라 權力序列이 매우 流動的인 變化를 보여 왔다. 이와 더불어 族閥内部에도 後繼問題와 關聯하여 金英柱의 부침, 金正一의 登場등 暗鬭相을 노정하였다. 勿論 이러한 政權內紛은 金日成의 絶대적 權

威下에서 最少限으로 抑制되고 있고 金日成政權에 對한 反對派의 登場은 現實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쨌든 北韓의 金日成政權은 그와같은 政權内部問題를 解決하지 않으면 안되는 새로운 指導層 改編의 機를 맞고 있다고 보겠다.

本考에서는 金日成政權以後에 豫想되는 北韓政治의 方向을 診斷하는 하나의 試圖的 作業의 一環으로 政權承繼問題에 關한 事例와 比較的 시각을 提示하고 金日成政權이 當面하고 있는 政治的 課題의 性格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 II. 共產国家政權承繼의 研究方向

### 1. 政權承繼問題를 보는 視角

우리는 共產国家의 政權承繼問題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接近方法을 取해야 할 것인가? 우선 共產国家의 政權承繼問題에 對한 從來의 關心 또는 觀點이 갖는 단점을 指摘하는 것이 順序 일 것 같다.

우선 指摘할 수 있는 것은 종래까지만 해도 政權承繼問題가 共產圈 政治研究家들에게 그렇게 큰 關心의 對象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련을 除外한 東歐 또는 余他 共產国家의 政權承繼에 關한 研究는 研究者들의 重要한 關心을 끌지 못했던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事情의 背景은 東歐에서 보여준 政權承繼가 大部分 外勢(即, 소련)의 影響下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假定이 主要한 原因이 되었다.

한편 從來까지의 政權承繼問題에 關한 이해방법은 일반적으로 크레믈린노로지스트의 立場을 脫皮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一般的인 關心은 고위 指導層 内部의 權力鬭爭만을 技術的으로 把握한다든지 또는 「누가 執權할 것인가」하는 것과 같은 시사적인 分析이나 推斷的인 豫測에 치중되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政權의 變動, 即 리더쉽의 變化에 따르는 体制的 또는 政治的인 變動을 相互 關聯性 있게 추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事情은 從來까지의 共產圈 政治研究가 一般的으로 靜態的인 全体主義 모델에 너무 집착해 있었던 연유이기도 하다.

어쨌든, 共產國家의 政權承繼問題에 關한 体系的이고도 科學的인 接近이 試圖된 것은 極히 最近의 일이며 그만큼 이러한 主題를 다루는 研究가 稀少한 것도 事實이다. 共產國家의 政權承繼問題에 對해서 새로운 接近方法을 試圖하고 있는 最近의 研究方向은 事例에 對한 体系的인 分析 또는 比較研究를 통한 一般的인 패턴의 추적, 더 나아가서 리더십 分析과 体系的 變化를 關聯시키는 意慾的인 作業을 보여 주고 있다.

에컨대 러쉬(Myron Rush)와 같은 사람은 소련이나 東歐 共產國家들의 政權承繼 經驗과 承繼準備事例를 体系的으로 分析함으로써 一般的인 패턴을 추출하는 데 크게 寄與하고 있다. 러쉬가 事例 分析에 適用하고 있는 基本的인 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sup>3)</sup>

첫째는 共產國家에 있어서 承繼問題는 어떤 形態로 提起되고 있는가 즉 承繼問題는 그것이 發生하는 原因에 따라 어떻게 區別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共產國家의 政權承繼에 있어서 權力을 둘러싼 競争은 어떤 形態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特徵을 보여 주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는 共產國家에 있어서 承繼問題는 어떠한 過程을 겪게 되며 그러한 承繼問題의 結果를 規定하게 되는 要因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

註3) Myron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PP.13~29

네째는 共産國家의 政權承繼問題와 政策 이슈와는 어떤 상관성을 갖는가 하는 點이다.

다섯째는 共産國家의 政權承繼問題는 어떻게 解決되는가, 즉 政權 變動에 따르는 리더십의 性格은 어떤 變化過程을 보여 주는가 하는 點이다.

여섯째는 共産國家의 政權 變動時에 經驗하는 危機는 얼마나 심 각한 것인가, 즉 政權承繼에 따르는 리더십 내부 갈등의 樣相은 어떠한가, 또 그러한 危機가 最惡의 結果를 招來하지 않도록 抑制 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하는 點이다.

그러나 러쉬의 이와같은 問題意識도 결국은 政權承繼問題를 最高 權力層 内部의 問題로 縮小시킴으로써 全体主義 모델의 限界를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承繼 危機의 衝擊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왜냐하면 러쉬의 分析에서는 個人的인 指導者의 役割이 너무 強調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러한 指導 者의 變更은 社会 全般에 對한 深刻한 衝擊으로 直結된다는 結論 을 誘導하기 때문이다.

共産國家의 承繼問題에 對한 그와 같은 全体主義的 接近方法을 克服하려는 努力으로 提示되고 있는 새로운 觀點은 리더십分析 또 는 엘리트 分析을 원용하는 「갈등」모델이나 政權과 社会와의 關係, 또는 政治體系와 여타의 社会的인 下位體系와의 關係를 중시하 는 「官僚制」모델의 立場에 서는 것들이다.

예컨대 最近의 研究로 코르본스키( Andrzej Korbonski)와 같이 共産國家의 政權變動, 즉 리더십의 承繼와 政治文化·權力構造·利益

集團・政策 등과 같은 政治体制 自体의 變化問題를 關聯시키는 分析方法이나<sup>4)</sup> 베크(Carl Beck) 등과 같이 政治 엘리트의 經歷 또는 性向을 比較的, 動態적으로 分析함으로써 政權 承繼過程의 「常例化」(routinization) 패턴을 確認하려는 研究<sup>5)</sup> 등을 이러한 부류속에 包含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共產政權의 承繼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급한 一般論을 회피해야 하며 또 事例와 理論間의 무리한 結合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共產國家의 政權承繼問題에 있어서는 유연성과 特殊性의 要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 共產國家 政權承繼의 性格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나 共產國家의 政權承繼問題는 一般화된 政權變動의 方式이나 形態 또는 原則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點이 特徵이다. 다시 말해서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余他の 國家들에서 보는 것과 같은 秩序있는 政權交替方式이 制度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個別的인 政權이 廻하고 있는 具體的인 狀況과 政治的 條件에 따라 獨特한 樣相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共產國家의 政權變動에 關해서는 一般화가 持極히 困難하며 이것은 또 우리가

---

註 4) : Andrzej Korbonski, "Leadership Succession and Political Change in Eastern Europ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IX, Nos. 1 & 2, Spring/Summer 1976) PP. 3 ~ 22.

5) : Carl Beck et.al.(ed), "Political Succession in Eastern Europ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Spring/Summer 1976), PP. 35 ~ 61.

共産國家의 政治 現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當面하게 되는 嚴然한 限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共産國家의 政權 變動에서 볼 수 있는 具體的인 歷史的 事例를 檢討함으로써 그러한 事例에서 보여주는 어떤 共通的인 特徵을 把握하고, 또 歷史的인 事例와 理論的인 觀點을 適切히 配合함으로써 政權 變動이 이루어지는 一般的인 메카니즘을 규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共産國家의 政權變動을 理解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은 그것이 自由·民主國家에서 볼 수 있는 「政權交替」와는 根本的으로 性格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共産國家의 政權變動은 共産國家의 特徵的인 體制的 性格과 결부시켜 理解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共産國家에서는 共産黨에 의한 一黨獨裁가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自由·民主國家에서와는 달리 權力의 追求 또는 權力에의 接近이 公開的이고 競爭的인 政治過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政治的 多元主義의 原理가 基本的으로 부정되고 있다. 예컨대 共産國家에 있어서 통상 最高 權力職으로 생각되어지는 黨 第1서기가 公薦된 候補者에 對한 黨員들의 直接 또는 間接의 公開的인 投票行事を 통해서 選出되었다는 경우는 들어본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共産國家의 政權變動은 高位 指導層 內部的 閉鎖的인 權力 暗鬪를 隨伴하는 것이 特徵이다.

둘째로 共産國家의 政權變動에서는 指導者의 퍼스낼리티 要因이 重要하게 作用한다는 것이다. 共産國家에서는 一般的으로 革命이나

체제건설을 주도해온 1人指導者의 개성적 要因이 政治狀況을 決定  
的으로 規定해 주는 이른바 「政治權力의 人格化」現象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長期 執權에 따른 權力 또는 權  
威의 集中化가 현저한 것이 特徵이다. 예컨대 共產國家의 政治指  
導者는 革命과 体制의 「創始者」로써 또는 「人民의 解放者」로써  
不滅의 存在, 神話的 存在로 각색되고 있기 때문에 指導者 1人의  
權威와 政權 또는 國家가 그대로 等式化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러한 事情 때문에 共產國家에 있어서 政權變動은 深刻한 정당성  
의 問題를 提起하며, 또 이것은 秩序있고 制度화된 政權承繼方式의  
定着을 不可能하게 하는 原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로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政權變動은 단순하고 機械的인 權力  
의 移轉이라기보다는 複合的인 意味를 包含하고 있다는 點이다.  
共產國家의 政權變動에 對해서 「交替 (change)」라는 말 대신  
「承繼 (succession)」라는 表現을 使用하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 共產國家의 政權變動은 한 사람의 指導者를 다른  
한 사람의 指導者로 一挙에 交替하는 것이 아니라 一種의 「리더  
십承繼 (leadership succession)」의 性格을 띄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일정한 過程 또는 期間을 必要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共產國家의 政權變動은 보다 포괄적이고 全般的인 政治的 變化  
를 招來한다는 것이 特徵이다.

以上과 같은 一般的인 性格이나 問題點 때문에 共產國家의 政權  
變動은 거의 例外없이 危機狀況을 隨伴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特  
徵으로 指摘될 수 있겠다. 共產國家에서는 政權變動 時期에 体制的

취약점을 여지없이 露出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承繼危機 ( succession crisis )는 權力構造上的 變化, 더 나아가서는 体制的인 變化 또는 對內·外的인 政策上的 變化를 誘導하는 重要的 原因으로 分析되고 있다.

오늘날 大部分의 共產政權들은 後繼者의 事前 指名 또는 리더십의 制度化를 통하여 政權變動으로 招來될 政治的 不安을 事前에 對備하는데 부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事實 自体가 바로 그러한 承繼 危機를 最少化해 보겠다는 자각을 말해주는 것이다.

政權承繼問題에 對한 共產國家들의 처방은 一般的으로 누가 指導者가 되느냐 하는 「한 사람의 指導者 ( leader as a person )」에 關한 關心보다는 「하나의 制度로서의 리더십 ( leadership as a institution )」에 關한 關心<sup>6)</sup>으로 轉換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特徵的인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다.

---

註 6) : Ghita Ionescu, "The Modern Prince, Its Princes, and Its Condottier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Spring/Summer 1976), pp. 29.

### Ⅲ. 共產国家政權承繼의 事例分析

#### 1. 一般的 特徵

蘇聯에서 最初의 共產政權인 레닌 政權이 들어선 以來 60 餘年이 지난 지금까지 共產国家의 政權 承繼는 모두 13 번의 事例 (蘇聯에서 3 번, 東歐에서 13 번, 越盟과 中共에서 各各 1 번) 를 보여주고 있다. 共產政權 中에서 아직 한번도 政權承繼를 經驗하지 못한 예는 4 個 (유고의 티토政權, 알바니아의 호하정권, 쿠바의 카스트로정권, 北韓의 金日成 政權) 이다. 共產国家의 政權 變動 事例를 整理하면 表와 같다.

이와같은 共產国家의 承繼事例를 分析한 러쉬의 研究結果를 中心으로 承繼問題의 패턴을 要約·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로 共產国家에 있어서 政權의 承繼問題가 대두되는 계기는 以前 指導者의 死亡이나 身體的 無力화로 인한 自然的인 것과 內外的인 狀況의 壓力으로 인한 政治的인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범주 속에는 蘇聯에서 흐루시초프의 실각을 除外한 2 번의 承繼 事例와 東歐에는 불가리아의 데미트로프, 체코의 고트발트, 폴란드의 비에루트, 루마니아의 게오르규데이政權, 그리고 아시아 共產国家의 경우는 越盟의 胡志明政權과 中共의 毛沢東政權의 두 事例 모두를 包含해서 總 8 個의 事例가 해당된다. 후자 즉 政治的인 이유로 承繼問題가 發生한 경우로는 1956 年 蘇聯의

註 7) Myron Rush, op. cit. pp. 285 ~ 331.

共産國家의 政權變動 事例

國家別	指導者	執權期間
소 련	레닌	1917~1922
	스탈린	1922~1953
	흐루시쵸프	1953~1964
	브레즈네프	1964~
알바니아	호하	1945~
불가리아	데미트로프	1945~1949
	체르벤코프	1949~1956
	쥐브코프	1956~
체 코	고트발트	1945~1953
	노보뜨니	1953~1968
	두브체크	1968~1969
	후사크	1969~
동 독	울브리히트	1945~1971
	호네커	1971~
헝 가 리	라코시	1945~1956
	게 퇴	1956~1956
	나 지	1956~1956
	카다르	1956~

國家別	指導者	執權期間
폴 란 드	비에루트	1945~1956
	오차브	1956~1956
	고물카	1956~1970
	기에레크	1970~
루마니아	게오르규데이	1945~1965
	차우세스큐	1965~
유 고	티토	1945~
큐 바	카스트로	1959~
越 盟	호·치·민	~1969
	레·두안	1969~
中 共	毛沢東	~1976
	華國	1976~
北 韓	金日成	1945~

호루시초프政權 등장 이후에 東歐에서 이루어진 불가리아의 체르벤코프 政權, 헝가리의 라코시政權, 케로政權, 나지政權, 폴란드의 오차브政權등 5個 事例와 1964年 蘇聯의 호루시초프정권을 包含해서 이후에 東歐에서 이루어진 체코의 노보뜨니政權, 두브체크정권, 폴란드의 고몰카정권, 東獨의 울브리히트정권 등 도합 10個 政權의 後繼 事例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리쉬는 一般的으로 政治的 이유로 承繼問題가 發生했을 경우 더욱 심각한 承繼 위기를 經驗한다는 사실을 確認하고 있다.

둘째로 共産國家의 承繼問題는 承繼競爭의 範圍와 結果가 狀況에 따라 매우 流動的이라는 것이다. 承繼競爭은 그 範圍 또는 강도에 따라 제한적인 競爭, 擴大된 競爭, 不安全的 競爭의 形態를 보여준다. 制限的인 承繼競爭의 경우는 비교적 질서있는 권력承繼가 이루어지며 擴大된 競爭의 경우는 承繼의 위기가 社会 全般에 파급되며 통상 1人的 월등한 指導者가 등장하여 強力한 政敵들의 도전이나 社会的인 동요를 克服하고 安定된 一人支配體制의 구축에 成功한다. 그러나 불안정한 承繼競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사람의 월등한 指導者가 출현할 수 없는 狀況에서 指導者가 自身の 지위 安정에 失敗함으로써 政治的 不安이 繼續되는 것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承繼 競爭이 擴大되면 될수록 社会的인 동요가 增大되며 社会的인 集團의 壓力이 承繼問題에 作用할 可能性이 커진다. 脫스탈린化 運動을 계기로 한 1956年의 헝가리와 폴란드의 承繼 經驗이나 1968年 체코의 經驗은 代表的인 承繼 위기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共産國家의 政權承繼問題는 政策 論爭과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共産國家에서는 政策 그 自体보다 누가 그 政策을 遂行하느냐 하는 개성적 要因이 重要視된다. 따라서 共産國家의 경우 政策上의 급격한 變化는 指導層의 變化를 要求하며 指導層의 變化는 政策의 變化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특히 承繼 위기와 關聯해서 새로운 指導者는 自身の 지위 안정과 政權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前任者의 政策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政策課題를 제시하는 것과 같이 政策 論爭을 제기하는 것이 通例이다.

네째로 共産國家에 있어서 政權 承繼의 과정에서 政策 論爭 또는 組織的인 갈등이 파벌로 발전할 可能性이 커진다는 점이다. 承繼 競爭은 처음에는 야심적인 承繼 후보자 간의 個人的인 競爭으로 시작되지만 이러한 個人的인 이해관계는 政治的인 原則과 결부되어 파벌 형성으로 발전하며 특히 承繼期間 중에는 이러한 파벌의 組織的 形態가 緊密해진다. 이러한 파벌 간의 갈등에서 보여지는 주목할 만한 特徵은 弱勢의 파벌과 強勢의 파벌간에 이루어지는 聯立의 形態, 그리고 派閥이 자신의 立場을 強化하기 위하여 社會의 광범한 集團에 對한 지지와 關心을 호소할 때 빛어지는 위기의 擴大이다.

다섯째 共産國家의 政權承繼과정에서는 黨 기구 (Party apparatus)가 안정화의 역할을 遂行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탈린 死後 共産國家에서는 黨 機構가 「主權的인」지위로 부각됨에 따라 承繼에 따르는 危機 緩化에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黨

결정의 집행을 통제할 책임과 全党的인 권위를 갖는 党 第2書記 (公式的인 지위라기보다는 序列上 二위를 稱의적으로 指稱)가 承繼競争에서 매우 유리한 立場에 서게 된다. 勿論 党 아파라치키와 第2書記 간에도 緊張이 存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第2書記는 党 아파라치키의 복종을 요구하고 때로는 그들에 대한 지나친 依存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 예컨대 國家機關이나 社會團體의 役割을 增大시키고자 한다. 통상 党 아파라치키는 第2書記의 權力集中에 協調的이지만 반드시 第2書記가 第1書記의 지위 確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제까지의 承繼事例 중 党 第2書記가 第1書記로 승진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7번이었으며 失敗한 경우도 5번이나 된다. 蘇聯의 흐루시초프는 序列 三位의 書記였으며 체코의 두브체크나 후사크, 폴란드의 고물카는 地方党 第1書記에서 政權 장악에 성공한 예이다.

그러나 党 이외의 國家機關이나 社會團體를 배경으로 承繼 競争에서 성공한 예는 전혀 없다.

## 2. 承繼에 따르는 政治的 變化

共產國家의 정권 承繼問題와 關聯해서 또하나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는 그러한 정권 承繼로 초래되는 諸 變化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政權 承繼가 체제 또는 政策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政權 變動에 따르는 그와 같은 영향을 주로 리더십의 側面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政權 承繼에 따르는 리더십의 성격 문제이다. 통상 共產 國家의 政權과정은 一人支配 (One man rule) 를 누리던 한 사람의 절대적인 指導者가 退去하면 일단 그가 누리던 권력의 분산과 더불어 暫定的으로 集團指導 體制 (Collective leadership) 가 형성되며 다시 한 사람의 越等한 指導者가 나타나 個人的인 權力을 強化함으로써 一人支配體制로 復歸한다는 循環的 變動의 가설이 支配的인 觀念이 되고 있다. 예컨대 러쉬와 같이 完全한 一人支配의 確立을 정치적 承繼의 성공으로 보는 관점이나 플로스(Sidney Ploss) 와 같이 「集團的 指導의 타락 (erosion of Collective leadership) 」 가능성을 지적하는 觀點은<sup>8)</sup> 대체로 이러한 견해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이와 같은 리더십의 循環的 變動論의 立場과는 달리 共產 國家의 政權 變動은 「순수한 과두지배 (Pure oligarchy)」의 안정화, 또는 集團的 指導體制의 정착화가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예컨대 蘇聯에 있어서 흐루시초프 以後 一人支配體制 樹立의 限界를 論議하고 있는 호드네트 (Grey Hodnett) 나<sup>9)</sup> 東歐에 있어서 체코·헝가리·東獨·폴란드의 경우와 같은 집단지도 체계의 制度化 定向을 지적하고 있는 코르본스키가<sup>10)</sup> 이에 해당

---

註 8) Sidney Ploss, "Politics in the Kremlin" Problems of Communism (May-June 1970) p.6.

9) Grey Hodnett, "Succession Contingencies in the Soviet Union,"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75), pp.1 ~ 22

10) Korbonski, op.cit.

된다. 리더십의 성격과 關聯해서 또 하나 중요한 側面은 革命體制의 制度化라는 문제이다. 體制 建設을 주도했던 초창기의 전통적인 共產政權 指導者의 後退와 더불어 새로운 세대로 등장한 기술전문가들의 權力基盤 強化와 새롭게 제기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社會的 管理의 要求는 테크노크라시의 方向을 예견케 하고 있다. 아마도 오늘날 모든 共產政權이 당면한 가장 큰 정치적 難題의 하나는 바로 그러한 체제적 要求와 「不斷革命」이라는 命題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가느냐 하는 問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共產國家의 政權 承繼에 따라 權力構造面에서 나타나는 變化의 諸 側面을 檢討해 보기로 한다. 우선 黨內的 變化부터 살펴본다면 비록 承繼가 질서있고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指導者에 의한 黨 機構의 變更 또는 黨內 序列上의 變化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통상 정권 承繼는 黨 序列上 高位 또는 중간 수준의 간부교체를 수반한다. 이러한 간부층의 교체는 보통 중간층보다는 고위층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特徵이며 통상 중간 간부층을 形成하고 있는 것은 현상유지적인 黨僚로써 새로운 指導者의 變革 의도를 지연시키거나 저지 또는 挫折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sup>11)</sup>

이와 같은 간부층의 교체와 더불어 또 政權 承繼과정에서는 黨員의 큰 變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政權 承繼에 따르는 반대파의 숙청 또는 自派 勢力의 보강을 위한 제반 조치의 결과라

註 11) Ibid., p. 14.

고 해석되는 것인데 심지어 黨員의 30 ~ 40 퍼센트 增減을 보여 주는 예도 있다. 예컨대 1969年 체코의 후사크정권은 두브체크에 대한 지지자의 숙청 결과 黨員의 28 퍼센트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반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큐는 1965年 執權 以來 自派 勢力 確保를 위하여 1969年까지 黨員 수를 34 퍼센트나 增加시켰던 것이다. 비록 外形上 數字上의 增減은 없다 하더라도 내용적인 黨員 교체작업을 통해서 黨員 構成의 變化를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

다음으로 공산국가의 政權 承繼과정에서는 暫定的이나마 형식적인 代議機關의 역할이나 지위가 강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새로운 政權에 대한 대중의 처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인 일환이며 일단 새로운 政權이 安定되면 다시 형식적인 기능으로 復歸하게 마련이다. 1957年 폴란드의 고몰카政權, 1968年 체코의 두브체크정권 1971年 폴란드의 기에레크政權 등장시각 그 두드러진 예이다.

한편 共產國家의 政權 承繼과정에서는 黨·政關係에 미묘한 問題가 제기되며, 따라서 黨 관료와 行政府 관료의 관계를 조정하는 새로운 制度的 措置가 강구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共產國家에 있어서 흔히 黨과 國家機關은 競争關係에 있으며 특히 政權 承繼時 새로운 指導者는 두 관료계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봉착한다.

---

註 12) Ibid., p. 15.

黨·政 關係에 關係서는 蘇聯에 있어서 말렌코프는 黨 기구와 政府관료계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問題에 當면했을 때 自身の 權力 基盤으로 정부쪽을 택함으로써 결국 失敗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失敗 經驗을 教訓으로 하여 근래 東歐에서는 黨·政의 양자 중 택일식의 방법보다는 양자를 결합시키는 제도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獨特한 방식의 高안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1965年 이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政權이나 1971年 以後 폴란드의 기에레크政權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黨·政關係를 결합시키는 이러한 制度的 高안은 指導層 내의 갈등 原因을 해소하는 한편 指導者 自身の 권력 強化를 도모할 수 있는 二重의 長點을 가지고 있다.<sup>13)</sup>

### 3. 承繼 準備의 蹉跎과 애로

共産政權의 指導者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後繼問題를 거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共産國家에 있어서 은밀히 또는 어느 정도 公式的으로 後繼 指導者를 지명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제까지 共産國家에서 後繼者를 지명했던 事例는 11個가 있었으나 이 중에서 後繼에 성공한 것은 5個에 불과하다. 즉 後繼者로 지명된 인물 중 後繼者로 지명되었다가 後繼 以前에 숙청당한 예가 4번(蘇聯의 코즈로프, 유고의 랑코빅, 中共의 林彪·劉少奇), 承繼競爭과정에서 脱落된 경우가 2번이나 된다. 또 後繼者를 지명했다가

註 13) Ibid., p. 16.

지명된 後繼豫定者에 의해서 指導者의 지위를 찬탈당한 예도 2번 (호루시 초프와 東獨의 울브리히트)이 있다.

현재 共產政權의 指導者 중에서 自身の 後繼者를 지명하고 있는 예로는 헝가리의 카다르, 불가리아의 쥘브코프, 큐바의 카스트로, 北傀의 金日成이 해당된다. 이들이 지명하고 있는 후계자의 性格을 보면 党 第2書記職을 차지하고 있는 치안이나 國防 또는 党 人事問題 責任者이며 큐바나 北傀의 경우는 現 指導者의 친척 (피델 카스트로의 後繼로 지명된 라울 카스트로는 實弟이며 北傀의 경우 金日成은 그의 親子 金正一을 後繼者로 準備하고 있다)이라는 점이 特徵적이다.

이와 같은 共產國家의 後繼 準備 事例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일반적인 特徵으로 어느 한 사람을 後繼者로 지명한다는 것은 現存 指導者나 지명을 받은 후계 예정자에게 다같은 政治的 모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사실 現存 指導者와 豫定된 後繼者 간의 個人的인 또는 政治的인 關係는 매우 미묘한 것이며 때로는 쉽게 파탄될 수 있다. 예컨대 後繼者로 지명을 받았던 蘇聯의 브레즈네프와 東獨의 호네커는 그를 지명해준 전임자를 배신하였고 유고의 랑코빅이나 中共의 劉少奇·林彪와 같은 경우는 반란의 罪名으로 숙청을 당하였으며 蘇聯의 말렌코프와 코즐로프는 신임을 상실하였다. 한편 後繼者로 지명을 받은 사람은 또 指導層 내의 여타 勢力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困難에 직면하게 된다. 말하자면

---

註 14) Myron Rush, op. cit.

어느 한 사람을 後繼者로 指命하는 것은 그에 대한 潛在的인 政敵의 출현을 유발할 可能性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共產國家의 承繼 準備은 一般的으로 매우 困難한 정치적 難題가 되고 있으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特히 承繼 經驗이 없는 長期政權의 경우 後繼準備은 더욱 심각한 問題點을 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中共의 毛沢東政權이나 유고의 티토政權은 몇 차례나 後繼者를 지명하고 後繼體制 造成을 위한 補助的 措置를 취하는 등 後繼準備에 고심하였으나 번번히 失敗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現 指導者의 權力이나 權威가 더욱 集中化되고 長期化될수록 그만큼 政權 承繼의 困難性이 가중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事例이다.

따라서 오늘날 政權 承繼 準備에 고심하고 있는 共產國家들은 一般的으로 後繼問題의 公式化를 회피하면서 리더십의 制度化를 통하여 後繼體制 準備의 問題點을 해소하려는 方向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유고 티토政權의 경우는 1966年 랑코빅숙청사건 以後 權力 集中을 예방하고 集團的 리더십을 制度化하는 方向으로 티토 以後 體制를 準備하고 있는 것 같다.<sup>15)</sup> 큐바 카스트로政權의 경우는 아직 카스트로의 健在가 後繼體制를 서두를 狀況은 아니지만 이미 그의 實弟 라울 카스트로로 하여금 黨 政治局員·第二書記, 內閣의 第一副首相·國防相의 요직을 兼務하는 막강한 後繼者로 지

---

註 15) William Zimmerman, "The Tito Succession and the Evolution of Yugoslav Politic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Spring/Summer 1976), pp. 62~79.

명해 놓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經濟計劃 또는 行政에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새로운 엘리트를 權力層에 기용하고 1976년에는 社會主義 憲法을 채택하는 등 革命体制의 制度化 作業을 推進하고 있다.<sup>16)</sup>

例外的으로 近 30 餘年間 一人 통치를 누려온 알바니아의 호하政權은 그의 高齡에도 불구하고 政權 後繼問題에 전혀 관심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

註 16) Edward Gonzalez, "Political Succession in Cuh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Spring/Summer,  
1976) pp.80~107.

#### IV. 金日成政權의 当面課題와 北韓政治의 方向

##### 1. 金日成政權承繼問題의 性格

이상에서 공산국가의 정권 承繼問題를 중심으로 檢討하였다. 이러한 事例 分析의 結果는 지금 많은 논란과 問題를 보여주고 있는 北傀의 承繼 準備過程 또는 金日成 以後의 北韓 體制에 대한 有益한 比較의 觀點을 提供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立場에서 우리는 근래에 활발히 運위되고 있는 金日成政權의 후계 問題가 갖는 本質的인 性格을 보다 正確히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후계 問題를 단순한 權力의 이전으로 보려는 視角의 오류이다. 즉, 우리는 金日成政權의 後繼問題를 革命體制의 制度化 또는 體制의 繼承을 위한 리더쉽 전략이라는 側面과 동시에 오늘날 金日成政權이 당면하고 있는 政治的 課題, 즉 體制의 名分과 對內的인 正當性의 確立이라는 側面에서 檢討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金日成政權의 承繼問題에서 예견되는 것은 심각한 진통과 위기를 수반하리라는 점이다. 이것은 金日成의 絶對化된 권위와 高度化된 一人體制의 성격으로 미루어 쉽게 수긍이 가는 것이다.

여기 에다가 金日成政權이 依存하고 있는 체제적 명분, 또는 正當性의 強力한 根拠가 對南革命임을 勘案할 때 南·北韓關係 變數가 金日成政權의 後繼問題에 심각한 要因으로 作用할 可能性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세째로 金日成政權은 後繼體制을 準備하는 過程에서 이전의 他 共產政權이 겪은 經驗을 充分히 活用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金日成政權의 後繼體制은 독특한 形態로 모색될 것이 예상된다. 이미 드러난 것과 같이 北傀에서는 「革命家系의 繼承論」을 전개함으로써 유례 없는 세습체제 구축을 기도하는 方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政權은 後繼者의 지명에 따르는 여러 가지 問題點과 부작용을 勘案하여 이제까지 承繼問題의 公式化를 주저해 왔듯이 당분간은 承繼問題의 公式的인 거론을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金日成政權은 리더쉽 내부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抑制하고 金日成의 指導力에 害惡을 끼칠지도 모르는 內外的인 비판을 豫防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後繼體制의 準備는 金日成政權에게 하나의 불가피한 도전이며 時間이 갈수록 더욱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金日成 自身도 그의 죽음 후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脱金日成化」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는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여하튼 「金日成 없는 金日成體制」은 오늘날 金日成政權이 당면한 焦眉의 숙제로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難題일지도 모른다.

金日成政權의 承繼問題는 權力의 이양 그 自体만 놓고 본다면 그러한 問題가 發生할 수 있는 狀況과 그러한 狀況에서 權力鬭爭의 勝者가 될 수 있는 資格과 機會, 그리고 그러한 機會를 포착할 수 있는 個人이나 集團이 現在 金日成이 누리고 있는 權威가

무너졌을때 그 공백을 如何히 극복하는 가에 따라서 그 形態와 方向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原則的인 얘기를 하자면 權力承繼問題가 現實化되는 狀況은 金日成이 死亡하거나 病苦로 인하여 執務가 不可能하거나 辭任 아니면 反對勢力에 의한 脫職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權力承繼競爭樣相은 狀況과 与件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1次的으로 年齡, 健康狀態, 經驗, 指導者로서의 자질, 現職位, 政策的 立場, 엘리트間的 평판 등과 같은 承繼 候補者의 資格條件을 考慮할 수 있고, 狀況에 따라서는 金日成 個人的 選擇이 결정적으로 作用하는 위로부더의 指名 ( Pull from above ) 이 유효할 수도 있고 또 반면 派閥主義의 基礎 위에서 後繼者가 決定되는 밑으로 부터의 추대 ( Push from below )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여러가지 形態를 考慮해 봐야 할 것이다.

## 2. 金日成政權의 当面課題

반복되는 얘기지만 金日成政權의 承繼問題는 단순한 權力이 양의 問題가 아니라 리더십의 問題, 이데올로기의 問題, 政策問題 등과 같이 体制의 性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北韓의 金日成政權이 当面하고 있는 最大의 政治的 課題인 承繼問題는 金日成以後 体制의 準備와 直接的인 관련 속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北韓의 政治를 政權과 社会 ( regime-society ) 의 關係, 엘리트와 大衆 ( elite-mass ) 의 關係, 또는

리더십과 環境( leadership-environment )의 關係라는 基本的  
틀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必要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分析方法  
은 무엇보다도 政治權力的 構造, 政治的 리더십의 課題, 그리고 環  
境的 要因간의 相互作用關係를 分析함으로써 体制의 特徵이나 動態  
性を 다각적으로 밝혀 볼 수 있는 長점이 있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政權과 社會와의 關係 또는  
리더십과 環境과의 關係는 다음과 같이 說明되고 있다. 즉 리더  
십은 社會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規定되는 유토피아秩序를 의  
도적으로 부과하고 또 리더십 自体에 대한 環境的 要因을 最小化  
하는 반면 環境은 리더십의 性格을 制約하며 社會的 勢力을 形成  
함으로써 政權에 대한 諸要求를 投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  
십과 環境間的 관계는 政權의 發展段階에 따르는 리더십의 対応,  
즉 政權의 課題로 표현되며, 이러한 政權的 課題의 성격은 政權의  
組織形態나 政策의 方向을 規定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헌팅톤( Samuel P. Huntington )은 「革命的 一黨制( revolu-  
tionary one-party system) 」가 「確立된 一黨制( established  
one-party system) 」로 進化되는 過程을 三段階로 区分하고 政權  
의 課題를 体制의 變革( transformation ), 体制의 強化( Conso-  
lidation ), 体制의 適応( adaptation )으로 說明하였다. <sup>17)</sup> 헌팅

---

註 17. Samuel P. Huntington, "Soci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One-party Systems," in Huntington & Clement Moore  
(eds.), *Authoritarian Politics in Modern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70) P. 24.

톤의 所論에 따르면 一党体制의 制度化, 즉 適応段階로의 進入過程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特徵的 現象을 보여 준다고 한다.

- ① 技術 階級( technical class )이 登場한다.
- ② 複合的인 集團構造를 發展시킨다.
- ③ 批判的인 인테리가 다시 登場된다.
- ④ 地方 또는 大衆團體의 參與要求가 增大된다.

이러한 社會的 要求에 対応하는 政權課題로서의 適応이란 한마디로 繼續的인 發展( sustained growth)을 지향하는데 必要한 正當性( legitimacy)과 能率性( effectiveness)의 同時追求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社會的 價值로서의 이데올로기와 制度的 能力으로서의 實踐, 또는 包括的인 政策目標로서의 革命과 점진적인 政策目標로서의 發展間의 同時化過程( Synchronization process)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權力形態面에서 보면 一人支配와 党的 支配 또는 大衆的 參與와 制度化의 결합을 의미한다.

한편 조위트( Kenneth Gowitt )는 共產主義政權의 發展過程을 政權的 課題에 따라 變革, 強化, 融和( inclusion)의 단계로 区分하고 있다.<sup>18)</sup> 조위트의 說明에 따르면 傳統的인 社會의 變革이라는 課題를 성취하고 革命的 政權의 強化를 政權的 課題로 하는

---

註18) Kenneth Gowitt, "Inclusion and Mobilization in European Leninist Regimes", World politics(Vol. XXVIII, No.1 October 1975)PP.69 ~ 96.

段階에서는 政權이 社会로 부터의 孤立 (insulation) 을 最大化하며 党内의 服從을 最大化함으로써 政權과 社会의 關係는 命令과 暴力에 依存하는 支配하는 (domination)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와같은 強化라는 課題가 성취됨에 따라 政權은 새로운 融和의 課題를 맞게되며 政權과 社会의 關係는 孤立에서 統合 (integration) 을 指向하게 된다. 조위트는 이와같은 政權的 課題의 변화에 따르는 特徵的 現象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指導的인 政治機構로서 党組織을 강조하며 党的 社会, 經濟的인 代表能力을 增시한다.

② 党的 리더십이 보다 寡頭制的인 形態로 재구성된다.

③ 새로운 政治的 엘리트 즉 「政治的 管理者 (Political manager) 」<sup>19)</sup> 가 적극적인 역할을 遂行한다.

④ 社会内の 專門的 技術을 가진 階層에 대한 인식이 집중한다.

⑤ 權力에 대한 接近이 다양해지며 權力의 擴散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정도의 機能的, 專門的 自律性이 許容된다.

⑥ 權威關係의 성격이 變化함으로써 政權과 社会의 關係는 리더십의 技術이나 說得에 의한 操作的 形態로 전환된다.

---

註 19) 조위트는 党僚 (apparatchik) 나 技術專門家 (technocrat) 와 구별되는 새로운 엘리트型으로서 「管理者的인 政治幹部」 (managerial political cadre) 의 등장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새로운 엘리트는 經驗이나 리더십能力에 있어서 아파라치키나 테크노크라트와 구별되며 비교적 높은 水準의 技術的 專門性和 동시에 社会에 대한 操作的 技術 (manipulative skill) 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Ibid., P.78.

⑦ 政策決定에 있어서는 相互競合 (emulation) 보다는 先制 (initiation) 의 形態를 보여 준다.

⑧ 代議機關이나 國家的인 象徴이 格上되며 감시의 機能이 후퇴한다.

⑨ 對外關係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立場에 구속되기 보다는 民族國家的 意識이 높아진다.

이렇듯 조위트가 말하는 融和概念은 새로운 政權的 課題로서 社會的 統合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融和란 社會의 合理性 要求와 카리스마적인 리더쉽간의 연속적인 긴장관계 (Consequential tension) 을 전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헌팅톤의 適應 概念과 같이 專門性과 政治性간의 相互補完關係를 전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適應」이나 「融和」라는 것은 體制強化 期以後의 새로운 發展段階에 맞는 政權的 性格을 정의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것이다.

以上の 헌팅톤이나 조위트의 모델을 北韓政治에 適用해 본다면 현 北韓體制의 과도적 性格은 政權의 立場에서 볼 때 새로운 「適應」 또는 「融和」課題로의 移行이 不可避한 金日成의 리더쉽戰略으로 說明되며, 政權 對 社會의 關係라는 맥락에서 보면 政治的 權威 또는 正當性의 危機狀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政治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과도기적 狀況, 예컨대 大衆의 政治參與 또는 動員體制의 유지와 制度化의 要求가 안고 있는 問題, 不安定한 權威패턴은 金日成政權의 장래 또는 金日成以後 北韓 體制의 方向을 어느 정도 예고해 주고 있다.

### 3. 北韓政治의 方向

그러면 앞으로 北韓의 政治는 어떻게 展望해볼 수 있을 것인가? 北韓의 政治秩序는 어떠한 方向으로 모색될 것인가? 당분간 北韓의 金日成政權은 金日成의 絶對적인 個人的 리더십을 特徵으로 하는 「指導者為主型」( leader-dominant model )의 一党体制<sup>20)</sup>를 強化해갈 것이다. 적어도 金日成이 生存하는 限 北韓의 政治秩序는 카리스마적인 指導者와 大衆이 政治的動員을 통해서 직접 連結되는 「運動政權」( movement regime )의 性格을 持統할 것이다.

따라서 最高指導者인 金日成 1人의 恣意에 따라서 政治生活의 形態가 급격히 變動할 수 있는 말하자면 不完全한 權威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金日成以後까지 長期的인 展望을 해볼 때 北韓의 体制는 엘리트와 大衆의 關係를 党的 正교한 組織 또는 節次( Process )에 의해서 連結시키려는 制度化의 傾向과 適應力을 갖는 안정된 권위패턴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金日成以後의 北韓体制를 展望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体制形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革命的인 다이내미즘( revolutionary dynamism )과 体制의 環境的 要因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体制의 性格形成에는 革命的인 다이내미즘의 強度와 격렬성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러한 革命的인 다이내미즘은 金日成의 存在가 사라진 후에

---

註 20) James R. Townsend, Politics in china (Boston: Little Brown, 1974). PP. 281 ~ 289. 그는 一党体制를 Organization-dominant model과 leader-dominant model로 구분하면서 R. Tucker의 Bolshevism과 Fuhrerism의 구별을 원용하고 있다.

는 상당한 정도로 저하될 것이라고 쉽게豫想이 된다. 그러나 어떠한 形態로든지 이데올로기는 正当性的 근거로서 繼續 기능을 가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金日成以後 北韓에서 나타날 이데올로기의 退化 (ideological erosion)의 限界性도 인정되지만 어쨌든 이데올로기의인 다이내미즘이 결여될 条件下에서는 엘리트内部的 個人的인 또는 集团的인 競争으로 權力鬭爭이 보다 表面化 된다는지 政策決定過程이 「官僚制的 多元主義」(bureaucratic pluralism)의 傾向을 띄게 되리라는 展望이 可能하다.

体制의 性格形成에 影響을 주게될 環境的 要因으로서는 時間的 問題와 空間的 問題를 생각할 수 있겠다. 時間的 次元은 政治的인 世代의 變化와 革命의 연륜과 관련되는 것으로 새로운 엘리트의 充員方法이나 工業化, 經濟發展의 水準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空間的 次元은 体制의 對外的 環境과 관련되는 것으로 國際政治情勢나 南北關係등을 主要한 要因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순전히 權力構造의 側面에서만 보면 絶對的인 金日成의 權威가 사라진 狀況에서의 北韓政治는 聯立政治 (Coalition Politics)를 보여줄 것이며 그러한 聯立의 形態는 狀況에 따라 매우 격동적인 양상을 띄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北韓政治의 方向을 보다 長期的으로 展望할때 바네트 (Doak Barnett)가 毛沢東以後의 中共政治를 展望했던 巨視社会的 視角을 원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sup>21)</sup> 바네트는 中共政治에 있어서 毛沢東主義와 非毛沢東主義의

註 21) A. Doak Barnett, China After Mao: With Selected Documen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또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into post-Mao Er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4) 參照

分裂을 예견하고 毛以後의 中共政治를 다음과 같이 展望하였다.

- ① 政治에 대한 經濟의 優位가 強調된다.
- ② 價値의 變革보다는 生産과 經濟成長이 強調된다.
- ③ 平等主義的인 目標보다는 專門技術的인 能力을 強調한다.
- ④ 이 데올로기의인 誘因보다는 物質的인 誘因이 強調된다.
- ⑤ 大衆的 動員의 形式보다는 制度的인 어프로치를 취한다.
- ⑥ 躍進과 같은 급격한 變化보다는 秩序있고 점진적인 變化를 추구한다.

요컨대 보다 經驗的이고 實用主義的이며 現實的인 路線으로 指向한다는 얘기다. 巨視적으로 볼 때 北韓政治의 方向도 그러한 線에서 크게 이탈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過程에서 현재의 北韓金日成政權은 教條的인 群衆路線 (dogmatic mass line) 을 보다 實用主義的인 群衆路線 (Pragmatic mass line) 으로 전환하는 政策的 전개를 보여 주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 執筆者

許景九 (1942 ~ ) :

高麗大学校 政經大学 政外科卒業, 韓國日報記者 (1965 ~ 70)  
美国 Hawaii 大学校 政治学科卒業 (政治学 博士), 高麗大学校 政  
經大学 助教授 (1975 ~ ), 主要研究業績 : ○ “Mobilization  
Patterns in Communist China”, ; “中共革命의 社会經濟的  
条件”, ; “毛沢東의 認識論批判” 等 .

朴昌魯 (1942 ~ ) :

東国大学校 法政大学 및 同大学院 行政学科 卒業, 美国 Nort-  
hern Illinois 大学校 大学院 政治学科 卒業 (政治学碩士),  
美国 Syracuse 大学校 Maxwell 行政大学院 卒業 (行政学博士),  
東国大学校 法政大学 助教授 (1976 ~ ) .

主要研究業績 : “Bureau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学  
位編文, Syracuse 大学校, 1974) ; “Authority in Chinese  
Industrial Bureaucracy : Recent Development” (ASPA 1974)  
經濟政策와 行政” (東国大学校 經濟經營論叢, 1976) 等 .

李文雄 (1941 ~ ) :

서울大学校 文理科大学 및 同大学院 社会学科卒業, 美国 Rice

大学校 ( 석사스 ) 大学院 人類学科卒業 ( 人類学博士 ) , 서울大学校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研究員 ( 1965 ~ 67 ) , 中央大学校講師 ( 1968 )  
美国 스미소니안研究所附設 国立博物館研究員 ( 1971 ~ 72 ) , 서울大  
学校 社会科学大学 人類学科 助教授 ( 1977 ~ ) .

主要研究業績 : “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 A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 , ( Rice University Studies ,  
1976 ) ; “韓國社会에 있어서 互惠關係의 몇가지 側面 ” ( 진단학  
보 42호 ) 等 .

李啓熙 ( 1946 ~ ) :

서울大学校 文理科大学 및 同大学院 政治学科卒業 , 慶南大学 極東  
問題研究所研究員 , 国土統一院 調査研究室 補佐官  
( 1974 ~ ) .

主要研究業績 : 蘇聯政治의 理解 ( 慶南大学出版局 , 1977 ) ; “北韓研  
究와 社会科学 ” ; “共產主義比較研究方法論 ” 等 .